연구보고서 2022-26

# 가족형성과 사회불평등에 관한 연구

최선영
이지혜·윤태영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윤태영**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협동조합 이사장



연구보고서 2022-26

**가족형성과 사회불평등에 대한 연구**

발 행 일 2022년 12월
발 행 인 이 태 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 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 쇄 처 ㈜삼일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ISBN 978-89-6827-890-7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2.26

# 발|간|사

이 연구는 결혼율 감소라는 인구현상을 개인 생애과정의 변화와 사회계층 및 젠더라는 불평등체계에 주목하여 연구하였다. 통계자료를 활용해 20대의 노동이력과 결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4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해, 사회경제적 맥락과 개인의 미시적 대응, 결혼의 의미 등 인구현상의 복합적인 측면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남녀 청년의 노동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사회의 불평등체계로서 계층과 젠더가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분석했다. 노동시장 경험과 결혼 전망은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이행기의 장기화와 불확실성 증가가 사회경제적, 젠더적 측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에게 집중되고 있었으며, 결혼 지연도 전반적인 청년기 생애과정의 맥락 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의 결혼전망이 가장 비관적이지만, 이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불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동기와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선영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수행되었으며,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의 윤태영 박사, 본원의 이지혜 전문연구원이 함께 참여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 연구위원과 본원 우해봉 연구위원은 아낌없이 유익한 조언을 해주었다.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익명의 검독위원들을 비롯하여 보고서 발간과정에서 애써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연구는 기꺼이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연구진들과 공유해준 심층면접 참여자들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면접 참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에 수록된 모

든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 목 차



Abstract ····· 1

요 약 ····· 3

**제1장 서론 ····· 7**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14

제3절 이론적 검토 ····· 18

제4절 연구 방법 ····· 28

**제2장 초기 성인기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과 가족형성의 지연 ····· 43**

제1절 '20대'의 교육, 고용, 결혼 ····· 45

제2절 학교-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변화 ····· 53

제3절 취업이행 유형과 초기 성인기 결혼 지연 ····· 80

**제3장 계층유형별 노동경험과 청년기 연장의 의미 ····· 87**

제1절 학교-노동시장 이행과정과 계층적 차이 ····· 89

제2절 청년기 '가능성'의 신화와 이행기의 장기화 ····· 117

**제4장 계층유형별 결혼 전망과 결혼 지연의 의미 ····· 135**

제1절 청년세대의 결혼 전망 형성과정: 결혼 가능성과 결혼기대 ····· 137

제2절 계층유형별 결혼 전망: 동질혼과 성역할 전망 ····· 147

제3절 성별화된 결혼 지연과 새로운 가족형성의 전망 ····· 165

**제5장 결론** ····· **187**

제1절 연구의 함의 ····· 189

제2절 정책적 함의 ····· 194

**참고문헌** ····· **199**

**부 록** ····· **207**

[부록 1] 심층 면접 질문 목록 ····· 207

[부록 2] 부표 ····· 215

# 표 목차



〈표 1-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 38
〈표 2-1〉 성별 출생코호트별 교육수준 분포 ····· 46
〈표 2-2〉 성·교육수준별 미혼율: 1969, 1974, 1979, 1984, 1989년 출생코호트 ····· 52
〈표 2-3〉 1971~1990년 출생자의 연령별 취업률 ····· 54
〈표 2-4〉 출생코호트별 여성의 연령구간별 취업률 ····· 55
〈표 2-5〉 출생코호트별 남성의 연령구간별 취업률 ····· 56
〈표 2-6〉 1971~1990년생 취업 이행 궤적 분석 최적 유형의 수 추정을 위한 모형적합도(BIC) ····· 57
〈표 2-7〉 1971~1990년생 여성 취업 이행 궤적 산출 모형의 각 집단에 대한 모형적합도 ····· 58
〈표 2-8〉 1971~1990년생 남성 취업 이행 궤적 산출 모형의 각 집단에 대한 모형적합도 ····· 58
〈표 2-9〉 1971~1990년생 여성의 취업이행유형별 주요 특성 ····· 64
〈표 2-10〉 여성의 출생코호트별 취업이행유형 분포 ····· 66
〈표 2-11〉 여성의 교육수준별 출생코호트별 취업이행유형 분포 ····· 68
〈표 2-12〉 1971~1990년생 남성의 취업이행유형별 주요 특성 ····· 73
〈표 2-13〉 남성의 출생코호트별 취업이행유형 분포 ····· 76
〈표 2-14〉 남성의 교육수준별 출생코호트별 취업이행유형 분포 ····· 77
〈표 2-15〉 1971-1990년 출생코호트 남녀의 19-29세 취업궤적과 30세 시점 결혼여부 ····· 83
〈표 3-1〉 계층배경과 노동 이력에 따른 계층 유형 구분 ····· 90
〈부표 1〉 성별 출생코호트별 교육수준별 과거연령별 미혼율 ····· 215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토픽 가이드: 주요 서사 질문 및 후속 질문의 흐름 ····· 32
〔그림 2-1〕 남성과 여성의 20대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추이(2000~2022) ····· 47
〔그림 2-2〕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2001, 2011, 2021) ····· 48
〔그림 2-3〕 출생코호트별 30세 시점 미혼율 ····· 49
〔그림 2-4〕 출생코호트별 19~29세 여성 취업률 ····· 55
〔그림 2-5〕 출생코호트별 19~29세 남성 취업률 ····· 56
〔그림 2-6〕 1971~1990년 출생 여성의 취업 이행궤적: 집단중심추세분석 추정결과 ····· 59
〔그림 2-7〕 여성 교육수준별 취업이행유형 분포와 출생코호트 비교: 1971~1975년생과 1986~1990년생 ····· 69
〔그림 2-8〕 1971~1990년 출생 남성의 취업 이행궤적: 집단중심추세분석 추정결과 ····· 71
〔그림 2-9〕 남성 교육수준별 취업이행유형 분포와 출생코호트 비교: 1971~1975년생과 1986~1990년생 ····· 79

# Abstract

## A Study on Family Formation and Social Inequality

Project Head: Choi, Sun Young

Marriage decline and marriage delays are intensifying, with marriage delays concentrated among those with lower socio-economic status. This study sought to understand the labor experiences of young men and women, the constraints they face, and how they affect their prospects for family formation.

Labor market transitions in early adulthood are highly heterogeneous within generations, with a clear "family to market" shift in early adulthood for women, and fewer early entrants and more late entrants for both men and women. Both late entry into the labor market and entry into precarious jobs had a negative impact on marriage transition.

We find that human capital investment and work experience during this period directly affect the prospect of family formation after age 30. Homogamy across social strata is taken for granted, suggesting that most marriages will take place within social class compartments. Men and women in the lower middle and stagnated working trajectories have the most negative marriage prospects. This is because they are "not financially prepared" or believe that they will lose opportunities for improving their job qualities after marriage. Men and women in

Co-Researchers: Yi, Jihye · Yun, Tae-young

the lower class do not expect to be supported by work-life balance programs, and the idea that having children will prevent women from working weighs heavily on both men and women.

The value individuals place on marriage appears to vary by gender rather than class. Men place a high value on marriage and consistently pursue it, while women utilize a strategy of staggering their lifetimes and deferring the value of marriage for a period of time. However, these gender differences depend on considerations of the tangible and intangible disadvantages of marriage, so delaying marriage for both men and women can be understood as a strategic response to socioeconomic and gender disadvantage.

Keyword : marriage, young adulthood, labor experience, social inequality, gender

# 요약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결혼 감소와 결혼 지연이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결혼 지연과 비혼이 집중되는 경향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남녀 청년들의 노동 경험과 이들이 직면하는 제약조건을 이해하고, 그것이 가족형성 전망에 영향을 주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했다.

## 2. 주요 연구결과

초기 성인기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보면, 세대 내 이질성이 매우 컸고, 여성의 초기 성인기가 확연하게 '가족에서 시장으로' 이동했으며, 남녀 모두 조기 진입자는 감소하고 후기 진입자는 늘어났다.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는 것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이 모두 결혼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초기 성인기(19-29세)는 가족과 노동의 각축시기가 아니라, 시장의 요구가 지배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인적자본 투자와 노동경력이 30대 이후 본격화되는 가족형성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계층적 동질혼이 당연하게 생각되며, 대부분의 결혼이 계층적 칸막이 안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계층유형 중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남녀의 결혼가능성 전망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결혼 후 계층지위 상승 기회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남녀는 일-생활 균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녀를 낳으면 여성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남녀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개인이 결혼에 부여하는 가치는 계층보다는 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결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결혼을 일관되게 지향하는 반면, 여성들은 생애시간을 분할하여 일정 기간 동안 결혼의 가치를 유보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었다. 중하위계층 남성들의 결혼 지연은 수단적인 특성이 있었으나, 여성들의 '결혼 지연'은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젠더 격차는, 결혼으로 인한 유무형의 불이익에 대한 고려에 의존하므로,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결혼 지연은 사회경제적 불리함과 젠더 불이익에 대한 전략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생애 비혼'은 남녀 모두에게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이러한 차선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녀 모두에게 단순히 '결혼'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남녀 모두 각자가 생각하는 '좋은' 결혼을 지향하기 때문에 결혼은 지연되고 있었다. 즉 결혼 지연은 시간을 지연하여 부족한 자원을 늘리거나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행위자들의 전략적 수단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그리고 젠더 질서에 의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이 끊임없는 이행기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 3. 결론 및 시사점

결혼 지연은 노동시장 지위의 취약성과 가족관계에 대한 젠더적 취약성을 그대로 수용하고 당장 결혼으로 이행하는 것을 지양하는 행위이다. 시간적 간격을 두고 자산을 모으거나, 노동시장 지위 개선을 위한 탐색을 지속하거나, 가족관계로 인한 제약 상황을 미루는 행위로서 결혼 지연은 단순한 자포자기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좌절과 체념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혼감소 현상은 청년층에게 임시적으로 경제적

자원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하여야 하며, 일-생활 균형이 전체 사회 계층에게 당연한 권리로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단독 또는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의 마련도 필요하다.

**주요 용어:** 청년, 결혼, 계층, 노동 경험, 젠더, 불평등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이론적 검토
제4절 연구 방법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2020년대에 들어서도 결혼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법적 성인 연령에 도달한 이후 생애의 긴 시간을 미혼상태로 보내는 일이 흔해졌다. 1969년에 태어난 남성들은 30세가 되기 전에 4분의 3이 결혼을 했지만, 그로부터 10년 후에 태어난 남성들은 그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20년 후에 태어난 1989년생 남성은 26.5%만이 30세까지 결혼을 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결혼율이 높지만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13.8%에 불과했던 1969년생의 30세 시점 미혼율은 1979년생에서 37.3%로 두 배 이상 커졌고, 1989년생 여성에서는 53.1%로 더 늘어났다(〈표 2-2〉 참조).

초기 성인기 미혼 비율은 불과 20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결혼 제도 외부에서 친밀 관계를 형성하거나 자녀를 낳아 기르는 등의 '다양한' 실천이 늘어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지난 20년 동안 비혼 상태에서의 동거와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지 않았지만, 경험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기대와 차이가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거나 혼자 사는 것, 그리고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최선영, 2022; 변수정, 2022; 장인수, 2022). 동거와 출산은 대부분 결혼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제도로서 결혼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의 결혼 감소 추세가 결혼에 대한 거부나 대안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추구 등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대신에 결혼에 대한 기대를 실현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부정적 경험이 지난 20여년 간의 결혼 감소 추세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성이 더해진다. 사실 1990년대 후반 이후 몇 차례의 경제위기와 세계적인 저성장, 고용의 탈규제와 불안정화 등은 가족형성(family formation)과 재생산(reproduction)을 위한 사회경제적 생활기반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가족형성은 위축되어 왔고, 결혼제도의 변화보다는 우리 사회의 '결혼 능력'(marriageability) 약화가 이 위축을 설명한다.[1)]

일련의 미시적 실증 연구들은 이러한 측면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왔다. 실제로 결혼이행이 지체되고 비혼으로 남는 사람은 새로운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교육받은 중산층이 아니라, 저학력이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층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지위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인 경우, 결혼이행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안태현, 2010; 윤자영, 2012; 최필선, 민인식, 2015; 오지혜, 임정재, 2016; Kim, 2017; 김유빈, 강민정, 고영우, 김영아, 2019; 노법래, 양경은, 2020).[2)] 이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결혼여부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가족형성이 불평등의 다차원적 측면 중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1) '결혼능력'(marriageability)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노동계급 연구에서 나온 '결혼 능력 있는 남성 풀 가설'(male marriageable pool hypothesis)에서 가져온 용어이다. 윌슨은 미국 하위노동계급에서 결혼이 감소하고 미혼출산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보수주의의 도덕적 비난에 대응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괜찮은 일자리)의 급감과 '대감금'에 의해 (여성의 입장에서) 결혼할 만한 남성의 수가 대폭 축소된 것이 결혼감소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Wilson, 1987; Edin and Kefalas, 2005, pp. 198-199 재인용).

2) 노동시장 지위가 높거나 사회경제적 자원을 갖춘 개인들의 결혼이행은 원활한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계속해서 미혼 상태에 머물게 되며, 가족의 계층적 배경(부모 학력, 직업, 자산)도 결혼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윤자영, 2012; Kim, 2017; 김유빈 외, 2019; 노법래, 양경은, 2020).

그러나 이와 같은 계층차별적인 결혼이행 패턴이 어떤 사회적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 논리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남성(또는 여성)이 결혼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은 경제적 능력이 배우자로서의 가치를 규정함을 보여주지만(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오지혜, 임정재, 2016), 개인의 실제 결혼이행 여부와 시기에 (잠재적) 가치평가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존 실증연구에서 여성의 계층적 지위는 남성만큼 강하고 안정적으로 결혼이행 패턴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이행이 늦거나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가족배경의 영향은 연구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다. 반면 노동시장 통합정도를 나타내는 실업, 비정규직 등은 여성의 결혼이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윤자영, 2012; Kim, 2017, 김유빈 외, 2019).

이러한 특성은 사회경제적 불평등 경험과 그것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이 젠더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은 가족배경 및 교육수준과 노동시장 통합정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정도가 크다. 젠더는 여전히 노동시장 지위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세대의 초기 노동시장 경험에서도 '설명되지 않는' 뚜렷한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유정미, 2017; 김창환, 오병돈, 2019; 남재욱, 2021). 그러나 이러한 성별화된 노동경험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다.

요컨대, 사회불평등이 결혼이행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층적 지위라는 최종 결과물이 결혼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계층과 젠더의 교차성에 따른 노동 경험의 차별적

인 구성과정이 포괄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과 관심에서, 이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노동시장 경험이 가족형성에 미친 영향을 통해, 가족형성과 사회불평등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노동시장 진입 이후 현재까지의 노동경험 및 지위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이러한 경험과 노동시장 위치가 개인의 결혼 전망과 결혼 지연 동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세대가 갖고 있는 가족생활과 결혼에 대한 기대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결혼 지연 심화 추세에 어떤 함의가 있는가를 고찰한다.

지금까지 초기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연구와 가족형성 전망에 대한 연구는 별도의 연구로 수행되었을 뿐, 양자를 통합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는 심화되는 결혼감소(결혼 지연) 추세와 그와 연관된 저출산 심화 경향에 대해, 당사자들의 생활 조건과 그에 대한 개인들의 대응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적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에 특히 주목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결혼행동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자주 전제되지만, 그 인과관계는 자명하지 않다. 전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결혼과 가족형성, 그리고 전통적 도덕을 지향해왔으며, 저학력자가 상대적으로 빨리 가족을 이루는 경향은 비교적 최근 연구를 통해서도 보고되고 있다(정수남, 권영인, 박건, 은기수, 2012; 우해봉, 2012). 또한 사회경제적 하층은 상대적으로 늦게 결혼하고 비혼으로 남는 경향도 발견된다. 직업과 소득은 특히 남성의 배우자 자격으로서 1980~90년대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은기수, 1995;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그러나 최근 20여년 동안 고등교육의 확대, 인터넷과 SNS 등 미디어의 변화, 제조업의 고용감소와 서비스업의 증가 등의 배경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결혼을 전망하고 결혼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에 변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단지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하위계층과 결혼이행 사이의 단선적 관계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패턴과 어떻게 다른가가 설명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생애과정 접근(life course approach)을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개인의 생애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주목한다. 불평등의 인구학적 결과에 관심을 기울인 기존 연구들은 사회적 과정과 개인의 행위성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여성과 중하위계층과 같이 불평등 경험이 집중된 집단에 분석적인 강조점을 두지만, 남성과 여성, 그리고 상위계층과 중하위계층을 모두 분석에 포함하여, 사회적 불리함이 가족형성 전망과 실천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드러낼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노동시장 이행 및 노동시장 경험뿐만 아니라, 초기 성인기의 연애경험과 일상생활의 의미, 그리고 결혼 여부를 넘어, 기대하는 가족생활의 모습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가족형성 전망뿐만 아니라 청년기 및 성인기 등 생애과정의 의미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당사자들 자신의 지향과 동기, 그리고 해석에 주목한다. 최근의 인구학적 행동(생애과정 결정)에서 주목해야 할 요소는 단지 지금 당장의 소득과 직업의 수준이 아니라 그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다(Bolano and Vignoli, 2021). 특히 결혼은 장기적인 효과를 낳는 결정이므로 당장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도 중요하게 고려된다(Oppenheimer, 1988). 이러한 주관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는 생애과정의 경과에 따른 결혼전망의 변화에 주목한다.

이 연구는 만혼 추세를 고려하여 연구 대상을 30대의 비혼자로 선정하고 29~43세(1980~92년 출생자)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수집한 한

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대상자의 객관적인 특성을 교육, 노동, 결혼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특히 양적 생애사 자료를 분석하여, 30세 시점까지의 결혼여부와 노동경험 및 교육수준, 출생코호트 등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를 통해 개인적, 집합적인 차원에서 결혼 지연과 사회불평등(사회계층 및 젠더)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이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어지는 서론에서는 선행연구와 연구의 이론적 자원을 설명하고,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 방법을 포함하여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1970~1989년 출생자 남성과 여성의 19~29세 동안의 노동경험과 30세까지 결혼여부의 관계를 분석한다.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른 취업이행유형의 차이를 밝히고, 계층 및 젠더가 취업이행유형의 매개를 통해 가족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확인한다.

3장과 4장은 40명의 심층면접 자료에 기초한 분석이다. 심층면접 참여자들은 29세 이상 43세 이하의 비혼 남성과 여성이다. 3장과 4장은 모두 가족배경과 노동시장 이력에 따라 구분한 네 가지 계층유형을 분석틀로 하여 노동경험과 계층적 지위의 형성과정 및 경험과 해석을 분석하고(3장), 이러한 경험이 결혼 전망에 영향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4장). 5장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의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에서 결혼이행의 설명변수로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양한 변수들의 조합으로 정의되고 연구되어 왔다. 교육수준, 노동시장지위(임금수준, 정규직 여부) 등 개인의 성취지위와 부모의 사회계층적 지위(학력,

소득, 자산) 등이 사회계층적 지위를 구성하며, 이러한 지위가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우해봉, 2009; 2012; 안태현, 2010; 윤자영, 2012; 최필선, 민인식, 2015; 오지혜, 임정재, 2016; 김유빈 외, 2019; 노법래, 양경은, 2020).

먼저 교육수준과 결혼이행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해봉(2012)은 1945-54년, 1955-64년, 1965-74년 출생코호트의 연령별 누적초혼율을 추정하여, 교육수준별 초혼이행패턴의 차이가 1955-64년 출생코호트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 최근으로 올수록 더욱 격차가 커지는 것을 밝혔다. 또한 남성의 경우 대략 30세 전까지는 저학력자의 결혼이행이 더 활발하지만 30세 이후에는 고학력자의 결혼이행이 더 활발한 형태로 역전되는 시간적 과정을 보여주었다. 여성의 경우는 이와 달랐는데, 저학력자가 더 빨리 결혼하기 시작해서 44세 시점까지도 저학력자의 누적초혼율이 고학력자를 능가하는 패턴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교육수준과 초혼이행률의 관계는 남성의 경우 정적(+) 관계, 여성의 경우 부적(-) 관계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박현준과 동료들(Park, Lee and Jo, 2013)은 1980년생을 가장 최근 코호트로 포함한 연구에서, 고졸이하를 중졸이하와 고졸로 세분하였는데, 그 결과 가장 저학력자 여성이 대졸여성보다 결혼이행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교육수준 이외의 사회경제적 설명변수를 추가한 연구에서도 사회계층적 지위와 여성의 결혼이행 간의 관계가 최근 들어 변화했다는 연구결과를 발견할 수 있다. 윤자영(2012)은 노동시장 지위 변수를 추가하여 사회계층적 지위와 초혼이행의 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정규직 여부)와 초혼이행의 관계 역시 정적(+) 관계에 있음을 밝혔으며, 생애연령에 따른 차이에도 주목했다. 가장 최근 출생코호

트를 포함한 김유빈 외(2019)의 연구에서도, 노동시장 지위와 초혼이행의 관계에서 여성 역시 노동시장 지위가 높을수록 결혼이행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특성과 결혼이행 및 결혼의향의 관계에서 확인된 이와 같은 사실은 "노동시장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게 안착을 한 취업자라는 선결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결혼과 출산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유빈 외, 2019).

대부분 사회경제적 지위와 결혼이행의 관계는 선택혼(assortative marriage)이라는 측면에서, 즉 결혼시장에서 선호되는 배우자의 특성을 드러내는 결과로 한정지어 연구되어왔다(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오지혜, 임정재, 2016). 초기 성인기의 교육수준(과 사회계층)과 성별에 따른 생애과정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확장된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특성을 밝힌 연구들은 단일 시점 기준의 노동시장 이행사건 분석에서 나아가 일련의 이행 과정에 중점을 둔 연구들로 발전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일자리 특성을 규명하고, 그와 관련된 노동시장 진입/이탈 정도를 파악하는 데 관심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최종학교 졸업시점이나 노동시장진입 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노동이력을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졸업 이후의 이행과정을 관찰한 박미희와 홍백의(2014)는 2007년과 2008년 최종학교 졸업 후 바로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청년을 대상으로 48개월 동안의 이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거나 장기 또는 단기간의 준비를 거친 후 취업하는 것은 모두 가구소득이 높거나(부모의 경제적 지원 능력), 경제활동 중인 아버지의 존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졸업 직후 준비기간을 갖지 못하고 바로 불안정노동에 진입할 확률은 아버지의 사망/무직으로 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변금선(2018)은 19~29세의 연령구간을 관측기간으로 정함으로써, 개인간 노동이력의 차이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교육기간의 장기화와 노동시장 진입지체를 포함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조기 진입은 저임금지속이나 노동시장이탈 등과 결합되었고, 진입지체는 고임금이나 임금상승 등과 결합되었다. 결과적으로 불안정이행 경험은 아버지의 낮은 교육수준과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재욱(2021)은 1978~1983년생을 대상으로 2008~2017년(1983년생은 25~34세, 1978년생은 30~39세)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을 노동시장 참여이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집단중심 모형으로 유형화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궤적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증가형이 41.6%로 가장 많았고 중간 증가형 36.6%, 높은 급증형 14.0%, 낮은 정체형 7.8% 순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별 차이는 가족배경보다는 개인 특성인 성별과 학력, 첫 직장에서의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에 따르면, 고등교육 진학과 졸업 후 취업준비 기간을 갖는 것이 가구소득, 아버지 경제활동, 아버지 학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며, 그러한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통한 투자가 '좋은 첫 직장' 입직과 연결될 경우 임금이 급증하거나 상승하는 임금궤적을 나타낼 수 있다. 노동시장 진입시기의 개인간 차이는 긴 교육기간과 취업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적·가족적 배경에 따라 설명된다.

개인의 행동패턴에 대한 미시적 연구들은 주로 양적 자료 분석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달리 심층면접법을 이용하여 청년 당사자들의 경험에 접근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김경화(2004)는 비정규직 종사 4년제 대졸 여성에 대한 연구에서,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와 노동시장 대응 방식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정규직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여성들은 결혼을 상대화하고 일을 우선시하는 반면, 현재의 노동시장 지위를 수용하는 여성들은 결혼에 적극성을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과 황정미(2013)는 청년기의 노동경험이 계층, 학력자본, 성별 등에 따른 제약 하에서 만들어지며, 그 형태는 횡적인 다양성이 아니라 획일적이고 한정된 경로 안에서의 진입과 퇴장의 반복 등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연구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라는 사회구조적 변화가 청년기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주목하는데, 한국의 청년기 노동경험은 자율과 선택 가능성 확대보다는, '알아서 해'(do it yourself)의 논리에 갇혀 있다고 결론지었다.

청년기 생애과정의 변화와 결혼 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관찰을 수행한 연구는 현재로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대부분은 양적 통계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질적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수행되어 왔으며, 더욱이 20대 청년기에 집중된 연구들은 가족형성 전망에 관한 주제까지 다루지 못하였다(정수남, 권영인, 박건, 은기수, 2012; 김영, 황정미, 2013; 노혜진, 2021). 반면, 청년들의 가족형성 전망에 관한 연구들은 계층적 쟁점을 다루더라도, 이들의 생애이력을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이재경, 김보화, 2015; 박수민, 2017).

## 제3절 이론적 검토

### 1. 결혼 감소의 원인

결혼의 감소 원인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시각은 결혼의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 of marriage) 시각이다. 결혼의 감소는 혼인연령의 상승과 혼인율의 감소라는 행태적(behavioral)

현상인데, 이러한 현상을 결혼규범의 제도적 규정력이 약화된 데 따른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다. 미국 사회학자 철린(Cherlin, 2004)은 사람들의 행위를 규정하는 제도, 즉 규범으로서 결혼이 약화되었다는 의미로 '결혼의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 of marriage)를 주장한다. 철린의 주장에서 특징적인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러한 결혼의 탈제도화가 20세기 내내 진행되어 온 장기적 변화의 일부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탈제도화는 이미 버제스와 로크(Burgess and Locke, 1945)가 결혼이 "제도에서 우애(companionship)로" 변화했다고 관찰했던 20세기 초에 이미 시작되었다. 20세기 후반의 변화가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며 이전의 변화 경향이 가속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탈제도화 경향에서 두드러진 것은, 결혼의 지위나 중요성의 소멸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결혼의 성격이 사회가 제시하는 기획이 아니라 개인들이 자신의 힘으로 성취해야 할 대상, 즉 '개인화된 결혼'(individualized marriage)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Cherlin, 2004, p. 852). 이러한 주장은 오늘날 결혼에서 문제화되는 측면이 결혼규범이나 가치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결혼으로 진입하고 나가는 것을 규정하는 결혼 외부의 요소에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20세기 초중반의 '우애결혼'이 20세기 후반 이후의 '개인화된 결혼'에 자리를 넘겨주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양자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2차 인구변천이론'은 2차대전 이후의 문화적 변화를 강조하면서, 이에 일정한 답을 제공한다. 2차 인구변천론에 따르면(Lesthaeghe and Van de Kaa, 1986; Van de Kaa, 1987), 2차 대전 이후 경제호황하에서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가 쉽게 충족되자 개인들은 자기표현(self-expression)과 같은 고차원적인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탈물질주의 또는 탈근대주의가 수용되면서 전통적 가족규범에 대한 비순응적

태도가 확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받은 중산층으로부터 시작되어 다른 사회계층으로 널리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이론은 결혼의 감소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하락, 이혼의 증가, 동거(consensual union)의 확산, 비혼 출산의 확산, 이혼의 증가 등으로 가족은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부모가 되고 평생 지속되는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인습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일이었고,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었다. 이와 달리 2차 인구변천은 개인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결혼과 출산 등 재생산과 관련된 생애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된다.

신고전파 경제학적 시각에서, 베커(Becker, 1981)는 성역할 전문화 모형을 중심으로 결혼의 감소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결혼이 개인에게 제공하는 효용은 가족생활에서 요구되는 생계부양활동과 가사·양육활동을 남녀가 각각 전문화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만약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면 결혼의 효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결혼의향도 감소하게 된다.

2차 인구변천이론이나 베커의 주장은 결혼의 감소를 전통적 핵가족의 가치가 하락한 데 따른 결과로 파악한다. 전통적 가족은 장기적이고 배타적인 부부관계와 그로부터 얻는 사회규범적 가치, 그리고 남녀간의 성역할 분리와 부부의 상보적 역할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핵심자원으로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규범과 경제에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개인들은 이제 결혼을 덜 선호하게 된다.

앞선 두 주장은 결혼에 대한 선호나 결혼의 가치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결혼의 감소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사람들이 결혼을 더 이상 선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경험적으로 확고하게 뒷받침되지 않는다. 특히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결혼과 출산 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나

는 것이 이러한 의구심을 확대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에게 결혼의 효용이 없을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수많은 결혼한 커플들이 공동부양 모형을 결혼에 통합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 노동시장 탈규제, 경제 위기 등이 개인의 생애과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들 논의에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외 가족형성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의 교육수준, 노동시장 지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가족형성여부 및 가족형성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 이에 따르면, 동거(consensual union)나 비혼은 저학력이거나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에서 나타난다고 보고해왔다.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가족형성의 차이 등도 잠재적인 결혼의향에도 불구하고 포기나 체념으로 전환되도록 만드는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였다. 인구학적인 원인으로서 성비불균형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도 성선별적인 여아낙태가 지속되어 결혼시장에 진입한 남성과 여성의 인구수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일정한 규모의 남성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인구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비불균형 문제는 특정성의 비혼경향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와 같이 여성과 남성 모두의 비혼이 늘어나는 경향을 설명할 수는 없다.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은 단지 남자(또는 여자)의 인구수가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남자(여자)의 수가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주장은 계급에 따른 결혼율의 격차가 큰 미국 사회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 카르본과 칸(2017)은 지역 결혼시장에서 결혼자격을 갖춘 남성의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이 미국의 하위계층 결혼을 위축시킨 원인이라고 주장한다.[3)]

3) 계봉오, 고원태와 김영미(2021)는 인구센서스 2% 표본자료(1990, 2005, 2015년) 자료를

## 2. 결혼시점 이론과 새로운 성인기

경제적 격차와 젠더가 결혼 전망 및 결혼여부와 시점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불이익이 결혼으로의 진입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왔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의 결혼 이행은 원활한 반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은 결혼 이행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 혼인행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혼인관계'가 이상적인 생활형태로 여전히 선호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변화한 것은 결혼을 절대적인 의무나 규범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간주하는 것(결혼의 선택성), 결혼 이외의 대안(비혼)에 대한 문화적 허용성의 증가(차선책의 허용성), 그리고 이로 인한 결혼의 기대 수준 상승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젊은 남녀 대상의 대규모 인터뷰 조사를 통해 거슨(Gerson, 2010)은 젊은 남녀의 절대 다수가 지속적이고 평등한 파트너십을 원하지만 이와 동시에 결혼 이외의 선택지를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평등한 파트너십을 발견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플랜 B"(차선책)를 갖기가 과거보다 쉬워졌고 존중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철린은 사람들의 선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채택하는 '플랜 B'에 대한 허용성이 커진 것이라고 주장한다(Cherlin, 2016, p.124).

오펜하이머(Oppenheimer, 1988)도 결혼 지연이 결국 생애비혼을

---

이용하여 혼인율이 급격히 감소했던 이 시기 동안 미혼여성이 '결혼할 만한 남성'이 감소했는가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는 미혼여성의 배우자 선호 특성을 실제 결혼한 유배우 여성들의 배우자 선택에서 가져와서, 미혼여성들이 선호할 만한 남성의 수가 과연 부족한가를 살펴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결혼할 만한 남성의 감소'라는 통념은 지지되지 않는다.

초래한다고 해도 핵심은 결혼시기의 지연에 있지 결혼제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등 구조적 변화 국면에서, 개인들은 결혼 탐색 그 자체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펜하이머의 설명은 시장노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에게는 결혼의 편익이 없으므로 결혼을 하지 않게 된다는 베커(Becker, 1981)의 관점과도 대조된다. 오펜하이머는 가족구조가 변화하면 이상적인 배우자상 또한 바뀌고, 결혼 탐색과정 자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혼 탐색과정에는 결혼상대를 찾는 탐색과정의 비용, 결혼상대 결정에 수반된 기회비용, 탐색기간이 늘어날수록 잠재 결혼상대의 수가 줄어드는 위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결혼 탐색의 어려움은 "현재 가용한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하여 미래의 중요 특성의 성격을 추정하는" 데에서 나오는 불확실성에 있다(Oppenheimer, 1988, p. 571). 결혼상대에 요구하는 기준(품성, 외모, 교육수준, 경제적 능력 등)을 낮추면 비교적 빨리 결혼함으로써 탐색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정보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이루어진 선택이기 때문에 결혼의 질이 낮아질 위험이 있다. 결혼의 질이 오직 선정과정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결혼한 이후 가족생활을 통해서 좋은 매칭으로 개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결혼 이후의 개선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할 때, 결혼상대 탐색비용을 높이고 오랜 기간 동안 탐색을 하게 된다. 반대로 결혼상대의 자질이 결혼이후 가족생활 내에서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된다면, 긴 기간과 높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불확실한 정보에 기초하여 결혼선택을 할 수도 있다(Oppenheimer, 1988).

이러한 결혼상대선정과정(assortative mating process)의 일반적인 형식에 변화를 가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이에 따라 결혼시기의

변이와 사회적 위치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결혼의 지연은 젊은 남성의 고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당사자인 남성 자신이 결혼상대 선정과정에 진입하기를 미루게 되기 때문이고, 또한 여성들 입장에서 결혼상대의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확실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게 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과거에 비해 남성들이 성인으로서 경제적 역할수행을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안정된 커리어에 진입하는 시기도 지연되며, 임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남성의 결혼 연령은 물론 여성의 결혼 연령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Oppenheimer, 1988).

오펜하이머는 1980년대 중하위계층 남성의 고용 불안정성과 소득 감소가 결혼시점의 지연을 초래했다고 설명한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20세기 후반 이후의 결혼감소 경향을 설명하는 데 있어 다시 '남성'(의 고용)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기도 했다(Kalmijn, 2011). 이러한 그녀의 주장은 결혼이 두 개인의 성애적 결합이 아니라 가구라는 경제적 공동체를 구성하는 행위라는 관점에 기초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의 경제적 기반은 시장소득에서 나오며, 미국 가족의 현실에서 시장소득의 제공자는 남성이었기 때문에 남성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여성의 결혼시기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한다(Oppenheimer, 1988).

오펜하이머는 이와 더불어 두 번째 변화를 강조한다. 성인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변화한 것이다. 과거에는 남편의 시장노동이 커플의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남편의 커리어뿐만 아니라 아내의 커리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복잡해진다. 그 결과 결혼 이후의 조정기제가 결혼매칭의 불완전성을 수정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든다. 이에 따라 결혼시장에서의 배우자 선택(assortative mate selection)에 더 중요성을 부과하게 된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노동시장 경력초기에 미래를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진지한 결혼 탐색은 각자의 특성과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분명해질 때까지 지연되는 것이다(Oppenheimer, 1988).

오펜하이머는 여성의 노동시장 결착도 증가와 그에 수반된 교육수준 상승 등이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제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강도로 시장노동을 한다고 해서 결혼의 편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들의 노동시장 결착도 증가와 교육수준 상승은 여성들이 원하는 배우자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배우자선택 과정에 부과할 수 있는 협상력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Oppenheimer, 1988).

오펜하이머는 여성들이 남성배우자 선택과정에서 경제적 역할 수행과 관련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요구조건을 쉽게 제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선택이 직업 선택처럼 '임금을 최대화'하는 경제적 목표에만 맞추어진 것으로 단순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결혼생활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장기적인 헌신과 친밀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자질과 능력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역할과 특성을 배우자에게 기대한다.

이러한 오펜하이머의 주장은 결혼의사결정에서 '불확실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통적인 성별분업 모델은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양육하는 공동부양/공동양육이라는 새로운 모델의 등장과 더불어 약화되었지만, 공동부양/공동양육의 모델은 현실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여성들의 의사결정은 훨씬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게 되고, 불확실성을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여성들은 결혼을 지연하게 된다.

밀즈와 블로스펠트(Mills and Blossfeld, 2005)는 이러한 오펜하이머의 주장을 유럽 청년들의 가족형성에 관한 논의에 적용했다. 세계화로 인

한 안정된 생산직 일자리의 감소는 결혼보다는 동거를 확산시켰는데, 일자리 전망과 파트너십의 전망 모두가 불확실한 청년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 사이에서 관계의 해소 비용이 낮은 동거가 확산되었다고 설명한다. 즉 유럽에서의 동거는 오펜하이머가 주목한 결혼 지연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사실 초혼연령의 상승은 교육기간의 연장과 취업시기의 지연, 그리고 '탐색기로서 청년기'의 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넷(Arnett, 2000, 2004)은 성인 이행의 지연을 '초기 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는 새로운 생애단계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4] 초기 성인기는 10대 후반과 20대 대부분을 노동시장의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대학에서 보내게 됨에 따라 출현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제약이 완화됨에 따라 결혼과 출산(양육)에 대한 외부적인 압력이 제거되었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생애경로를 스스로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아넷(Arnett, 2004, p. 469)은 "성인이라면 보통 부담하고 있을 지속적인 책임을 아직 떠맡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성인은 사랑, 일, 세계관 등에서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를 탐색한다. 초기 성인기는 수많은 서로 다른 방향이 아직은 가능한 생애의 한 시기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아넷의 초기 성인기 개념은 20대와 30대의 생애과정 상태를 단지 청소년기(youth)가 시간적으로 지연되거나 성인 이행이 유예되는 비

4) '새로운 성인기' 이론은 성인으로 이행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더 이상 이행기로 간주할 수 없고 하나의 새로운 생애단계(a separate period)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Arnett, 2004). 새로운 생애단계로서 '새로운 성인기'의 특징은 '정체성 탐색의 시기', '불안정성의 시기', '자아에 집중하는 시기',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은 시기', '가능성의 시기'라고 특징지어진다(Arnett, 2004). 이처럼 새로운 성인기가 하나의 생애단계로 간주될 수 있을 만한 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도, 새로운 성인기는 다른 생애단계와 비교하여 덜 구조화되었다는 의미에서 가장 이질적인 단계이고, 앞의 특성 또한 '새로운 성인기'만의 배타적인 특성이라기보다는 여러 생애단계가 단지 정도의 차이를 두고 공유하는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Mintz, 2015).

정상적인 상태로 보는 관점과 차이가 있다. 오히려, 변화된 제도적 환경의 요구에 대한 정상적인 적응방식임을 강조한다(Arnett, 2004).

그러나 아넷이 초기 성인기에 부여한 특성이 실제 경험을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규범화된 이상을 다루고 있을 뿐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령 미국 노동계급 청년의 성인 되기 과정을 연구한 실바(Silva, 2016)는 아넷이 규정한 '자유로운 모색기'로서 초기 성인기가 자신이 본 노동계급 남성과 여성 청년의 경험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자신이 만난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들어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실바는 아넷이 초기 성인기의 내적 특징으로 강조한 '탐색, 선택, 가능성'의 추구가 불리한 사회적 위치에서 성인이 되어가는 청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바로 그 기회의 부족'을 은폐한다고 비판한다. 노동계급 청년들도 '자존감, 자기 향상, 자립심, 자기 책임' 등 미국의 자조(self-help) 문화에서 나온 성인 됨의 규범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규범을 수용하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어떻게 수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Silva, 2016).

실바(2020)의 연구가 이러한 측면을 보여준다. 실바는 객관적인 기회의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믿고 희망을 가질 것을 강요하는 문화가 어떻게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자기 책임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결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지를 보여준다. 불평등한 기회구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가능성'의 담론을 수용하며, 결국 상승이동에 실패한 청년들은 국가, 사회제도, 일련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배신감'을 갖게 된다. 이 배신당했다는 감정은 개인으로 하여금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일로부터 거리를 두도록 만들고, 자기책임의 논리에 더 몰두하도록 만들며, 외부 세계에 대해 경직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실바, 2020).

# 제4절 연구 방법

## 1. 개인 행동패턴의 통계적 기술: 결혼 및 취업 이행 분석

### 가. 분석자료 및 대상

청년층의 취업 이행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노동 관련 가장 대표적인 패널자료인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1차(1998년)에서 23차(2020년)까지의 개인조사 자료와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였다. 개인의 성별이나 연령, 교육수준 등에 대해서는 개인 자료를 이용하였고 취업 이력은 직업력에 있는 개인의 생애 일자리 정보를 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1971-1990년 사이에 태어난 남성과 여성이다. 관찰기간은 월 단위이며, 졸업이나 취업 등의 생애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대신, 만 19세에서 29세까지 11년(132개월)의 나이를 기준으로 기간을 설정하였다. 가능한 많은 사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만 29세 이후에 한 번이라도 조사에 응답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 취업 이행 유형이 매우 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취업 이력은 노동패널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하였으며, 일자리별로 취업 시기와 퇴직 시기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취업 시기나 퇴직 시기가 없는 경우에는 매년 조사되는 개인 데이터의 일자리 관련 문항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대체하였으며 그 외에는 다음의 과정을 거쳤다. 취업이나 퇴직 연도는 있으나 월이 없는 경우, 취업 월은 가장 빈도가 높은 3월로 대체하였고 퇴직 월은 보수적으로 1월로 대체하였으며, 취업 연도와 퇴직 연도가 같을 때는 취업 시기로 대체하였다. 취업 연도나 퇴직 연도가 없는 경우 중 확인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케이스를 제외하

였다. 다만, 일부 확인 불가능한 일자리가 19세 이전이나 29세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케이스를 제외하지 않았다. 마지막 조사 시점까지 일자리를 지속하고 있었던 경우 마지막 일자리에 대한 퇴직 시기가 없는데, 이 경우 마지막 조사 시점으로 퇴직 시기를 대체하였다. 마지막 일자리가 아님에도 퇴직연월이 무응답인 경우 중 해당 일자리가 마지막으로 메인 일자리였던 조사 차수가 30세 이후인 경우에는 마지막 메인 일자리 차수의 조사 시점으로 퇴직연월을 대체하였다.

혼인상태는 초혼연월을 기준으로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초혼연월이 무응답인 경우에는 혼인 당시 배우자의 혼인연월로 대체하였다. 초혼연도는 있으나 월이 없는 경우에는 6월로 대체하였고 초혼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케이스를 제외하였다.

## 나. 분석 방법

청년층의 취업 이행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집단중심추세분석(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집단중심추세분석은 연령이나 시간에 따른 결과의 발달 궤적을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Nagin, 2014), 행동의 유형을 군집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의 궤적의 형태를 추정하며 집단 수와 자료와의 최적의 적합도를 갖는 집단 수를 검증한다(민현주, 2012).

20대 취업의 동태적 속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는 이행(transition)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궤적(trajectory)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다. 우리는 궤적을 관찰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집단중심추세분석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행위의 변화과정을 유형화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서 출산 전후 여성의 취업이행궤적을 분석한 기존연구를 통해 장점이 입증되었듯이(Hynes and Clarkberg, 2005; 민현주, 2012), 노동시장 첫 입

직과정을 분석하는 본 연구에도 적합하다. 집단중심추세방법은 배열분석과 비슷하지만 배열분석의 한계인 자의성과 통계적 검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박미희, 홍백의, 2014).

집단중심추세방법은 개인 i 가 시간 t 에서 집단 j 에 속할 확률을 구하는데, 여기에서는 취업 여부라는 이분형 자료(취업=1, 미취업=0)에 맞는 이분형 로짓분포를 적용하였다(Jones and Nagin, 2013). 이행 궤적 함수는 청년 취업 이행 궤적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3차 함수로 설정하였으며, 2~3개 궤적은 2차와 1차 함수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집단은 1집단에서 시작하여 최적의 집단이 산출될 때까지 집단 수를 하나씩 늘려간다. 최종적으로 집단 수는 집단 간 BIC 값의 차이의 자연로그값이 6 이상이면서 각 집단에 포함되는 사례수가 5% 이상인 경우, 그리고 평균사후확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도출하였다(김혜연, 2010; 이희정, 2019; Nagin, Jones, Passos, and Tremblay, 2018).

## 2. 문제 중심 면접(PCI)과 개별 심층 면접

양적 자료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의 맥락과 과정을 개별 행위자의 인식과 태도, 적응 전략을 통해 살펴보기 위해서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특징인 '유연한 설계(emergent design)' (Given, 2008)에 따라 자료수집 방식이나 규모를 분석 전에 완전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을 진행하면서 연구의 방향을 조정하고 실행하였다. '연구도구'인 연구자들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초기에 설정한 연구 문제나 연구 내용이 적합한 지에 대해 성찰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인식 과정에서 연구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준비'로서 '개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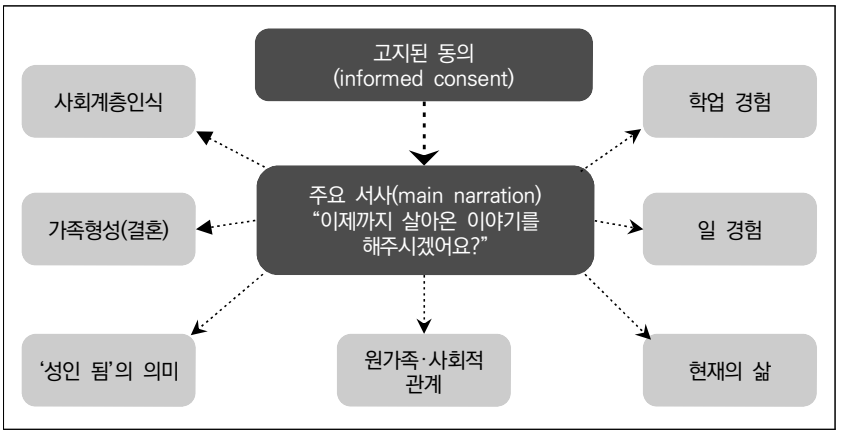
(Kleining, 2001, p. 30)'을 갖추고자 했다. 연구자들은 현장으로 들어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질문을 심화하고 구체화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의 분석과 수집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대신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구는 설계, 표집 방법, 규모의 차원에서 두 시기로 나뉜다. 두 시기 모두 Witzel 과 Reiter(2012)가 고안한 문제 중심 면접(problem-centred interview, PCI) 을 중심으로 하되, 첫 번째 시기(2022년 6월~9월)에는 Rosenthal(2018)의 '생애사 연구(Bographieforschung)'에 기반한 개방형 질문을 위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두 번째 시기(2022년 9월~11월)에는 Finch(1987)의 비네트 기법(vignette techniques)을 활용하여 문제 중심 면접을 보완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해석에 접근(Reinharz and Davidman, 1992)하기 위해 개별 심층 면접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Witzel과 Reiter(2012)가 고안한 문제 중심 면접(PCI)은 현장 기반 연구(fieldwork-based research)로 연구자를 '사전 정보를 가진 여행자(well-informed traveler)'로 가정한다. 연구자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회 현상 혹은 집단에 관한 선행연구 및 현황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진 내부자(informed insider)'인 연구참여자와 대화를 통해 구성된 지식(constructed knowledge)을 해석한다(Witzel and Reiter, 2012, p.14).

가족형성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해석을 이끌어 내면서도 연구자의 배경지식과 사전조사를 통해 설정한 연구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생애에 관한 개방형 질문과 반구조화한(semi-structured) 조사 목록인 토픽 가이드(topic guide)를 결합하였다. 연구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얻어낸 연구참여자의 주요 서사(main narration)를 바탕으로 조사 문항의 내용과 순서를 유동적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으

며, 면접 과정에서 즉석에서 마련한(ad hoc)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토픽 가이드는 면접의 '로드맵(roadmap)'으로 연구자 시각에서 설정한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이론적 틀(thematic framework)이다(Witzel and Reiter, 2012, p. 32). 연구진이 선행연구 및 양적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한 토픽 가이드는 다음과 같다[5].

〔그림 1-1〕 연구 토픽 가이드: 주요 서사 질문 및 후속 질문의 흐름




자료: Witzel, A., and Reiter, H. (2012). *The Problem-Centered Interview.* London: Sage Publications, p.52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 가. 자료 수집 절차

### (1) 첫 번째 시기: 서사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개방형 질문

연구자들은 가족형성(결혼)이 개인 수준에서 학업 및 일 경험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사회 변동의 관점에서 결혼과 성인 됨의 의미가 어떻게 연결

5) 조사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1] 심층 면접 질문 목록 참조

되는지 등에 대한 막연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첫 번째 자료수집 시기는 중간 분석 이전으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다. 자료수집 관련 선행연구 및 통계 자료를 통해 잠정적 면접 질문(provisional interview questions)를 구성하였고 면접 참여자의 관점과 서사(narration)를 포착하기 위해서 Rosenthal(2018)이 고안한 생애사연구(Biographieforschung)의 질문 기법을 활용하였다. 면접은 "이제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중단하지 않는다. 연구자는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하거나 후속 질문을 도출한다.

첫 번째 시기의 참여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년 집단 내부의 이질적 특성에 따라 취업과 결혼으로 대표되는 청년기 생애과업에 대한 태도와 실천의 양상과 맥락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성별, 교육수준, 원가족의 배경, 거주 지역, 종사상 지위 등을 고려하여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을 수행하되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일 경험과 결혼에 대한 태도 및 적응 전략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였다. 평균 취업 연령 및 혼인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참여자의 범위를 1980년에서 1993년 사이에 출생한 자로 한정하였다. 또한 사회 경제적 중상류층(upper-middle class) 이상을 연구참여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경우 연구참여자로 포함하였다: 1) 본인의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 이하일 것 2) 아버지의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 미만일 것 3) 30대 연령의 중위소득 이하일 것.

### (2) 두 번째 시기: 비네트 기법(vignette techniques)

6월 초부터 개별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초기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초기에 설정한 면접 질문 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각 면접의 주요 내용에 관한 메모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경험과 대응전략에 관한 패턴을 축적하였다.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에서 중요한 개념은 '적절성과 충분함'(Morse and Field, 1997; 신경림 외, 2004, p. 50에서 재인용)으로, '적절성'은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이고 '충분함'은 현상에 대해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자료가 포화(saturation)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수집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8월 말까지 총 22건의 인터뷰를 진행한 뒤, 연구자들은 중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간 분석 결과 '결혼 시나리오', '고등학교 선택 및 대학 진학', '노동 이력 다양화', '불안정과 개인화', '원가족과의 경제적 교환', '동질혼', '비혼' 등이 주요 패턴으로 등장하였다. 연구진은 학력, 고등학교와 대학의 선택, 소득, 원가족 지원 등 계층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를 다층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에 따라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과 선정 규모, 면접의 질문방식을 변경하였다. 우선 연구참여자의 계층 지위 및 노동 이력에 따른 결혼 관련 인식과 경험에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동이력이 안정적이고 소득이 비교적 높은 상위계층을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에 추가하고 적극적으로 모집하였다. 첫 번째 시기에는 삼십 대 이상의 미혼 남녀를 모집할 수 있는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에 모집문건을 전달하여 해당 기관 게시판에 게시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피력한 경우에만 개별 심층 면접 대상에 포함하였다. 기관 모집에 더불어 '당근 마켓'과 같은 지역기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서도 연구참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였는데, 아르바이트 구인란에 공고하여 비교적 소득이 낮거나 현재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구직 중이거나 부업을 구하는 사람이 주로 연구 참여에 신청하였다. 두 번째 시기에는 다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연구참여자를 섭외하고자, 지인을 통해 고학력의 여성들이 주로 참여한다고 알려진 유료 독서모임 온라인 단체모임에 접촉하여 참여자를 공개모집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연령대는 1차 시기에 비교적 접촉이 적었던 30대 중반 이상의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연구참여자 규모 역시 30명에서 40명 규모로 늘렸다. 마지막으로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가족 형성의 배경이자 토대가 되는 학업-일 경험은 어느 정도 유형을 가늠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연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가족 형성', '동질혼'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질문과 형태를 수정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가 20대 초반에 상상했던 '이상적인 가족(ideal of family)'과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나 바라는 가족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비네트 기법(vignettee techniques)'을 활용하였다. 비네트 기법은 텍스트, 삽화, 사진, 동영상, 음악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가상의 인물에 대한 짧은 스토리'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Finch, 1987). 연구진은 연구참여자의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해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돕기 위해 다양한 가족형태와 그 가족에서의 나의 모습을 설명하는 여러 장의 사진을 준비하여 제시하고 질문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제공된 사진 중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의 상과 가장 가까운 사진을 고르고 그 사진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가족과 자신의 모습을 서술한다. 비네트 기법 외에도 동질혼에 관한 질문,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에 관한 질문을 두 번째 시기에 추가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의 목적과 기간을 고려하여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에 이를 때까지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 방식을 통해 40명을 모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모집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 안내문을 통해 연구 참여 의사를 피력한 자에게 연구자가 전화상으로 연구에 대한 취지와 연구 절차, 참여자의 권리(참여 철회 및 중지의 보장),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 원칙을 설명하였다. 면접 일정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연구참여자가 선호하는 장소와 시간으로 정하되 참여자가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단독 회의실을 대관하였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 연구 내용 및 절차를 재차 서면으로 고지하였으며 이에 서명한 참여자에 한하여 개별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1시간 15분에서 2시간 30분 가량 각 참여자와 1회 이상 진행하였고 2명의 연구참여자는 각 1회씩 2시간 가량 추가로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추가적인 정보 확인을 위해 유선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통하였다.

위에 언급한 고지된 동의(informed consent) 이외에도 다음의 조치를 통해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의 설계 및 수행 절차에 대해서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거쳤으며 실제 연구 수행 과정에서도 이를 준수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원할 경우 면접 도중에 휴식을 취하거나 연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교통비 등에 해당하는 실비 및 사례비로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총 40명이 심층면접에 참여하였고 여성과 남성이 각각 29명, 11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연령대는 29세(1993년생)부터 43세(1980년생)까지 분포하며 평균 연령은 34.1세이다. 연구참여자의 출신지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세종, 광주, 세종,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다양하지만 부산에서 면접한 6명의 연구참여자(N11~16)와 경남에서 일하다 서울 방문

시 면접에 참여한 N05를 제외한 33명의 연구참여자는 수도권에 거주한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3명의 연구참여자 중 12명(N03, N05, N18, N21, N23, N24, N28, N30, N31, N33, N34, N36)은 지방에서 대학 진학 혹은 취업을 계기로 수도권으로 이주하였으며, 대부분 1인 가구이거나 형제자매와 동거한다.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초대졸 이상 학력이며 대학원 이상 학력인 연구참여자(N12)도 있다. 최종학력이 고졸인 사람은 여성과 남성 각각 1명(N23, N17)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일을 하다 늦게 전문대학(N05) 이나 4년제 사이버 대학(N02, N14) 학위를 이수하거나 지방대학교에서 지방거점국립대(N34) 혹은 서울 국공립대(N16)로 편입한 연구참여자도 있다.

연구참여자의 직업, 종사상 지위, 세후 소득 분포는 연구자가 자료 수집과 분석을 순환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정보 제공자'인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자 목적 표집(purposive sampling)한 결과이다. 연구참여자의 직업은 경영관리 사무직, 판매 서비스직, 콜센터 상담원, 보건 및 사회복지, 제조업 생산직, 금융업, IT 개발자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하며, 종사상 지위 역시 정규직(공채 및 전환자),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으로 다양하다. 연구참여자의 세후 월소득 역시 50만 원에서 550만 원까지 연령과 성별, 산업 분야 및 경력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며 이 역시 연구자가 분석을 진행하면서 연구참여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목적 표집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아래의 〈표 1-1〉에 정리하였다.

〈표 1-1〉 연구참여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 연번 | 성별 | 출생 년도 (만나이) | 현재 거주 지역 | 출신 지역 | 학력 (지역) | 직업 | 종사상 지위 | 입직 시기 (세) | 이직 횟수 (회)[1] | 세후 월소득 (만 원) |
|---|---|---|---|---|---|---|---|---|---|---|
| N01 | 여 | 1990 (32) | 경기 | 경기 | 초대졸 (경기) | 간호조무사 | 정규직 | 23 | 6 | 205 |
| N02 | 여 | 1991 (31) | 서울 | 서울 | 대졸 (사이버대) | 콜센터상담원 | 단기 계약직 | 19 | 23 | 250 |
| N03 | 남 | 1992 (30) | 서울 | 대전 | 초대졸 (충남) | 방송작가 | 프리랜서 | 21 | 1 | 200 |
| N04 | 여 | 1981 (41) | 서울 | 부산 | 대졸 (부산) | 백화점 판매원 | 하청 계약직 | 27 | 3 | 200 |
| N05 | 남 | 1992 (29) | 경남 | 세종 | 초대졸 (서울) | 항공기체 조립원 | 정규직 | 21 | 4 | 200 |
| N06 | 여 | 1993 (29) | 인천 | 인천 | 대졸 (충남) | 구직 중 | 정규직 (이전직장) | 24 | 3 | 250 |
| N07 | 여 | 1992 (29) | 서울 | 서울 | 초대졸 (충남) | 콜센터상담원 (생계)/패션모델(주업) | 단기계약직 /프리랜서 | 21 | 13 | 250 |
| N08 | 여 | 1992 (29) | 인천 | 인천 | 대졸 (서울) | 사회복지사 | 정규직 | 24 | 3 | 203 |
| N09 | 여 | 1992 (30) | 인천 | 서울 | 대졸 (서울) | 중견기업 인사부 사무직원 | 정규직 | 23 | 1 | 370 |
| N10 | 여 | 1990 (32) | 인천 | 인천 | 대졸 (미국) | 구직 중 | 정규직 (이전직장) | 22 | 0 | 500 |
| N11 | 여 | 1980 (42) | 부산 | 부산 | 대졸 (부산) | 카페 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 22 | 4 | 50 |
| N12 | 여 | 1980 (43) | 부산 | 부산 | 박사수료 (부산) | 미술교육강사 | 프리랜서 | 36 | 1 | 50 |
| N13 | 여 | 1992 (30) | 부산 | 부산 | 초대졸 (부산) | 중소기업 경영관리 사무직원 | 정규직 | 20 | 5 | 210 |
| N14 | 남 | 1988 (33) | 부산 | 경남 | 대졸[2] (사이버대) | 경비 보안직원 | 계약직 | 21 | 5 | 230 |
| N15 | 여 | 1988 (34) | 부산 | 부산 | 대졸 (부산) | 중소기업 경영관리 사무직원 | 정규직 | 23 | 5 | 200 |
| N16 | 남 | 1990 (32) | 부산 | 부산 | 대졸[2] (서울) | 학교법인 직원 | 계약직 | 26 | 5 | 180 |

| 연번 | 성별 | 출생 년도 (만나이) | 현재 거주 지역 | 출신 지역 | 학력 (지역) | 직업 | 종사상 지위 | 입직 시기 (세) | 이직 횟수 (회)[1] | 세후 월소득 (만 원) |
|---|---|---|---|---|---|---|---|---|---|---|
| N17 | 남 | 1983 (39) | 서울 | 서울 | 고졸 (서울) | 전단지 부착업 | 정규직 | 18 | 8 | 470 |
| N18 | 여 | 1992 (30) | 서울 | 광주 | 대졸 (충남) | 중소기업 물류팀 사무직원 | 정규직 | 24 | 3 | 260 |
| N19 | 여 | 1986 (35) | 경기 | 서울 | 초대졸 (충남) | 보육교사 | 계약직 | 20 | 6 | 280 |
| N20 | 여 | 1985 (37) | 서울 | 서울 | 대졸 (서울) | 기간제 교사 | 계약직 (기간제) | 22 | 2 | 380 |
| N21 | 여 | 1983 (39) | 서울 | 충남 | 초대졸 (대전) | 은행원 | 정규직 | 20 | 3 | 350 |
| N22 | 여 | 1984 (37) | 경기 | 서울 | 대졸 (충남) | 은행원 | 정규직 | 24 | 1 | 330 |
| N23 | 여 | 1987 (35) | 인천 | 경북 | 고졸 (인천) | 아르바이트 | 파트타임 | 21 | 3 | 210 |
| N24 | 여 | 1989 (33) | 서울 | 강원 | 대졸 (서울) | 게임회사 프로젝트 매니저 | 정규직 (전환) | 24 | 1 | 380 |
| N25 | 여 | 1989 (33) | 경기 | 서울 | 대졸 (서울) | 대기업 마케터 | 정규직 (공채) | 23 | 0 | 500 |
| N26 | 여 | 1986 (36) | 경기 | 서울 | 대졸 (서울) | 중견기업 마케터 | 정규직 | 24 | 4 | 340 |
| N27 | 여 | 1989 (33) | 경기 | 서울 | 대졸 (서울) | 외국계 스타트업 마케터 | 정규직 | 23 | 3 | 330 |
| N28 | 여 | 1987 (34) | 서울 | 전북 | 대졸 (충남) | 패션브랜드 고객관리팀 근무 | 정규직 | 24 | 4 | 370 |
| N29 | 여 | 1985 (37) | 서울 | 서울 | 대졸 (서울) | 은행원 | 준정규직[3] (전환) | 24 | 0 | 460 |
| N30 | 여 | 1982 (40) | 서울 | 대전 | 대졸 (전북) | 금융회사 마케터 | 정규직 (공채) | 24 | 0 | 550 |
| N31 | 남 | 1987 (35) | 인천 | 전북 | 대졸 (전북) | 자동차 부품 영업사원 | 정규직 | 27 | 1 | 310 |
| N32 | 여 | 1988 (33) | 서울 | 경기 | 대졸 (경기) | 외국계회사 물류팀 근무 | 정규직 | 25 | 6 | 360 |
| N33 | 남 | 1985 (36) | 서울 | 부산 | 대학중퇴 (부산) | 출판사 미디어팀 기술직원 | 정규직 (전환) | 23 | 5 | 410 |

| 연번 | 성별 | 출생 년도 (만나이) | 현재 거주 지역 | 출신 지역 | 학력 (지역) | 직업 | 종사상 지위 | 입직 시기 (세) | 이직 횟수 (회)[1] | 세후 월소득 (만 원) |
|---|---|---|---|---|---|---|---|---|---|---|
| N34 | 남 | 1991 (31) | 서울 | 강원 | 대졸[2] (강원) | 외국계 기업 엔지니어 | 정규직 (전환) | 26 | 0 | 490 |
| N35 | 남 | 1989 (33) | 서울 | 서울 | 대졸 (서울) | 취업 준비중 (아르바이트) | 단기 아르바이트 | 31 | 0 | 100 |
| N36 | 여 | 1991 (31) | 인천 | 강원 | 대졸 (대전) | 베이커리 판매직 | 파트타임 | 22 | 4 | 100 |
| N37 | 남 | 1992 (30) | 서울 | 경기 | 대졸 (서울) | 금융계 공기업 경영관리팀 근무 | 정규직 (공채) | 28 | 0 | 400 |
| N38 | 남 | 1987 (35) | 서울 | 서울 | 대졸 (서울) | 금융계 공기업 경영관리팀 근무 | 정규직 (공채) | 26 | 0 | 550 |
| N39 | 여 | 1987 (35) | 인천 | 부천 | 대졸 (서울) | 방송작가 | 프리랜서 | 25 | 2 | 270 |
| N40 | 여 | 1980 (42) | 인천 | 인천 | 전문대 중퇴 (경기) | 제조업단순 노무직 | 정규직 | 20 | 10 | 240 |

주: 1) 종사상 지위(정규직, 계약직, 단기 아르바이트, 자영자) 및 근로형태(전일제, 파트타임, 프리랜서)와 상관없이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주업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기억과 분류 방식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인턴 경험이나 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과외, 학내 근로)는 포함하지 않았고,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경우 1회를 추가하였다.

2) 편입 이력: N14(초대졸 졸업 후 4년제 사이버대 편입), N16(지방 4년제 사립대에서 서울 소재 국공립대로 편입), N34(지방 사립대에서 지방거점국립대로 편입)

3)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정규직과 호봉 산정 및 승진 방식이 정규직이나 회사 내 공채 출신과 달라 종사상 지위는 연구참여자(N29)의 표현에 따라 '준정규직'으로 표기 하였다.

자료: 저자 직접 작성.

## 나. 자료 분석 절차

본 연구는 인터뷰에 대한 녹취(transcribing) 및 부호화(coding)의 과정을 통해 현상의 의미와 행위자의 적응 전략을 밝혀낼 수 있는 질적 내용 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Weber, 1990). 면접 내용은 녹음하여 전체를 연구참여자가 표현한 그대로 전사한 뒤, 면

접을 실시한 연구자가 녹취록을 검토하였다. 주요 분석 자료인 녹취록 이외에도 연구자가 면접 시 기록한 메모와 연구참여자들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진은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참여자들의 노동경험과 결혼 등의 가족 형성에 대한 태도 및 적응 전략에 대한 패턴을 발견하여 초기부호(initial code)로 정리하였다. 초기 부호를 정리한 후 부호들의 관계 및 특성을 범주화였으며 분석을 통해 추상적인 수준으로 통합하고 발전시켰다. 연구진은 부호 및 범주를 개념화하고 범주 간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연구자 전원이 질적 심층 면접의 설계와 자료 수집, 내용 분석의 전 과정을 함께 수행하였다. 자료 분석의 타당도(validity)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초기 부호 및 연구참여자의 진술에 대해 토론하는 '삼각검증(triangulation)' 절차를 거쳤다(Denzin, 1978, Creswell and Miller, 2000, p. 126 에서 재인용).

자료 관리와 부호화 작업을 위해 질적 자료 분석 패키지인 ATLAS.ti를 활용하였으며 여러 작업자의 부호화 작업을 실시간으로 동기화 할 수 있는 웹 버전(ATLAS.ti web)을 활용한 뒤, 부호를 출력하여 수동(manual)으로 분석한 뒤 코드 항목을 다시 패키지에 입력 및 삭제하는 정선(cleaning) 과정을 반복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문서 그룹 지정(documentation grouping), 코드 그룹 지정(code grouping) 기능을 활용하여 부호의 범주를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진 개별 부호화-연구진 공동 삼각검증절차-정선 과정을 거친 후 총 1,041개의 인용구, 조작부호를 포함한 125개의 부호, 10개의 대범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각 범주는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특정 장 내 분리된 절로 배치하거나, 여러 개의 범주를 결합하여 하나의 절로 재구성하였다.

# 제2장

## 초기 성인기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과 가족형성의 지연

제1절 '20대'의 교육, 고용, 결혼
제2절 학교-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변화
제3절 취업이행 유형과 초기 성인기 결혼 지연

# 제 2 장 초기 성인기의 노동시장 진입 과정과 가족형성의 지연

## 제1절 '20대'의 교육, 고용, 결혼

### 1. '20대'의 교육, 고용

대부분의 산업사회에서 '20대'는 더 이상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간주되지 않는, 성인의 나이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난 20-30년 동안 '20대'의 사회경제적 성격은 크게 변화하였다. 개인 생애과정에 대한 교육, 고용, 가족 등 제도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지만, 성인 이행(transition to adulthood) 과정을 틀지웠던 시간적 형식(연령규범, 연령동질성)은 느슨해졌다. 그것은 무엇보다 성인 됨과 관련지어졌던 사회적 역할로서 고용과 가족형성의 지연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평균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학력화에 따라 교육 종료시점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중후반으로 연장되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자의 96.1%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고교졸업자의 71.5%가 대학에 진학한다(e-나라지표, 2022). 대학진학률은 특히 2000년대에 8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는데, 그 당시에 대학에 진학했던 세대인 1980년대 출생코호트의 남녀는 그에 앞선 세대에 비해 고졸 이하의 비율이 낮고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표 2-1〉 참조).

〈표 2-1〉 성별 출생코호트별 교육수준 분포

(단위: %)

| | | 1966-1970년 | 1971-1975년 | 1976-1980년 | 1981-1985년 | 1986-1990년 |
|---|---|---|---|---|---|---|
| 남성 | 고졸 이하 | 53.3 | 45.3 | 37.2 | 33.2 | 32.0 |
| | 초대졸 | 11.3 | 15.9 | 18.7 | 18.9 | 17.0 |
| | 대졸 | 28.5 | 30.7 | 36.7 | 41.4 | 45.5 |
| | 석사이상 | 6.9 | 8.2 | 7.5 | 6.5 | 5.6 |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여성 | 고졸 이하 | 63.6 | 50.6 | 37.1 | 29.1 | 24.2 |
| | 초대졸 | 10.7 | 17.3 | 22.8 | 23.6 | 21.1 |
| | 대졸 | 21.6 | 26.6 | 33.3 | 40.2 | 48.2 |
| | 석사이상 | 4.1 | 5.6 | 6.9 | 7.2 | 6.6 |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통계청. (2022),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R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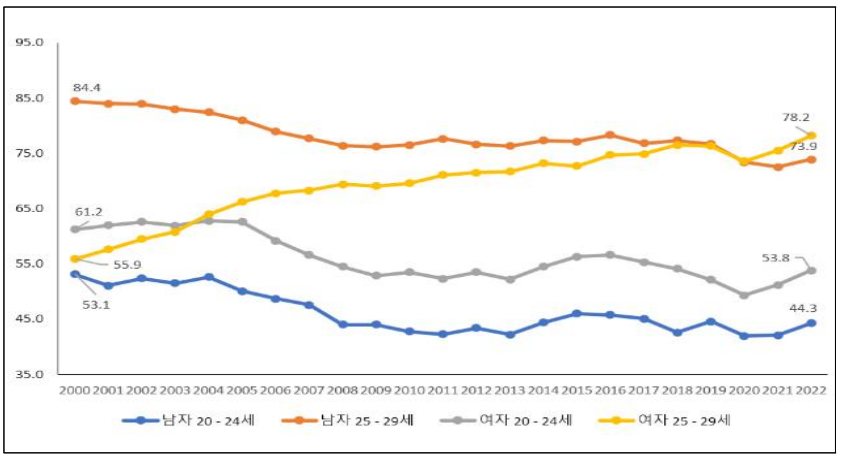
고학력화는 최종 학교 졸업시기를 늦추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도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첫 입사 연령은 2004년 22.5세에서 2016년 23.6세로 증가했는데, 이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약 3.5년이 늦은 것이다(서울경제신문, 2017; 김문길 외, 2017, p.27 재인용). 더욱이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및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는 신규진입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의 규모를 감소시켰다. 이에 따른 취업경쟁 격화는 대학입학 이후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고, 최종 학교 졸업 이후에도 구직, 취업준비 등에 많은 시간을 투여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나타난다(국무조정실, 2022).

그 결과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변화했다. 2000년부터 2022년 사이 20~24세 경활률은 남성이 61.2%에서 53.8%로 감소했고, 여성은 53.1%에서 44.3%로 감소했다. 남성은 25~29세 경활률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84.4%에서 73.9%로 10.5%p가 감소했다. 그러나 남성과 달리 25~29세 여성의 경활률은 오히려 22.3%p나 증가하여 2000년 55.9%에 불과했던 것이 2022년에는 78.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활률의 변화 추이는 교육기간 연장이 노동시장 진입시기 및 가족형성 시기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을 보여준다.

〔그림 2-1〕 남성과 여성의 20대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추이(2000~202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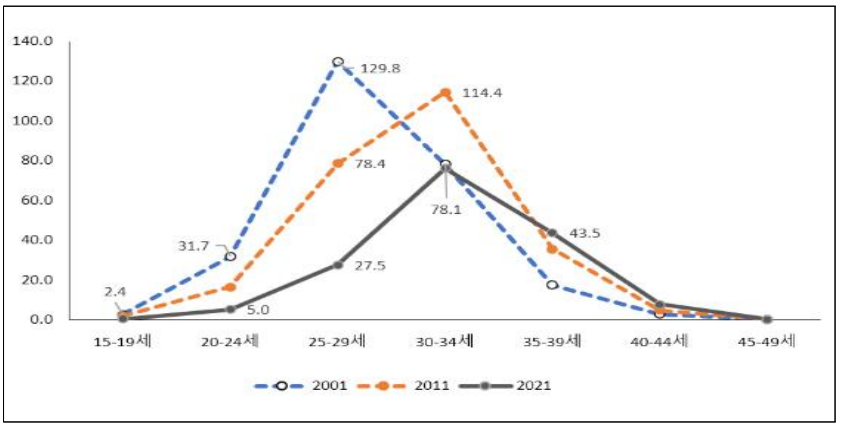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

## 2. 20대의 출산

교육과 고용 측면의 변화가 20대의 노동 생애과정에서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결혼과 출산의 변화는 가족 생애과정에서의 변화를 보여준다. 2001년에서 2021년 사이 여성의 20대 출산아 수는 크게 감소했다([그림 2-2] 참조). 20~24세 여성 천명 당 출산아 수는 31.7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25~29세 여성 천명 당 출산아 수는 129.8명에서 27.5명으로 더욱 크게 줄어들었다. 2001년에는 25~29세가 여성의 집중적인 출산 시점이었으나, 2021년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림 2-2〕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2001, 2011, 2021)

(단위: 해당 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명)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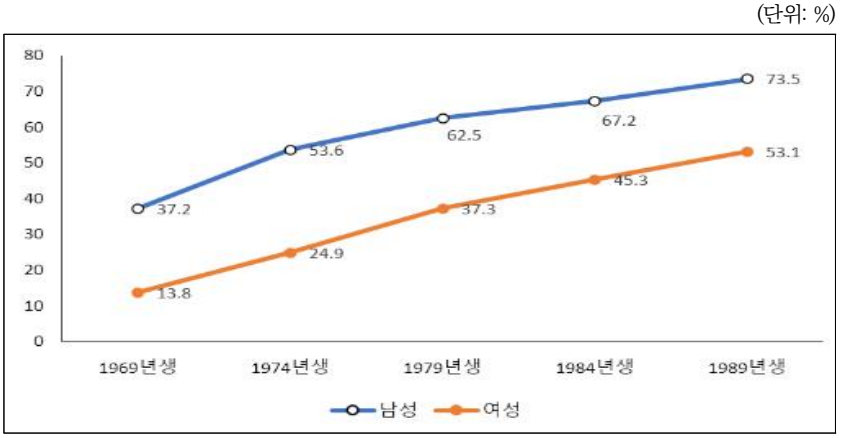
## 3. 20대의 가족형성과 교육수준별 결혼이행패턴

'20대' 생애과정에서 고용의 변화와 출산의 변화 사이를 매개해주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 고용은 결혼에 영향을 미치고, 결혼은 다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순서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자료를 이용하여 1969년생, 1974년생, 1979년생, 1984년생, 1989년생의 5세 격차를 갖는 5개 출생코호트의 성별 결혼이행패턴(연령별 미혼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교육수준별 결혼이행패턴의 차이에 주목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초혼연령자료를 이용하여 개인-기간 형태의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였다. 연령별 미혼율은 카플란-마이어 생존분석(Kaplan-Meier survival analysis)을 통해 미혼 생존함수를 추정하고 이 생존함수에서 추정된 과거연령별(과거별) 생존율(survival rates)을 연령별 미혼율로 간주한다.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초혼이 '20대' 안에 이루어지는 비율은 크게 감소했다. [그림 2-3]은 5개 출생코호트의 30세 시점 미혼율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1969년생 남성은 37.2%가 30세 시점에 미혼으로 남아 있었으나, 1979년생 남성의 미혼율은 62.5%로 늘어났으며, 1989년생은 73.5%로 상승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미혼율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지만, 남성과 거의 유사한 속도로 30세 미혼율이 증가해왔다. 1969년생 여성은 단지 13.8%만이 30세까지 미혼으로 남아있었던 반면, 1989년생 여성은 53.1%가 30세 시점에 미혼 상태를 유지했다. 남성은 이미 1974년생부터 30세 시점 미혼율이 50%를 넘기 시작했으며, 여성은 가장 최근 출생코호트인 1989년생부터 50%를 넘기 시작했다. 1969년생 이래로 결혼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지만, 여성들은 최근(1984년생)까지도 절반 이상이 30세 전에 초혼으로 이행했으며, 30세 미혼율이 50%를 넘은 것은 1984년생과 1989년생 사이, 즉 198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부터이다.

[그림 2-3] 출생코호트별 30세 시점 미혼율

(단위: %)




주: 카플란-마이어 생존함수를 통해 계산함.
자료: 통계청. (2022),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RAS)

평균적인 수준에서 교육기간의 연장, 노동시장 진입의 지연이 결혼과 출산의 지연을 초래한 생애과정적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강조하듯이, 졸업, 취업, 가족형성 시점의 지연이라는 평균적 추세는 과거에 비해 개인 간 이질성이 커졌을 가능성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한다.

이미 살펴봤듯이, 성별(젠더)은 이러한 이질성을 초래한 대표적인 요인이다. 지난 세기 여성의 20대는 결혼과 출산을 중심으로 짜여진 시기였다. 상위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10대 후반부터 노동시장에 나와 소득활동에 참여했지만 20대 초·중반 결혼과 동시에 노동시장을 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최선영, 장경섭, 2004). 앞서 2000년 25~29세 여성의 경활률이 55.9%에 불과했던 것은 이러한 여성생애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기간의 연장과 노동시장 진입시기의 지연'은 남녀 모두의 20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적·사회적 수준에서 '20대 청년기 변화'의 의미는 젠더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아울러, 젠더 집단 내부에서의 이질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대학교육과 구직·취업준비에 소요되는 평균적 시간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청년들이 더 많은 교육투자에 대한 요구를 따를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 진학, 취업 준비 등에도 사적인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며,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는 시간 동안 의존할 부양수단도 필요하다. 즉 20대 동안의 고등교육과 노동시장 이탈은 계층화된 현상이다. 이하에서는 성별과 교육수준을 교차하여 구성한 각 집단의 결혼이행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우해봉, 2012; 오지혜, 임정재, 2016)에서는 교육수준별 초혼이행패턴에서 남성은 30세 전까지 저학력자가 더 빨리 결혼하지만 그 이후로 고학력자가 더 빨리 결혼하는 역전현상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역

전 현상은 남성에 국한된 것으로서, 여성들의 초혼이행에서는 20대 초반부터 30대까지 저학력자의 초혼이행률이 일관되게 고학력자보다 높게 나타난다(우해봉, 2012). 물론 최근 출생코호트에서 고졸 이하의 비중이 줄어들고,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등 고학력 비중과 차이가 커짐에 따라, 일관된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가장 학력이 낮은 계층의 결혼이행이 가장 빠르고 일반적이라는 주장은 최근까지 유지되었다(오지혜, 임정재, 2016).

〈표 2-2〉는 성별과 교육수준을 교차시킨 세부집단의 생애연령별 미혼율 추정치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남성의 연령별 교육수준별 미혼율 패턴을 보면,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학력자는 20대의 결혼이행이 상대적으로 빠르지만 30대가 되면 고학력자보다 결혼이행이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30대에는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미혼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 낮은 역전현상이 나타난다. 다만 1974년생 이후로는 이 역전 시점이 25-29세 구간에서 30-34세 구간으로 늦춰졌다.

여성의 교육수준별 초혼이행패턴에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관찰된다. 1969년생부터 1974년생까지의 2개 코호트에서는 저학력 여성이 고학력 여성에 비해 일찍 결혼하는 패턴이 지속되며 기존 연구에서 보여준대로 역전현상 없이 30대와 40대까지 저학력 여성의 결혼이행이 상대적으로 더 빠른 패턴이 관찰된다. 그런데 1979년 출생 여성부터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20세, 25세, 30세 시점에서는 고졸 이하와 초대졸 여성의 결혼이행이 상대적으로 더 빨랐는데, 이러한 특징은 모든 출생코호트의 일관된 특징이다. 그러나 35세 시점의 미혼율이 전체 평균 20.7%에 달하는 1979년생 여성의 경우, 고졸 이하의 미혼율은 20.9%이고 대졸은 21.7%로서 차이가 크게 좁혀졌으며(1974년생의 경우 고졸 13.6%, 대졸

17.2%), 1984년생의 경우에는 30세 미혼율이 고졸 26.6%, 대졸 26.8%로 사실상 거의 같아졌다. 35세 시점의 미혼율을 보면, U자형 그림이 나타나는데, 초대졸의 미혼율이 가장 낮고, 석사 이상의 미혼율이 가장 높으며, 고졸 이하와 대졸의 미혼율 수준이 유사하다.

이러한 사실은 첫째, 1980년대 출생코호트부터는 20대 동안의 결혼 지연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확산되어 있으며, 둘째, 여성의 결혼 지연이 단지 고학력자에게 제한된 현상이 아니라 저학력자로도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 성·교육수준별 미혼율: 1969, 1974, 1979, 1984, 1989년 출생코호트

| | | | 20세 | 25세 | 30세 | 35세 | 40세 | 45세 | 50세 |
|---|---|---|---|---|---|---|---|---|---|
| 남성 | 1969년생 | 고졸 이하 | 0.971 | 0.760 | 0.400 | 0.281 | 0.228 | 0.201 | 0.188 |
| | | 초대졸 | 0.988 | 0.826 | 0.341 | 0.195 | 0.144 | 0.122 | 0.112 |
| | | 대졸 | 0.993 | 0.883 | 0.346 | 0.170 | 0.123 | 0.103 | 0.096 |
| | | 석사 이상 | 0.997 | 0.871 | 0.328 | 0.122 | 0.078 | 0.058 | 0.049 |
| | | 전체 | **0.981** | **0.811** | **0.372** | **0.227** | **0.176** | **0.153** | **0.142** |
| | 1974년생 | 고졸 이하 | 0.975 | 0.800 | 0.546 | 0.402 | 0.330 | 0.294 | |
| | | 초대졸 | 0.995 | 0.885 | 0.511 | 0.309 | 0.227 | 0.197 | |
| | | 대졸 | 0.995 | 0.929 | 0.547 | 0.286 | 0.196 | 0.166 | |
| | | 석사 이상 | 0.997 | 0.936 | 0.489 | 0.201 | 0.110 | 0.082 | |
| | | 전체 | **0.986** | **0.865** | **0.536** | **0.334** | **0.253** | **0.221** | |
| | 1979년생 | 고졸 이하 | 0.976 | 0.877 | 0.642 | 0.473 | 0.386 | | |
| | | 초대졸 | 0.994 | 0.928 | 0.586 | 0.357 | 0.272 | | |
| | | 대졸 | 0.995 | 0.960 | 0.635 | 0.322 | 0.227 | | |
| | | 석사 이상 | 0.997 | 0.963 | 0.594 | 0.236 | 0.134 | | |
| | | 전체 | **0.988** | **0.924** | **0.625** | **0.377** | **0.286** | | |
| | 1984년생 | 고졸 이하 | 0.983 | 0.900 | 0.689 | 0.504 | | | |
| | | 초대졸 | 0.995 | 0.941 | 0.639 | 0.415 | | | |
| | | 대졸 | 0.997 | 0.972 | 0.677 | 0.379 | | | |
| | | 석사 이상 | 0.998 | 0.968 | 0.644 | 0.280 | | | |
| | | 전체 | **0.992** | **0.943** | **0.672** | **0.420** | | | |
| | 1989년생 | 고졸 이하 | 0.985 | 0.906 | 0.717 | | | | |
| | | 초대졸 | 0.997 | 0.943 | 0.711 | | | | |
| | | 대졸 | 0.998 | 0.977 | 0.760 | | | | |
| | | 석사 이상 | 0.997 | 0.972 | 0.707 | | | | |
| | | 전체 | **0.993** | **0.948** | **0.735** | | | | |

| | | | 20세 | 25세 | 30세 | 35세 | 40세 | 45세 | 50세 |
|---|---|---|---|---|---|---|---|---|---|
| 여성 | 1969년생 | 고졸 이하 | 0.870 | 0.332 | 0.114 | 0.073 | 0.058 | 0.052 | 0.048 |
| | | 초대졸 | 0.965 | 0.494 | 0.147 | 0.081 | 0.061 | 0.055 | 0.053 |
| | | 대졸 | 0.977 | 0.561 | 0.173 | 0.107 | 0.087 | 0.082 | 0.078 |
| | | 석사 이상 | 0.990 | 0.675 | 0.272 | 0.186 | 0.157 | 0.147 | 0.144 |
| | | 전체 | **0.911** | **0.418** | **0.138** | **0.087** | **0.069** | **0.063** | **0.060** |
| | 1974년생 | 고졸 이하 | 0.896 | 0.445 | 0.208 | 0.136 | 0.107 | 0.095 | |
| | | 초대졸 | 0.978 | 0.633 | 0.243 | 0.137 | 0.108 | 0.096 | |
| | | 대졸 | 0.985 | 0.711 | 0.296 | 0.172 | 0.134 | 0.122 | |
| | | 석사 이상 | 0.993 | 0.810 | 0.402 | 0.257 | 0.203 | 0.185 | |
| | | 전체 | **0.940** | **0.571** | **0.249** | **0.153** | **0.120** | **0.107** | |
| | 1979년생 | 고졸 이하 | 0.908 | 0.634 | 0.337 | 0.209 | 0.161 | | |
| | | 초대졸 | 0.983 | 0.769 | 0.333 | 0.173 | 0.132 | | |
| | | 대졸 | 0.989 | 0.851 | 0.413 | 0.217 | 0.163 | | |
| | | 석사 이상 | 0.992 | 0.903 | 0.492 | 0.271 | 0.207 | | |
| | | 전체 | **0.959** | **0.759** | **0.373** | **0.207** | **0.158** | | |
| | 1984년생 | 고졸 이하 | 0.930 | 0.713 | 0.420 | 0.266 | | | |
| | | 초대졸 | 0.986 | 0.834 | 0.412 | 0.230 | | | |
| | | 대졸 | 0.993 | 0.913 | 0.482 | 0.263 | | | |
| | | 석사 이상 | 0.997 | 0.946 | 0.539 | 0.283 | | | |
| | | 전체 | **0.974** | **0.841** | **0.453** | **0.258** | | | |
| | 1989년생 | 고졸 이하 | 0.908 | 0.713 | 0.454 | | | | |
| | | 초대졸 | 0.989 | 0.847 | 0.495 | | | | |
| | | 대졸 | 0.995 | 0.927 | 0.573 | | | | |
| | | 석사 이상 | 0.997 | 0.943 | 0.608 | | | | |
| | | 전체 | **0.974** | **0.862** | **0.531** | | | | |

주: 1) 카플란-마이어 생존함수를 통해 계산함.
2) 미혼율의 전체평균보다 높은 경우 음영으로 표시함.
자료: 통계청. (2022),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RAS)

## 제2절 학교-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변화

### 1. 취업률 변화 추세

이 절에서는 '20대'를 19~29세로 정의하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노동시장 내에서의 취업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20대'의 교육-노

동경험을 분석한다. 1971년부터 199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대상으로 19~29세의 취업경험을 관찰하고, 이러한 경험의 특성(취업이행궤적)과 30세 시점 결혼 여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일단 취업한 사람은 은퇴 전까지 취업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취업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와 그 시점을 관찰하는 '이행률' 측정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20대의 노동시장 진입 방식에는 전통적인 진입형태와 더불어, 취업과 비취업이 반복되는 불안정취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시장 진입 후 취업상태를 얼마간 지속하다가 퇴장하는 '여성적' 유형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취업유형을 드러내기 위해 취업궤적을 측정하고 유형화하고자 한다.

우선 취업궤적을 유형화하기에 앞서, 연령별 취업률을 집계한 결과를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표 2-3〉 참조). 1971~1990년 출생자 전체의 집계 결과, 남성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취업률이 상승하는 패턴이고 여성은 25세까지 증가한 후 하락하는 패턴이다.

〈표 2-3〉 1971~1990년 출생자의 연령별 취업률

(단위: %, 명)

| | 여성 | | | | | | 남성 | | | | | |
|---|---|---|---|---|---|---|---|---|---|---|---|---|
| | 19세 | 21세 | 23세 | 25세 | 27세 | 29세 | 19세 | 21세 | 23세 | 25세 | 27세 | 29세 |
| 0. 미취업 | 80.5 | 68.4 | 54.2 | 49.9 | 50.8 | 53.5 | 91.7 | 90.3 | 74.7 | 58.1 | 36.8 | 24.6 |
| 1. 취업 | 19.5 | 31.6 | 45.8 | 50.1 | 49.2 | 46.5 | 8.3 | 9.7 | 25.3 | 41.9 | 63.2 | 75.4 |
| 계 | 100.0 (N=4,506) | | | | | | 100.0 (N=4,538)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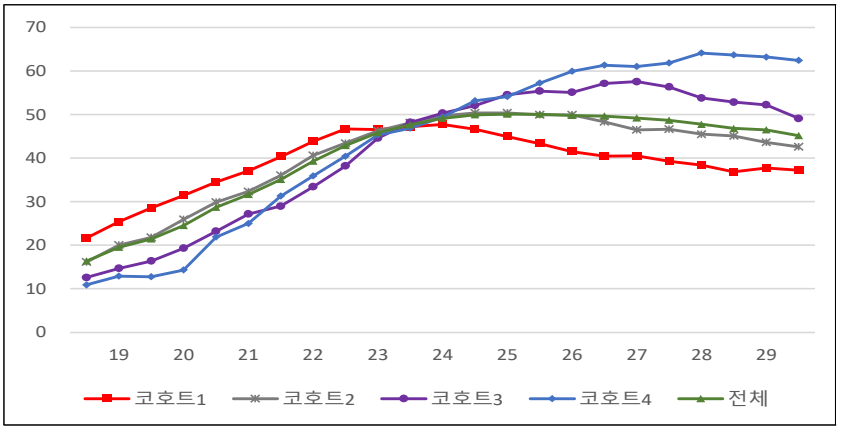
주: 해당 연령 6월 기준
자료: 한국노동패널 1~23차 및 직업력 원자료.

출생코호트를 5세 간격으로 묶어 4개 코호트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여성의 경우([그림 2-4], 〈표 2-4〉), 20대 초반은 대체로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취업률이 감소하는 반면 20대 중반에 취업률이 역전되어 20대

후반으로 갈수록 최근 코호트 여성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20대 초반의 취업점유율 감소가 대학진학률의 증가에 따른 재학기간의 연장 및 실업과 구직기간의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면, 20대 후반의 취업점유율 증가는 취업률과 취업지속성의 향상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대 후반의 취업점유율 증가는 20대 후반에 집중되었던 혼인과 출산의 감소와의 관련성도 클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4] 출생코호트별 19~29세 여성 취업률

(단위: %)




주: 코호트 1은 1971~1975년생, 코호트 2는 1976~1980년생, 코호트 3은 1981~1985년생, 코호트 4는 1986~1990년생임.
자료: 한국노동패널 1~23차 및 직업력 원자료.

〈표 2-4〉 출생코호트별 여성의 연령구간별 취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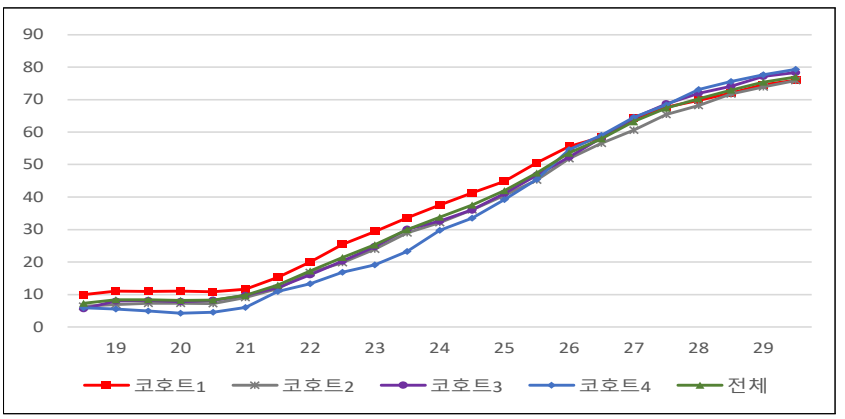
| | 19-23세 | 24-26세 | 27-29세 | 전체 |
|---|---|---|---|---|
| 전체 | 31.9 | 49.5 | 47.7 | 41.0 |
| 1971~1975년생 | 36.9 | 44.6 | 38.6 | 39.4 |
| 1976~1980년생 | 32.6 | 49.7 | 45.5 | 40.8 |
| 1981~1985년생 | 27.4 | 53.1 | 54.3 | 41.8 |
| 1986~1990년생 | 26.6 | 54.6 | 62.8 | 44.1 |

자료: 한국노동패널 1~23차 및 직업력 원자료.

남성의 20대 취업률 패턴에서는 1971~1975년생과 1986~1990년생 사이에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그림 2-5], 〈표 2-5〉). 그래프가 거의 겹쳐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대 남성의 취업률 집계결과에서는 출생코호트간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0대 중반까지는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취업률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20대 후반 취업률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약간 증가하였다.

[그림 2-5] 출생코호트별 19~29세 남성 취업률

(단위: %)




주: 코호트 1은 1971~1975년생, 코호트 2는 1976~1980년생, 코호트 3은 1981~1985년생, 코호트 4는 1986~1990년생임.
자료: 한국노동패널 1~23차 및 직업력 원자료.

〈표 2-5〉 출생코호트별 남성의 연령구간별 취업률

(단위: %)

| | 19~23세 | 24~26세 | 27~29세 | 전체 |
|---|---|---|---|---|
| 전체 | 13.7 | 42.6 | 69.2 | 36.7 |
| 1971~1975년생 | 16.5 | 45.6 | 68.9 | 38.8 |
| 1976~1980년생 | 12.6 | 41.0 | 67.5 | 35.3 |
| 1981~1985년생 | 13.0 | 41.5 | 70.4 | 36.4 |
| 1986~1990년생 | 10.0 | 40.1 | 71.4 | 34.9 |

자료: 한국노동패널 1~23차 및 직업력 원자료.

## 2. 여성의 학교-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변화

1971~1990년생 출생자를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집단중심궤적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의 시간별(19세에서 29세까지 132개월) 취업여부로 이루어진 궤적을 통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다. 집단 간 BIC 값의 차이의 자연로그값이 6 이상이면서 각 집단에 포함되는 사례수가 5% 이상인 경우, 그리고 평균사후확률 등을 기준으로 집단을 도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여성 12개, 남성 10개 집단으로 도출되었다(〈표 2-6〉). 여성 13개 집단과 남성 11개 집단은 2개 집단에 할당되는 표본이 5% 미만으로 나타나 적합하지 않았다. 도출된 여성 12개 집단과 남성 10개 집단은 평균사후확률과 할당정확도 오즈값 모두 높은 수준이었고, 개인이 각 궤적 집단에 속할 확률 추정치와 실제 각 집단이 차지하는 비중 간 차이도 매우 적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2-7〉, 〈표 2-8〉 참조).

〈표 2-6〉 1971~1990년생 취업 이행 궤적 분석 최적 유형의 수 추정을 위한 모형적합도(BIC)

| 모형 | 여성 | | 남성 | |
|---|---|---|---|---|
| | BIC | ln(△BIC) | BIC | ln(△BIC) |
| 1집단 | -388217.29 | | -312749.26 | |
| 2집단 | -285247.12 | 11.54 | -220371.92 | 11.43 |
| 3집단 | -243848.49 | 10.63 | -179498.52 | 10.62 |
| 4집단 | -213091.65 | 10.33 | -162183.05 | 9.76 |
| 5집단 | -197148.55 | 9.68 | -152209.09 | 9.21 |
| 6집단 | -184425.31 | 9.45 | -140352.31 | 9.38 |
| 7집단 | -177913.05 | 8.78 | -134372.85 | 8.70 |
| 8집단 | -173722.82 | 8.34 | -129935.29 | 8.40 |
| 9집단 | -165811.56 | 8.98 | -125866.37 | 8.31 |
| 10집단 | -160186.12 | 8.64 | **-122190.98** | 8.21 |
| 11집단 | -155638.77 | 8.42 | -119183.75 | 8.01 |
| 12집단 | **-153270.66** | **7.77** | | |
| 13집단 | -150077.69 | 8.07 | | |

〈표 2-7〉 1971~1990년생 여성 취업 이행 궤적 산출 모형의 각 집단에 대한 모형적합도

| 구분 | 평균사후확률 (%) | 할당정확도의 odds | 유형에의 할당 | |
|---|---|---|---|---|
| | | | 추정 | 표본 |
| 1집단 | 98.59 | 754.75 | 8.5 | 8.5 |
| 2집단 | 98.55 | 935.40 | 6.7 | 6.8 |
| 3집단 | 98.78 | 601.85 | 11.8 | 11.9 |
| 4집단 | 99.88 | 2728.36 | 23.0 | 23.0 |
| 5집단 | 98.56 | 1215.04 | 5.3 | 5.3 |
| 6집단 | 99.21 | 1778.15 | 6.6 | 6.6 |
| 7집단 | 99.48 | 2134.95 | 8.3 | 8.2 |
| 8집단 | 98.46 | 827.03 | 7.2 | 7.2 |
| 9집단 | 99.35 | 2324.21 | 6.2 | 6.2 |
| 10집단 | 98.93 | 1412.07 | 6.2 | 6.2 |
| 11집단 | 99.23 | 2362.22 | 5.2 | 5.2 |
| 12집단 | 97.69 | 797.12 | 5.0 | 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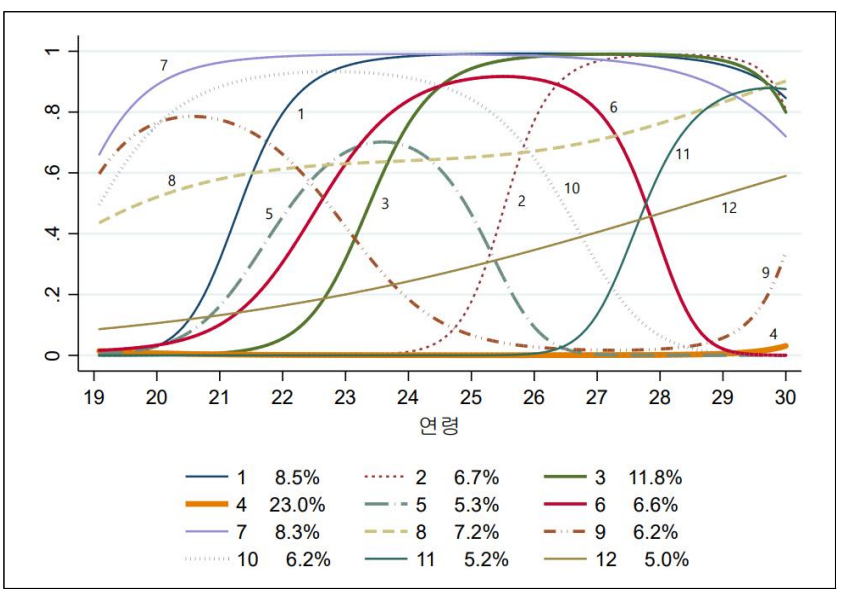
〈표 2-8〉 1971~1990년생 남성 취업 이행 궤적 산출 모형의 각 집단에 대한 모형적합도

| 구분 | 평균사후확률 (%) | 할당정확도의 odds | 유형에의 할당 | |
|---|---|---|---|---|
| | | | 추정 | 표본 |
| 1집단 | 98.66 | 686.56 | 9.9 | 9.7 |
| 2집단 | 98.34 | 385.94 | 13.3 | 13.3 |
| 3집단 | 98.35 | 498.38 | 10.6 | 10.7 |
| 4집단 | 99.87 | 3679.77 | 17.8 | 17.7 |
| 5집단 | 99.18 | 1921.24 | 5.9 | 5.9 |
| 6집단 | 95.66 | 226.89 | 8.6 | 8.9 |
| 7집단 | 98.56 | 904.52 | 7.2 | 7.1 |
| 8집단 | 98.82 | 934.38 | 8.3 | 8.3 |
| 9집단 | 99.56 | 3456.38 | 6.1 | 6.1 |
| 10집단 | 97.75 | 307.02 | 12.3 | 12.4 |

12개로 유형화된 1971~1990년 출생 여성의 취업이행 궤적은 다음 [그림 2-6]과 같이 나타났다. 그래프의 가장 아래에 거의 직선 모양으로 놓여 있는 것은 비취업(0으로 코딩) 상태가 19세에서 29세 사이 지속된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그래프의 가장 상단에 거의 직선 모양으로 놓여 있는 것은 취업(1로 코딩) 상태가 관측기간 동안 계속해서 유지된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곡선들의 모양은 취업 지속 정도와 취업시작 시기, 취업 정도 그리고 비취업 전환시기와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취업지속성 측면에서는 1, 2, 3, 7번이 취업지속유형으로 특징지어지고, 5, 6, 9, 10번 유형은 29세 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취업중단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8, 11, 12번은 불안정통합형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8, 12번은 연령증가에 따라 취업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지만 취업과 비취업이 섞여 있는 유형이며, 11번 유형은 가장 늦은 20대 후반에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유형이다. 이러한 8, 11, 12번은 노동시장에 완전히 통합되지도 않았지만 완전히 이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통합형으로 간주한다.

〔그림 2-6〕 1971~1990년 출생 여성의 취업 이행궤적: 집단중심추세분석 추정결과



마지막으로 4번 유형은 취업경력이 거의 없는 비취업유형이다. 취업시작시기를 고려하면, 취업지속유형에 속한 4개 유형은 입직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7, 1, 3, 2번의 순서로 배열할 수 있으며, 취업중단형은 9, 10, 5, 6번의 순서로 배열된다.

〈표 2-9〉는 여성의 취업궤적 유형별 교육수준, 노동시장 위치(정규직 여부, 직업, 직장이동 횟수 등), 가족배경(부모 학력 및 14세 무렵 가정형편), 결혼여부 등 특성을 기술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유형 1번부터 12번까지 순서대로 그 특징을 기술한다. 먼저 1번 유형(전체의 8.5%)은 19~20세 동안에는 미취업상태(학업)에 있다가 22세 이후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29세까지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유형으로 취업상태가 19~29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직업은 전문직, 준전문직, 사무/기술직의 비율이 높으며, 대부분 정규직이다. 29세까지의 평균 일자리는 2.05개로 한 번 정도의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유형은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22세 즈음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59.0%가 전문대졸이다.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안정된 취업이력을 보여준 1번 유형은 부모의 교육수준 역시 중간 수준을 보여준다.

2번 유형은 1번 유형의 대졸자 판본이다. 2번 유형은 미취업률이 23세에는 100%였으나 26세에는 1.0%로 감소한다. 이 사이에 99%가 빠르게 취업으로 이행한 것이다. 이후 29세에는 미취업률이 12.1%로 증가하지만 나머지 11개 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번 유형과 비교하여 판매서비스직 비율은 낮고 전문직 비율이 높다. 정규직의 비율 역시 1번 유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다. 2번 유형의 71.8%가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이며, 아버지의 학력이 대학이상이 24.9%, 어머니의 학력 대학이상이 8.7%로 모두 평균적인 부모 학력수준 보다 높게 나타난다.

3번 유형도 대졸 이상의 비율이 72.1%를 차지하는 대졸자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그러나 2번보다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노동시장 지위는 2번 유형과 유사하다. 전문가와 사무/기술직의 비율이 높고 정규직 비율도 높으며, 29세까지의 평균 일자리 개수는 1.96개로 안정적인 편이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평균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2번 유형보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학 이상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

4번 유형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한다. 이 유형은 19세 이후 29세까지 취업상태의 점유율이 0.4%로 측정되어, 사실상 노동시장 경력이 없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고졸자가 40.1%로 평균보다 고졸자 비율이 높지만, 그렇다고 저학력자의 전형적 유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대졸 학력이 22.6%, 대졸 이상이 37.4%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비취업유형은 23세와 26세 시점의 미혼율이 평균보다 낮지만 29세 시점의 미혼율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취업 경험 없이 결혼하여 비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전통적' 여성생애와 졸업 이후 구직과 취업준비, 학업지속 등이 장기화되어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최근의' 여성생애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계층적 배경은 2번이나 3번보다는 낮지만 평균 수준이다.

5번 유형은 21세부터 취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23세 시점에 67.5%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점차 하락하여 26세 시점에는 0.4%, 29세 시점에는 0%로 전환되는 유형이다. 초대졸 학력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45.0%를 차지한다.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은 결혼과 관련되어 있다. 26세 미혼율이 23.8%, 29세 시점 미혼율이 13.3%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3세 시점 직종과 비정규직 비율에서 1번 유형과의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짧은 취업기간에 비해 평균 일자리 개수가 1.79개로 집계되었다. 이 유형의 계층적 배경은 평균적인 수준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

타난다.

6번 유형도 5번 유형과 마찬가지로 20대 후반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중단형에 속하지만 퇴장시기가 상대적으로 늦다. 이들도 취업기간이 짧은 데 비해 평균 일자리갯수가 2.02로 비교적 많게 나타난다. 고졸 이하의 비율은 비교적 낮고(16.4%), 초대졸과 대졸의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23세와 26세 시점 비정규직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들의 노동시장 이탈은 결혼과 관련되어 있지만(29세 시점 미혼율 18.5%) 노동시장 이탈 이전에 점유하던 일자리의 안정성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계층적 배경은 평균과 유사하거나 약간 높다.

7번 유형은 19세부터 29세까지 계속해서 일했던 여성들의 유형이다. 전체 기간의 93.8%가 취업상태였다. 예상할 수 있듯이 고졸 이하 학력의 여성이 전체의 57.7%를 차지한다. 그러나 초대졸 29.1%, 대졸 13.2%도 7번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 즉 학업과 일을 병행했던 여성들도 7번 유형에 포함되어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학력에서 고졸미만이 각각 64.0%, 76.4%를 차지하고, 14세 무렵 경제적 형편이 평균 미만이었다는 응답의 비율도 35.2%로 높은 수준이다. 일자리의 개수는 2.24개로 나타났다. 23세, 26세, 29세로 갈수록 미혼율은 낮아졌지만, 모든 시점에서 평균보다 미혼율이 높게 나타났다.

8번 유형은 19세에서 29세로 갈수록 취업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유형이다. [그림 2-6]에서는 중앙에서 우상향하는 직선 모양을 띠고 있다. 8번 유형은 저학력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보다 약간 높으며, 일자리 개수는 가장 많은 3.93개로 나타나, 노동이력이 불안정한 유형임을 보여준다. 8번 유형도 23세, 26세, 29세로 갈수록 미혼율이 낮아졌지만, 26세 시점부터 평균보다 미혼율이 높게 나타났다. 계층적 배경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9번 유형은 고졸 이하 비율(73.4%)이 압도적으로 높은 유형이다. 19세와 20세의 취업률은 7번 유형 다음으로 높지만 20세 이후 계속 하락하여 20대 중반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20대 후반에 다시 취업률이 상승하여 29세에 18.7%를 나타낸다. 23세 시점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26.4%로 비취업유형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았으며, 29세 시점의 비정규직 비율은 39.0%로 다른 11개 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높았다. 23세, 26세, 29세 시점의 기혼비율은 각각 48.2%, 75.9%, 82.4%로 나타났다. 부모의 계층 수준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10번 유형도 저학력자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고졸의 비율(66.2%)이 높고 대졸의 비율은 매우 낮다(6.5%). 취업이력의 특징은 9번과 유사하게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취업률이 높고 이후 하락하는 유형을 보이지만, 9번보다 취업률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았고 취업기간도 길었다. 전체 관측기간 중 취업상태가 차지하는 비율도 59.2%로 나타난다. 23세 시점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9번 유형보다 낮은 10.5%이다. 23세 시점, 26세 시점, 29세 시점의 기혼 비율은 각각 9.7%, 65.8%, 89.9%로 나타나서 9번 유형에 비해 26세 시점의 기혼율은 낮았지만 29세 시점에는 더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12번 유형은 앞의 8번 유형과 유사하게 19세에서 29세까지 취업률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8번 유형과 비교하여 대졸자의 비율(50.2%)이 높다. 29세에 취업률이 56.8%까지 상승하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부모의 학력수준은 약간 높은 편이고 14세 무렵 경제적 상황은 양 극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계층적 지위가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 2-9〉 1971~1990년생 여성의 취업이행유형별 주요 특성

(단위: %, 회)

| 구분 | | 여성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전체 |
| 유형 분포 | | 8.5 | 6.8 | 11.9 | 23.0 | 5.3 | 6.6 | 8.2 | 7.2 | 6.2 | 6.2 | 5.2 | 5.0 | 100.0 |
| 취업 점유율 | 19-29세 | 77.1 | 39.9 | 59.0 | 0.4 | 23.4 | 44.7 | 93.8 | 66.4 | 31.1 | 59.2 | 18.8 | 29.5 | 41.0 |
| | 23세 | 99.0 | 0.0 | 75.5 | 0.2 | 67.5 | 82.2 | 98.4 | 61.3 | 21.9 | 93.2 | 0.0 | 28.6 | 47.5 |
| | 26세 | 98.7 | 99.0 | 97.4 | 0.1 | 0.4 | 72.8 | 97.3 | 75.2 | 2.5 | 29.9 | 19.7 | 37.9 | 49.8 |
| | 29세 | 84.3 | 87.9 | 86.0 | 4.1 | 0.0 | 2.0 | 76.0 | 82.0 | 18.7 | 4.0 | 85.0 | 56.8 | 45.2 |
| 교육 수준 | 고졸 이하 | 15.4 | 12.1 | 7.7 | 40.1 | 26.3 | 16.4 | 57.7 | 36.8 | 73.4 | 66.2 | 24.5 | 22.0 | 33.1 |
| | 초대졸 | 59.0 | 16.1 | 20.2 | 22.6 | 45.0 | 35.9 | 29.1 | 39.6 | 17.6 | 27.3 | 15.9 | 27.8 | 28.7 |
| | 대졸 이상 | 25.6 | 71.8 | 72.1 | 37.4 | 28.8 | 47.7 | 13.2 | 23.5 | 9.0 | 6.5 | 59.7 | 50.2 | 38.2 |
| 23세 직종 | 전문가 | 26.2 | - | 36.5 | 100.0 | 16.3 | 25.8 | 7.8 | 16.9 | 6.9 | 7.9 | - | 33.9 | 20.9 |
| | 준전문·사무·기술직 | 54.2 | - | 52.0 | - | 63.1 | 56.2 | 71.5 | 59.5 | 67.2 | 73.5 | - | 47.7 | 60.6 |
| | 판매서비스·비숙련 | 15.9 | - | 6.5 | - | 16.3 | 13.5 | 16.1 | 19.5 | 17.2 | 16.6 | - | 12.3 | 14.2 |
| | 비임금 | 3.7 | - | 5.0 | - | 4.4 | 4.5 | 4.7 | 4.1 | 8.6 | 2.0 | - | 6.2 | 4.3 |
| 23세 정규직 여부 | 정규직 | 88.7 | - | 86.1 | - | 87.6 | 81.1 | 89.8 | 81.8 | 73.6 | 89.5 | - | 68.9 | 85.9 |
| | 비정규직 | 11.3 | - | 13.9 | 100.0 | 12.4 | 18.9 | 10.2 | 18.2 | 26.4 | 10.5 | - | 31.2 | 14.1 |
| 26세 직종 | 전문가 | 27.6 | 37.5 | 35.5 | 100.0 | - | 23.3 | 8.1 | 25.6 | - | 3.8 | 30.4 | 32.1 | 26.3 |
| | 준전문·사무·기술직 | 55.2 | 47.5 | 50.4 | - | 100.0 | 54.9 | 70.2 | 49.6 | 33.3 | 78.8 | 47.8 | 39.3 | 54.9 |
| | 판매서비스·비숙련 | 13.3 | 9.0 | 6.2 | - | - | 14.4 | 15.0 | 15.5 | 50.0 | 13.8 | 13.0 | 14.3 | 11.8 |
| | 비임금 | 4.0 | 6.0 | 7.9 | - | - | 7.4 | 6.7 | 9.2 | 16.7 | 3.8 | 8.7 | 14.3 | 7.0 |
| 26세 정규직 여부 | 정규직 | 90.6 | 84.3 | 88.1 | 100.0 | 100.0 | 76.4 | 90.5 | 82.9 | 60.0 | 85.7 | 66.7 | 70.9 | 85.5 |
| | 비정규직 | 9.4 | 15.7 | 12.0 | - | - | 23.6 | 9.6 | 17.1 | 40.0 | 14.3 | 33.3 | 29.2 | 14.5 |
| 29세 직종 | 전문가 | 28.2 | 36.0 | 37.6 | 19.0 | - | 16.7 | 8.2 | 18.6 | 3.9 | - | 27.3 | 26.4 | 26.1 |
| | 준전문·사무·기술직 | 54.8 | 47.6 | 47.0 | 47.6 | - | 66.7 | 65.5 | 51.1 | 50.0 | 63.6 | 39.9 | 45.8 | 50.9 |
| | 판매서비스·비숙련 | 11.5 | 9.7 | 5.5 | 16.7 | - | 16.7 | 17.4 | 17.0 | 25.0 | 36.4 | 16.2 | 9.3 | 12.4 |
| | 비임금 | 5.6 | 6.7 | 9.9 | 16.7 | - | - | 8.9 | 13.3 | 21.2 | - | 16.7 | 18.6 | 10.7 |
| 29세 정규직 여부 | 정규직 | 90.5 | 89.2 | 87.8 | 68.6 | - | 50.0 | 89.5 | 84.3 | 61.0 | 63.6 | 78.8 | 77.2 | 85.6 |
| | 비정규직 | 9.5 | 10.8 | 12.2 | 31.4 | - | 50.0 | 10.5 | 15.7 | 39.0 | 36.4 | 21.2 | 22.9 | 14.5 |

| 구분 | | 여성 |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전체 |
| 29세까지 평균 일자리 횟수 | | 2.05 | 1.37 | 1.96 | 0.13 | 1.79 | 2.02 | 2.24 | 3.93 | 2.26 | 2.33 | 1.23 | 2.91 | 1.72 |
| 아버지 학력 | 고졸 미만 | 42.5 | 27.6 | 30.5 | 48.8 | 49.2 | 39.7 | 64.0 | 52.7 | 64.9 | 59.5 | 39.5 | 42.4 | 46.4 |
| | 고졸 | 42.8 | 47.5 | 47.5 | 37.7 | 36.6 | 44.3 | 30.0 | 38.7 | 30.6 | 35.8 | 39.9 | 39.7 | 39.4 |
| | 대학 이상 | 14.7 | 24.9 | 22.0 | 13.6 | 14.3 | 16.0 | 6.0 | 8.6 | 4.4 | 4.7 | 20.6 | 17.9 | 14.1 |
| 어머니 학력 | 고졸 미만 | 58.6 | 39.4 | 46.3 | 60.4 | 66.2 | 62.7 | 76.4 | 71.0 | 81.5 | 75.6 | 50.0 | 56.9 | 61.1 |
| | 고졸 | 37.8 | 51.9 | 46.3 | 33.9 | 31.9 | 32.8 | 22.2 | 25.4 | 17.3 | 24.4 | 40.9 | 36.1 | 34.1 |
| | 대학 이상 | 3.7 | 8.7 | 7.4 | 5.8 | 1.9 | 4.4 | 1.4 | 3.6 | 1.2 | - | 9.1 | 6.9 | 4.8 |
| 14세 무렵 경제 형편 | 평균 미만 | 26.1 | 17.4 | 19.5 | 24.4 | 22.4 | 20.5 | 35.2 | 36.7 | 30.2 | 30.4 | 23.3 | 27.0 | 25.7 |
| | 평균 수준 | 62.1 | 63.8 | 64.9 | 61.1 | 63.6 | 64.5 | 55.5 | 52.6 | 61.3 | 61.9 | 60.0 | 52.0 | 60.7 |
| | 평균 초과 | 11.8 | 18.8 | 15.7 | 14.5 | 14.0 | 15.0 | 9.3 | 10.7 | 8.5 | 7.8 | 16.7 | 21.0 | 13.7 |
| 미혼율 | 23세 | 97.7 | 94.8 | 96.3 | 83.8 | 83.3 | 95.3 | 94.9 | 83.6 | 51.8 | 90.3 | 88.8 | 79.7 | 87.3 |
| | 26세 | 81.2 | 85.3 | 82.2 | 59.9 | 23.8 | 65.1 | 74.7 | 66.3 | 24.1 | 34.2 | 78.1 | 59.0 | 63.3 |
| | 29세 | 51.4 | 51.2 | 49.3 | 38.3 | 13.3 | 18.5 | 45.6 | 46.4 | 17.6 | 10.1 | 52.8 | 37.0 | 37.8 |

주: 1) 여성 전체 사례수는 4,506명임.
2) 취업여부, 교육수준, 직종 등에서의 연령은 해당 연령 마지막 월 기준임.
3) 교육수준은 29세 시점의 학력임. 초대졸에는 2~3년제 졸업, 2~3년제 및 4년제 재학, 중퇴, 휴학이 포함됨.
4) 정규직 여부는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정규직에는 상용직(회고자료 아님)과 정규직(회고자료)이 포함되고, 비정규직에는 임시직과 일용직(회고자료 아님), 비정규직(회고자료), 단순노무직(전체)이 포함됨.
5) 아버지 학력은 4,420명(98.1%), 어머니 학력은 4,146명(92.0%), 14세 무렵 경제적 형편은 4,138명(91.8%)이 응답하였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2개 취업궤적유형은 노동시장진입시점과 취업중단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비취업과 취업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중간 이하의 낮은 교육수준과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적 지위와 관련되어 보이며, 19~29세 사이에 취업을 중단하는 것은 노동시장 내 지위의 불안정성 및 혼인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1971~1990년 출생 여성의 12개 취업궤적유형은 출생코호트에 따라 다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2-10〉 참조).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1번, 2번, 3번, 8번, 11번, 12번 유형의 비중은 커지고, 나머지 4번, 5번, 6번, 7번, 9번, 10번 유형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늘어난 유형들은 모두 취업지속성 측면에서 지속형(1번, 2번, 3번)이거나 20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점진적으로 취업이행을 하는 유형(8번, 12번)과 20대 후반에 빠르게 취업이행을 하는 유형(11번)이다. 반면 감소한 유형은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이 모두 관찰되는 중단형(5번, 6번, 9번, 10번)이었다. 마지막으로 19~29세 내내 취업이력이 보고되지 않은 비취업 유형(4번)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10〉 여성의 출생코호트별 취업이행유형 분포

(단위: %)

| 구분 | 여성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전체 |
| 전체 | 8.5 | 6.8 | 11.9 | 23.0 | 5.3 | 6.6 | 8.2 | 7.2 | 6.2 | 6.2 | 5.2 | 5.0 | 100.0 |
| 1971~1975년생 | 5.8 | 4.0 | 8.9 | 25.5 | 7.2 | 6.5 | 9.6 | 6.3 | 9.4 | 8.9 | 3.6 | 4.4 | 100.0 |
| 1976~1980년생 | 9.1 | 5.3 | 10.8 | 25.2 | 5.2 | 6.6 | 8.7 | 7.8 | 6.4 | 5.9 | 4.0 | 4.9 | 100.0 |
| 1981~1985년생 | 9.9 | 8.4 | 15.4 | 22.1 | 3.3 | 7.8 | 7.5 | 5.5 | 3.4 | 4.3 | 7.0 | 5.5 | 100.0 |
| 1986~1990년생 | 11.2 | 13.5 | 15.1 | 14.0 | 4.6 | 5.0 | 5.4 | 10.7 | 2.8 | 3.5 | 8.3 | 6.0 | 100.0 |

주: 취업이행유형 중 7, 1, 3, 2는 취업지속형(진입시점 빠른 순서), 8, 11, 12는 불완전통합형, 5, 6, 9, 10은 취업이탈형, 4는 비취업형임.

출생코호트 간의 차이에는 여성의 고학력화에 따른 효과와 고학력화와 관련 없는 효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표 2-11〉에서는 교육수준별 출생코호트에 따른 취업이행궤적 유형을 관찰하여, 고학력화(교육수준 구성의 변화)에 따른 변화를 통제하고 각 교육수준집단 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1971-1975년 출생자와 1985-1989년 출생자 만을 비교한 것은 〔그림 2-7〕 참조).

먼저 고졸 이하 집단을 보면, 1971-75년 출생자들 중 26.4%가 취업경력이 없는 비취업유형이었으며,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취업을 지속

하거나(7번 13.4%), 노동시장에 참여한 후 퇴장하는 유형(9번, 10번, 각각 17.1%, 14.8%)이었다. 1970년대 초반 출생코호트의 특성은 197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의 특성으로도 이어졌다. 1970년대 출생코호트이며 저학력인 여성들은 노동시장 경력 없거나 중도 이탈하는 유형이 대부분이었으며, 취업을 지속한다면 10대 후반에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졸 여성의 특성은 198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에서 크게 변화했다. 20대 초반과 중반에 입직한 후 20대 후반까지 이탈하지 않고 취업을 지속하는 유형인 1번 유형과 2번 유형의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가장 늦게 진입하는 11번 유형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비취업유형(4번)이나 취업중단형(5, 6, 9, 10)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노동시장에 가장 빨리 진입하는 유형인 7번 유형의 비율은 일관된 특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최근 출생코호트에서 비율이 낮아졌다. 고졸 이하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의 지속성이 커졌고 중도 이탈유형의 비율은 감소했으나, 고교졸업 직후 취업을 시작하는 유형의 비율도 낮아졌다. (결혼으로 인한) 취업 중단은 줄어들었으며, 취업지속유형의 증가와 불안정통합 유형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초대졸 여성들은 고졸 이하 여성들과 취업궤적이 다르게 보이지만, 졸업시점을 감안하여 노동시장 진입시점을 2~3년 뒤로 미루어 보면, 대체로 유사하다. 1971~1975년 초대졸 여성들 사이에서도 취업경력이 없는 4번 유형의 비율은 22.2%로 높았으며, 취업중단유형 중 진입시점이 늦은 5번과 6번 유형의 비율이 높았으며(각각 10.8%, 10.2%), 20대 후반까지 취업을 지속하는 유형인 1번 유형의 비율은 12.2%로 나타났다. 불안정취업유형으로서 8번 유형의 비율도 9.4%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198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로 오면서 변화하였는데, 고졸 이하 여성의 특성과 유사하다. 비취업유형과 취업중단유형이 감소하면서 취업지속유형인 1번 유형의 비율이 19.7%로 늘어났으나, 불안정유형인 8번 유형의

비율도 18.3%로 크게 늘어났다. 고졸 이하 여성과 달리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늦은 11번 유형의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4년제 대졸자의 경우 1970년대 초반 출생코호트의 취업지속형(1, 2, 3, 7번) 비율은 각각 6.0%, 9.1%, 20.7%, 4.6%였다. 대학 졸업 직후 취업한 유형인 3번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다. 198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에서 이 비율은 각각 5.7%, 20.6%, 24.4%, 1.9%로 변화하였다. 1번과 7번과 같이 취업지속형이면서 진입시기가 대학졸업 이전 시기에 해당되는 유형의 비율은 줄어들었으며, '정상적인' 졸업시기에 맞추어진 취업으로 보이는 3번 유형의 비율은 3.7%포인트 늘어난 데 비해, 그보다 늦은 취업유형(2번과 11번)은 9.1%와 6.5%에서 20.6%와 10.5%로 크게 늘어났다.

〈표 2-11〉 여성의 교육수준별 출생코호트별 취업이행유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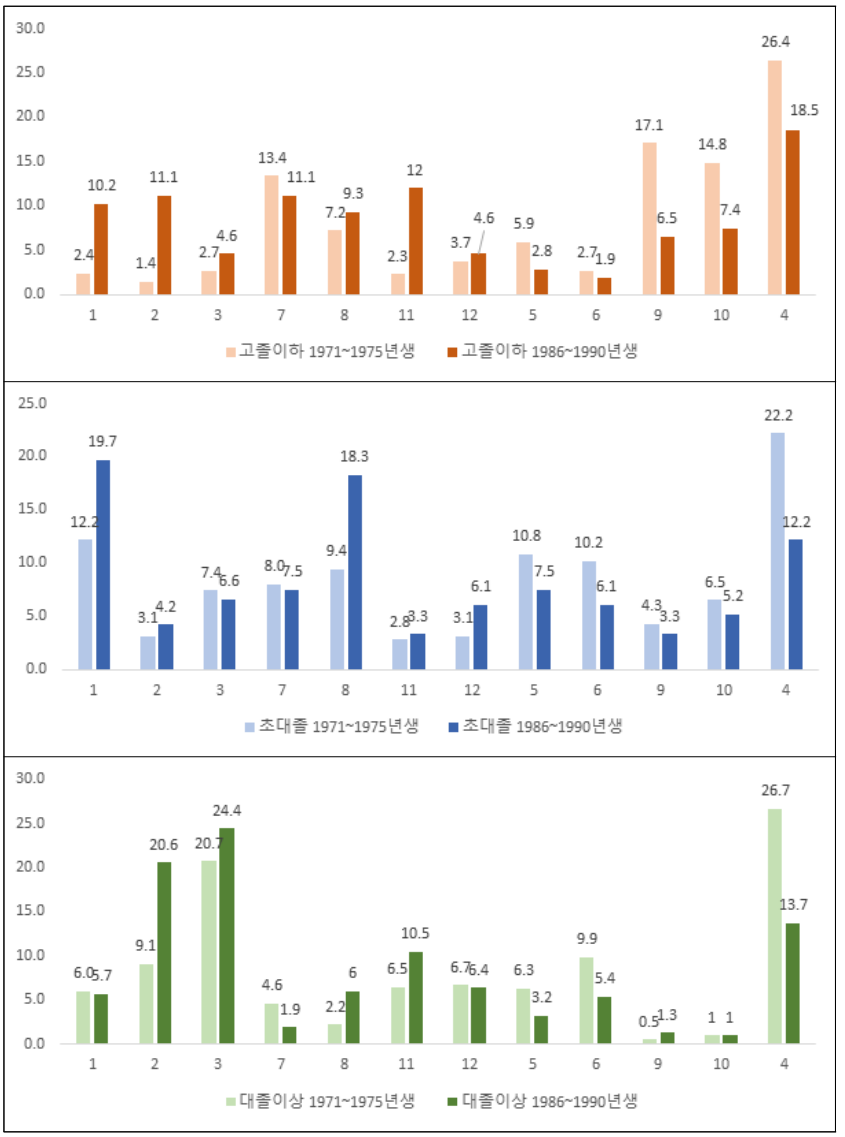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 여성 |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전체 |
| 전체 | 8.5 | 6.8 | 11.9 | 23.0 | 5.3 | 6.6 | 8.2 | 7.2 | 6.2 | 6.2 | 5.2 | 5.0 | 100.0 |
| 고졸 이하 | | | | | | | | | | | | | |
| 1971~1975년 | 2.4 | 1.4 | 2.7 | 26.4 | 5.9 | 2.7 | 13.4 | 7.2 | 17.1 | 14.8 | 2.3 | 3.7 | 100.0 |
| 1976~1980년 | 4.1 | 0.7 | 1.4 | 32.3 | 2.9 | 4.1 | 15.3 | 9.3 | 13.2 | 10.3 | 3.6 | 2.9 | 100.0 |
| 1981~1985년 | 5.4 | 4.7 | 4.3 | 28.3 | 2.3 | 4.3 | 16.7 | 7.4 | 8.1 | 10.9 | 5.0 | 2.7 | 100.0 |
| 1986~1990년 | 10.2 | 11.1 | 4.6 | 18.5 | 2.8 | 1.9 | 11.1 | 9.3 | 6.5 | 7.4 | 12.0 | 4.6 | 100.0 |
| 초대졸 | | | | | | | | | | | | | |
| 1971~1975년 | 12.2 | 3.1 | 7.4 | 22.2 | 10.8 | 10.2 | 8.0 | 9.4 | 4.3 | 6.5 | 2.8 | 3.1 | 100.0 |
| 1976~1980년 | 19.5 | 3.3 | 8.3 | 19.2 | 9.0 | 5.7 | 9.0 | 9.3 | 4.5 | 6.7 | 1.0 | 4.5 | 100.0 |
| 1981~1985년 | 19.2 | 4.9 | 10.8 | 16.0 | 5.2 | 11.1 | 8.5 | 5.5 | 2.6 | 4.6 | 5.2 | 6.5 | 100.0 |
| 1986~1990년 | 19.7 | 4.2 | 6.6 | 12.2 | 7.5 | 6.1 | 7.5 | 18.3 | 3.3 | 5.2 | 3.3 | 6.1 | 100.0 |
| 대졸 이상 | | | | | | | | | | | | | |
| 1971~1975년 | 6.0 | 9.1 | 20.7 | 26.7 | 6.3 | 9.9 | 4.6 | 2.2 | 0.5 | 1.0 | 6.5 | 6.7 | 100.0 |
| 1976~1980년 | 4.6 | 10.9 | 20.7 | 24.4 | 4.0 | 9.5 | 2.8 | 5.2 | 2.4 | 1.6 | 6.8 | 7.0 | 100.0 |
| 1981~1985년 | 6.5 | 12.6 | 24.1 | 22.7 | 2.6 | 7.5 | 2.0 | 4.5 | 1.4 | 0.6 | 9.1 | 6.3 | 100.0 |
| 1986~1990년 | 5.7 | 20.6 | 24.4 | 13.7 | 3.2 | 5.4 | 1.9 | 6.0 | 1.3 | 1.0 | 10.5 | 6.4 | 100.0 |

주: 1) 각 학력집단 내에서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비중이 늘어난 유형에 음영표시함.
2) 취업이행유형 중 7, 1, 3, 2는 취업지속형(진입시점 빠른 순서), 8, 11, 12는 불완전통합형, 5, 6, 9, 10은 취업이탈형, 4는 비취업형임.

〔그림 2-7〕 여성 교육수준별 취업이행유형 분포와 출생코호트 비교: 1971~1975년생과 1986~1990년생

(단위: %)




주: x축의 순서대로, 1,2,3,7은 취업지속형, 8, 11, 12는 불완전통합형, 5, 6, 9, 10은 취업이탈형, 4는 비취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모든 학력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최근의 변화는 20대 내내 취업경력이 없는 비취업유형이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이다. 1970년대 초반 출생코호트 여성들은 모든 학력집단에서 비취업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6~1990년 출생코호트에서 비취업 유형의 비중은 크게 감소했는데, 이는 모든 학력집단에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특징이다. 초기 성인기 여성의 비취업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요인은 결혼과 출산, 양육 등 재생산 활동(reproductive activities)이었다. 이 분석에서 비취업 유형의 감소는 여성고용의 구조적 조건이나 개인의 노동시장 결착도 등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결혼율 감소(결혼 지연)의 효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6]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상의 취업유형 분포의 변화는 여성의 초기 성인기(19~29세)라는 물리적 시간대를 구성하는 경험이 크게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데 무리가 없다. 즉 여성의 초기 성인기는 '가족에서 시장으로' 이동했다. 관건은 이러한 시장노동의 증가가 여성들의 생애 노동과 (향후) 가족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을 것이다.

## 3. 남성의 학교-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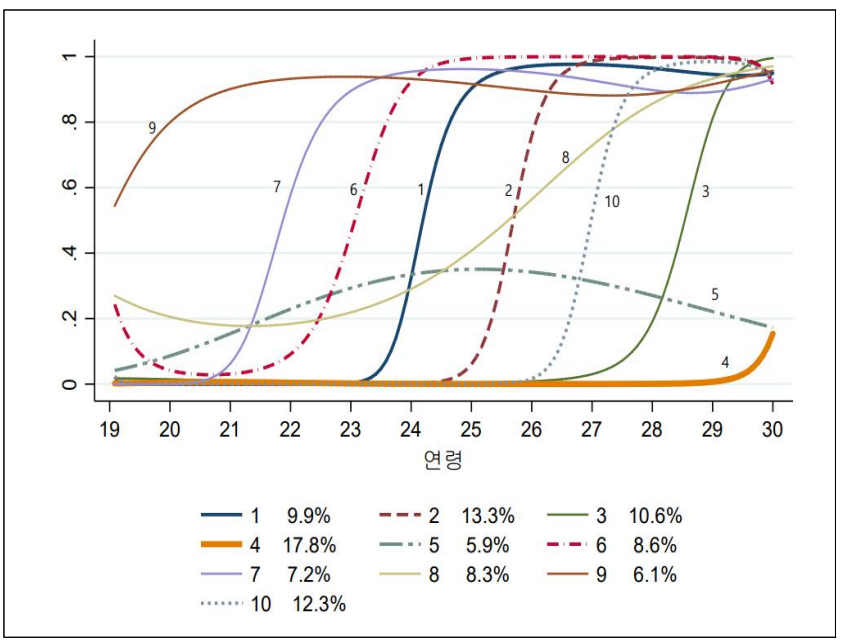
1971~1990년 출생 남성의 19-29세 동안의 취업이행궤적은 [그림 2-8]과 같이 유형화된다. 남성의 취업이행은 여성의 궤적유형 12개보다 적은 10개 유형으로 산출되었으며, 유형 간 차이도 대부분 취업시작 시점의 차이에 의해 구분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로 나타났다.

---

6) 김이선과 박경숙(2019)의 노동패널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70년 이후 2016년까지 결혼한 여성의 생애유형에서 비취업유형과 가족형성 후 입직형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감소하여, 결혼 전 취업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결혼 전 취업을 결혼 및 출산 이후 계속 지속하는 정도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

10개 유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진입시점이 26세 전에 이루어지는 유형을 진입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하면 9번, 7번, 6번, 1번이다. 다음으로 진입시점이 26세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형을 진입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나열하면 2번, 10번, 3번이다. 그 외 8번과 5번 유형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미미하게 상승한 후 꺾이는 유형이고, 4번 유형은 20대 내내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30세 즈음 취업이 시작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2-8] 1971~1990년 출생 남성의 취업 이행궤적: 집단중심추세분석 추정결과




취업이행궤적 유형의 교육수준, 직업, 가족배경 등 인구사회적 특성을 기술한 것이 〈표 2-12〉이다. 노동시장 진입시점이 빠른 9, 7, 6번은 고졸 이하의 비중이 높았고(순서대로, 69.4%, 50.0%, 49.8%), 그 다음으로 진

입시점이 빠른 1번 유형은 상대적으로 초대졸 비중(47.3%)이 높았으며, 진입시점이 26세 이후인 2번, 10번, 3번 유형은 대졸자 비중이 높았다(순서대로 63.6%, 72.5%, 73.9%). 불안정유형으로서 8번과 5번은 평균보다 고졸과 초대졸 비중이 높았지만, 9, 7, 6, 1번에 비해서는 낮고 대졸자도 적지 않은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다. 비취업유형은 대졸자 비중이 비교적 높지만(53.9%), 고졸과 초대졸의 비중도 적지 않다.

노동시장 진입이 빠른 9번과 7번은 20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취업점유율이 90% 이하로 떨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진입시점이 그보다 늦은 6, 1, 2, 10번 등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었다. 9번은 일자리이동 횟수가 평균 3.01로 직장이동이 많았으며, 7번은 23세 시점 일자리에서 하위직종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 비중도 높았다. 계층지위를 보여주는 아버지 대졸 비율과 14세 무렵 경제형편은 이들의 계층지위가 가장 낮았던 것을 보여준다.

반면 노동시장 진입이 가장 늦은 3번 유형은 취업률이 90%를 넘긴 29세 시점의 직업에서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았고 비정규직 비중은 낮았다. 고학력자가 많은 만큼, 부모의 교육수준도 가장 높았으며, 14세 무렵 경제적 형편이 평균 이상이었다는 응답률도 매우 높았다.

남성의 비취업유형은 여성의 비취업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대졸자의 비중이 높았으며, 계층지위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유형에 비해 대졸자 비중이 크게 높은 것은 아니어서, 여성과 마찬가지로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가 모두 포함된 유형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29세 시점 미혼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84.0%(5번)이고 가장 낮은 유형은 46.9%(7번)으로 나타났다. 5번 유형은 남성의 취업이행유형으로서는 유일하게 노동시장으로부터 점진적으로 퇴장하는(취업과 비취업 상태를 오가는 유형으로서 비취업 점유율이 20대 중반 이후 계속 증가하는 유형)

유형이었고, 7번 유형은 20대 초반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하여 취업상태를 지속하는 유형이다. 20대 초반에 노동시장에 안착하여 이후까지 취업점유율의 감소 없이 유지되는 유형의 미혼율(29세 시점)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상의 기술통계분석을 통해서도 교육수준(졸업시점)과 노동시장 진입시점이 여전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계층지위가 낮은 남성이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반면, 계층지위가 높은 남성은 노동시장 진입시점이 늦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졸업시점과 취업시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앞의 여성에 대한 분석에서도 확인했듯이, 동일한 학력집단 내에서도 취업이행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표 2-12〉 1971~1990년생 남성의 취업이행유형별 주요 특성

(단위: %)

| 구분 | | 남성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전체 |
| 유형 분포 | | 9.7 | 13.3 | 10.7 | 17.7 | 5.9 | 8.9 | 7.1 | 8.2 | 6.1 | 12.4 | 100.0 |
| 취업 점유율 | 19~29세 | 51.0 | 39.3 | 14.7 | 0.7 | 24.7 | 65.0 | 69.2 | 47.3 | 88.9 | 27.2 | 36.7 |
| | 23세 | 34.3 | 0.2 | 0.6 | 0.1 | 40.3 | 94.3 | 95.9 | 31.6 | 91.0 | 0.2 | 29.1 |
| | 26세 | 96.8 | 98.8 | 1.9 | 0.1 | 28.0 | 99.0 | 91.3 | 73.0 | 87.4 | 49.9 | 57.2 |
| | 29세 | 94.1 | 97.2 | 96.5 | 14.7 | 31.7 | 97.0 | 89.4 | 93.1 | 92.8 | 95.4 | 76.9 |
| 교육 수준 | 고졸 이하 | 23.2 | 15.0 | 10.3 | 23.8 | 32.5 | 49.8 | 50.0 | 29.1 | 69.4 | 11.2 | 27.5 |
| | 초대졸 | 47.3 | 21.3 | 16.7 | 22.4 | 33.2 | 33.6 | 38.1 | 36.1 | 21.6 | 16.3 | 27.1 |
| | 대졸 이상 | 29.6 | 63.6 | 72.9 | 53.9 | 34.3 | 16.7 | 11.9 | 34.8 | 9.0 | 72.5 | 45.4 |
| 23세 직종 | 전문가 | 15.8 | - | - | - | 7.1 | 7.6 | 4.7 | 5.3 | 5.7 | 100.0 | 7.3 |
| | 준전문·사무·기술직 | 52.0 | 100.0 | 33.3 | - | 48.0 | 61.3 | 63.2 | 57.0 | 68.4 | - | 60.5 |
| | 판매서비스·비숙련 | 26.0 | - | 66.7 | 100.0 | 33.7 | 22.1 | 24.4 | 32.5 | 17.4 | - | 24.1 |
| | 비임금 | 6.2 | - | - | - | 11.2 | 9.0 | 7.7 | 5.3 | 8.5 | - | 8.1 |
| 23세 정규직 여부 | 정규직 | 69.4 | 100.0 | - | - | 64.4 | 76.1 | 73.6 | 55.6 | 80.1 | - | 72.4 |
| | 비정규직 | 30.7 | - | 100.0 | 100.0 | 35.6 | 24.0 | 26.5 | 44.5 | 19.9 | 100.0 | 27.6 |

| 구분 | | 남성 |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전체 |
| 26세 직종 | 전문가 | 16.8 | 24.5 | 33.3 | - | 9.7 | 9.5 | 4.9 | 15.2 | 8.9 | 27.5 | 16.3 |
| | 준전문·사무·기술직 | 59.3 | 57.2 | 33.3 | 0.0 | 54.2 | 61.3 | 66.5 | 59.9 | 65.7 | 54.0 | 59.8 |
| | 판매서비스·비숙련 | 16.7 | 10.9 | 33.3 | 100.0 | 18.1 | 19.3 | 20.4 | 17.9 | 15.3 | 11.6 | 15.8 |
| | 비임금 | 7.2 | 7.3 | - | - | 18.1 | 9.8 | 8.1 | 7.1 | 10.2 | 6.9 | 8.2 |
| 26세 정규직 여부 | 정규직 | 83.5 | 89.9 | 55.6 | - | 69.5 | 81.1 | 81.2 | 78.8 | 81.1 | 87.6 | 83.6 |
| | 비정규직 | 16.5 | 10.1 | 44.4 | 100.0 | 30.5 | 18.9 | 18.8 | 21.2 | 18.9 | 12.5 | 16.4 |
| 29세 직종 | 전문가 | 16.6 | 23.7 | 26.3 | 25.4 | 15.3 | 9.9 | 6.1 | 17.9 | 9.1 | 28.4 | 19.2 |
| | 준전문·사무·기술직 | 57.3 | 56.4 | 55.0 | 46.6 | 49.4 | 61.7 | 64.4 | 59.0 | 61.4 | 53.2 | 57.2 |
| | 판매서비스·비숙련 | 17.3 | 9.6 | 10.4 | 10.2 | 23.5 | 14.9 | 18.5 | 13.6 | 16.1 | 10.5 | 13.3 |
| | 비임금 | 8.8 | 10.3 | 8.4 | 17.8 | 11.8 | 13.5 | 11.0 | 9.5 | 13.4 | 7.9 | 10.4 |
| 29세 정규직 여부 | 정규직 | 85.8 | 92.9 | 89.9 | 84.5 | 73.3 | 84.9 | 82.4 | 85.3 | 80.0 | 91.0 | 87.2 |
| | 비정규직 | 14.2 | 7.1 | 10.1 | 15.5 | 26.7 | 15.1 | 17.6 | 14.7 | 20.0 | 9.0 | 12.8 |
| 29세까지 평균 일자리 횟수 | | 1.91 | 1.50 | 1.39 | 0.27 | 2.61 | 2.26 | 2.51 | 3.69 | 3.01 | 1.39 | 1.77 |
| 아버지 학력 | 고졸 미만 | 54.3 | 42.6 | 36.9 | 41.5 | 48.9 | 58.2 | 62.7 | 54.1 | 64.2 | 38.3 | 47.8 |
| | 고졸 | 33.5 | 41.4 | 40.7 | 36.3 | 38.3 | 35.4 | 30.6 | 35.1 | 29.9 | 43.0 | 37.2 |
| | 대학 이상 | 12.3 | 16.0 | 22.4 | 22.2 | 12.9 | 6.3 | 6.8 | 10.9 | 5.9 | 18.7 | 15.0 |
| 어머니 학력 | 고졸 미만 | 64.7 | 53.4 | 51.6 | 54.6 | 68.5 | 76.5 | 74.6 | 70.1 | 77.1 | 55.1 | 61.7 |
| | 고졸 | 30.7 | 38.8 | 39.9 | 37.4 | 25.9 | 21.2 | 24.0 | 25.6 | 21.6 | 37.3 | 32.4 |
| | 대학 이상 | 4.6 | 7.9 | 8.5 | 8.0 | 5.6 | 2.4 | 1.4 | 4.3 | 1.2 | 7.7 | 5.9 |
| 14세 무렵 경제형편 | 평균 미만 | 29.8 | 22.2 | 23.1 | 23.0 | 39.6 | 33.9 | 37.0 | 42.1 | 41.9 | 22.2 | 28.9 |
| | 평균 수준 | 61.8 | 64.0 | 59.8 | 59.5 | 52.4 | 55.9 | 55.3 | 46.8 | 49.2 | 66.1 | 58.6 |
| | 평균 초과 | 8.4 | 13.8 | 17.1 | 17.5 | 8.0 | 10.2 | 7.8 | 11.0 | 8.9 | 11.8 | 12.5 |
| 미혼율 | 23세 | 98.2 | 99.2 | 99.2 | 99.1 | 98.5 | 94.0 | 92.5 | 97.3 | 89.9 | 98.8 | 97.3 |
| | 26세 | 82.3 | 87.1 | 96.7 | 96.0 | 93.7 | 73.9 | 74.7 | 85.0 | 71.6 | 93.4 | 87.2 |
| | 29세 | 62.1 | 55.9 | 72.1 | 82.5 | 84.0 | 49.3 | 46.9 | 64.2 | 50.0 | 62.5 | 64.5 |

주: 1) 남성 전체 사례수는 4,538명임.
2) 취업여부, 교육수준, 직종 등에서의 연령은 해당 연령 마지막 월 기준임.
3) 교육수준은 29세 시점의 학력임. 초대졸에는 2~3년제 졸업, 2~3년제 및 4년제 재학, 중퇴, 휴학이 포함됨.
4) 정규직 여부는 임금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며, 정규직에는 상용직(회고자료 아님)과 정규직(회고자료)이 포함되고, 비정규직에는 임시직과 일용직(회고자료 아님), 비정규직(회고자료), 단순노무직(전체)이 포함됨.
5) 전체 4,538명 중 아버지 학력은 4,432명(97.7%), 어머니 학력은 4,006명(88.3%), 14세 무렵 경제적 형편은 3,955명(87.2%) 응답

〈표 2-13〉은 1971-90년 출생자를 세부 출생코호트로 구분하고 각 출생코호트의 취업이행유형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빠른 취업유형인 9, 7, 6번 유형의 비중은 감소했고, 24세 이후 취업을 시작하는 1, 2, 10, 3번 유형의 비중은 늘어났다. 특히 취업이 가장 늦은 3번 유형은 1971-75년생의 경우 8.9%였는데 1976-80년생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6-90년생에서는 12.1%로 늘어났다. 불안정취업 형태를 보여준 8번과 5번 유형은 뚜렷한 증감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주목할 만한 것은 비취업유형인 4번 유형인데, 통상적인 기대와 달리, 1971-75년생과 1976-80년생에 비해 1981-85년생과 1986-90년생 사이에서 오히려 그 비중이 감소한 점이다. 즉 과거 세대에 비해 최근 198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는 20대 초반부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유형의 비중은 감소하여, 노동시장 진입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20대 내내 취업하지 않는 유형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추세를 과장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대 내내 취업하지 않는 유형의 비중은 198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에서도 15.8%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청년실업은 1997-98년 경제 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최근으로 올수록 취업이행이 원활해졌다기보다는 노동시장 진입시점이 늦춰지고 구직, 취업준비, 대학원 진학 등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자료는 최근 출생코호트에서 노동시장 진입시점을 30세 이후로 미루는 경향이 다소 둔화된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13〉 남성의 출생코호트별 취업이행유형 분포

(단위: %)

| 구분 | 남성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전체 |
| 전체 | 9.7 | 13.3 | 10.7 | 17.7 | 5.9 | 8.9 | 7.1 | 8.2 | 6.1 | 12.4 | 100.0 |
| 1971~1975년생 | 9.1 | 12.4 | 8.9 | 17.8 | 6.1 | 10.3 | 7.6 | 7.4 | 8.5 | 12.0 | 100.0 |
| 1976~1980년생 | 9.3 | 13.0 | 11.0 | 19.3 | 6.4 | 8.6 | 7.0 | 8.8 | 5.0 | 11.7 | 100.0 |
| 1981~1985년생 | 10.0 | 13.8 | 11.9 | 16.7 | 5.7 | 8.1 | 6.5 | 8.6 | 5.8 | 12.9 | 100.0 |
| 1986~1990년생 | 11.6 | 15.8 | 12.1 | 15.8 | 4.7 | 7.2 | 6.7 | 8.4 | 3.4 | 14.1 | 100.0 |

주: 취업이행유형 중 9, 7, 6, 1, 2, 3, 10, 3번까지는 노동시장 진입시점이 가장 빠른 유형부터 나열한 것이며, 8번과 5번은 완만한 이행 및 퇴장이 나타나는 유형, 4번은 비취업유형임.

〈표 2-14〉는 교육수준과 출생코호트를 교차하여 세부집단의 취업이행유형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각 학력집단 내에서는 출생코호트에 따른 취업이행유형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저학력 남성 집단에서는 일관된 추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가장 늦게 진입하는 유형인 3번 유형의 비중은 2.5~7.0%로 낮은 수준이며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시장 진입이 가장 빠른 9번 유형은 1970년대 초반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17.4%를 차지했으며, 증감을 나타내다가 198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에서는 14.5%로 감소했다. 여전히 고졸 남성의 대표적인 취업이행유형 중 하나이다. 최근 코호트에서는 9번보다 취업시점이 23세로 늦은 6번 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17.1%). 또한 그보다 취업시점이 늦은 1번 유형의 비중도 높다(15.8%). 비취업유형인 4번 유형의 비중은 크게 늘었거나 줄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고교 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는 유형이 감소하였지만 23~24세 즈음에는 취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력 남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다소 지체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해 있는 비중도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초대졸 남성의 취업유형에서도 최근 출생코호트로 오면서 일관된 변화

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1971-75년생과 1986-90년생을 비교하면, 과거에 비해 9번은 감소하고, 7번은 증가했으며, 6번은 비슷한 수준이다. 초대졸자의 대표적 유형인 1번 유형의 비중은 이미 1970년대 후반 코호트에서 늘어난 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늦은 취업유형인 3번과 10번의 비중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비취업유형은 고졸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1980년대 후반 출생코호트에서도 12.2%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초대졸 남성의 취업이행유형에서 노동시장 진입시점의 지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표 2-14〉 남성의 교육수준별 출생코호트별 취업이행유형 분포

(단위: %)

| 구분 | 남성 | | | | | | | | | |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전체 |
| 전체 | 9.7 | 13.3 | 10.7 | 17.7 | 5.9 | 8.9 | 7.1 | 8.2 | 6.1 | 12.4 | 100.0 |
| 고졸 이하 | | | | | | | | | | | |
| 1971~1975년 | 8.6 | 7.5 | 2.5 | 14.1 | 6.6 | 16.9 | 12.1 | 8.3 | 17.4 | 5.8 | 100.0 |
| 1976~1980년 | 7.9 | 6.5 | 4.5 | 17.0 | 6.8 | 16.2 | 15.9 | 9.9 | 12.2 | 3.1 | 100.0 |
| 1981~1985년 | 4.7 | 7.9 | 7.0 | 15.8 | 8.8 | 13.0 | 10.7 | 8.8 | 15.8 | 7.4 | 100.0 |
| 1986~1990년 | 15.8 | 7.9 | 5.3 | 15.8 | 5.3 | 17.1 | 10.5 | 6.6 | 14.5 | 1.3 | 100.0 |
| 초대졸 | | | | | | | | | | | |
| 1971~1975년 | 15.7 | 10.3 | 7.1 | 14.7 | 7.7 | 10.9 | 9.9 | 10.6 | 5.1 | 8.0 | 100.0 |
| 1976~1980년 | 17.4 | 12.2 | 4.4 | 17.9 | 8.7 | 9.5 | 8.4 | 10.3 | 5.2 | 6.0 | 100.0 |
| 1981~1985년 | 17.2 | 8.5 | 8.2 | 12.4 | 5.7 | 12.4 | 9.3 | 12.4 | 5.1 | 8.8 | 100.0 |
| 1986~1990년 | 17.3 | 11.2 | 7.1 | 12.2 | 6.6 | 11.2 | 13.7 | 10.2 | 3.6 | 7.1 | 100.0 |
| 대졸 이상 | | | | | | | | | | | |
| 1971~1975년 | 6.2 | 18.5 | 16.3 | 23.0 | 4.7 | 3.2 | 1.9 | 4.9 | 1.2 | 20.3 | 100.0 |
| 1976~1980년 | 5.2 | 17.0 | 18.6 | 21.4 | 4.8 | 3.8 | 1.3 | 7.3 | 0.8 | 19.8 | 100.0 |
| 1981~1985년 | 7.2 | 19.8 | 16.5 | 20.0 | 4.5 | 3.1 | 2.7 | 5.8 | 2.1 | 18.1 | 100.0 |
| 1986~1990년 | 7.2 | 20.6 | 16.8 | 18.1 | 3.4 | 2.5 | 1.6 | 7.8 | 0.6 | 21.5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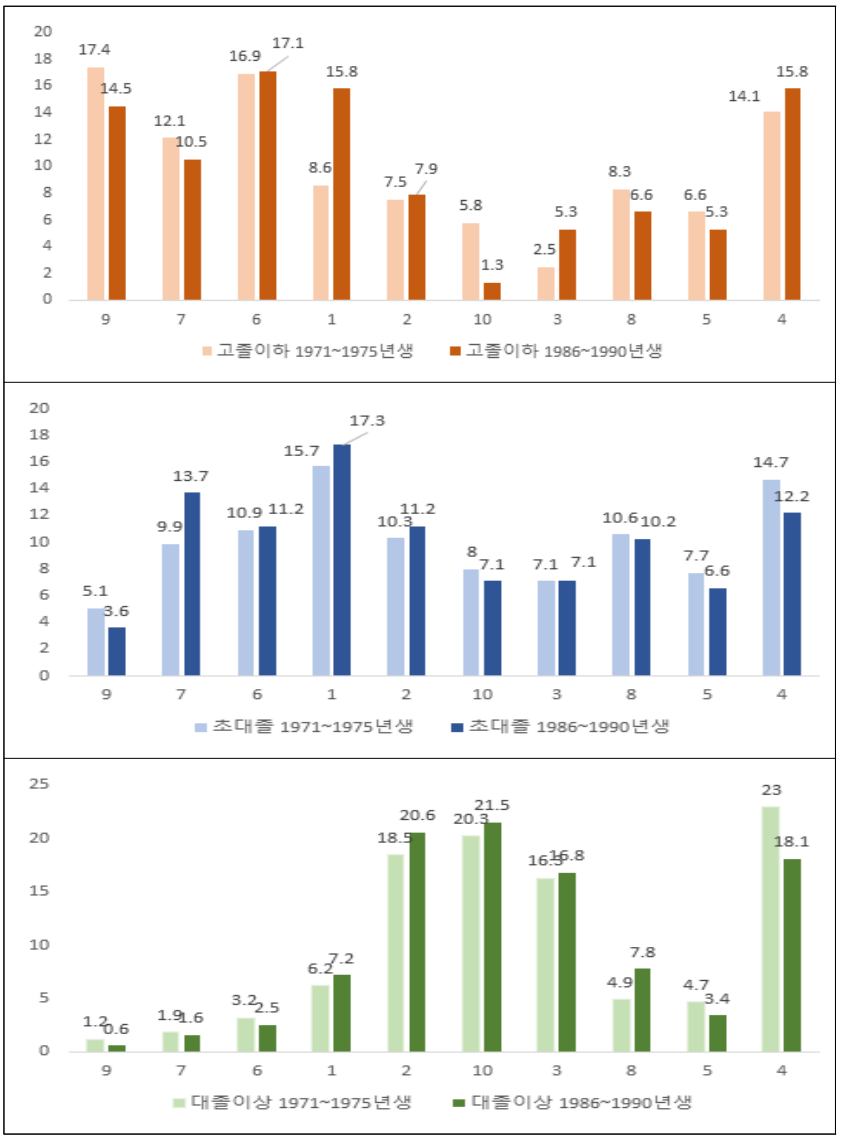
주: 취업이행유형 중 9, 7, 6, 1, 2, 3, 10, 3번까지는 노동시장 진입시점이 가장 빠른 유형부터 나열한 것이며, 8번과 5번은 완만한 이행 및 퇴장이 나타나는 유형, 4번은 비취업유형임.

마지막으로 대졸 이상 집단을 보면, 입직시점이 가장 늦은 3번 유형의 비중은 과거와 유사하며, 2번(25~26세 진입)과 10번 유형(27~28세 진입)의 비중은 늘어났다. 대졸 이상 집단에서도 노동시장 진입시점이 늦은 취업유형의 비중에서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해있는 비취업유형의 비중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4번 유형의 비중은 23.0%에서 18.1%로 감소했지만, 노동시장 진입 이후에도 취업과 비취업을 오가는 8번 유형의 비중도 4.9%에서 7.8%로 늘어났다.

결론적으로, 출생코호트와 교육수준에 따른 취업이행유형의 분포 차이를 비교한 결과 1971~1990년생 남성 사이에서 취업이행이 다소 늦어진 변화는 학력구성의 변화에 따른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취업이행이 늦어진 것은 졸업이 늦고 구직기간이 긴 대졸자의 비중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보이며, 졸업과 취업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는 경향은 저학력집단에서만 나타났다. 또한 취업과 비취업의 경계에 있는 유형은 이미 1970년대 초반 출생 남성 사이에서도 일정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최근 출생코호트에서 이 비율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20대 내내 취업이력이 없는 것은 취업시기를 20대 이후 즉 30대로 미루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집단의 비중 역시 취업지연의 추세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고졸 이하 남성을 제외하면 이 집단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림 2-9〕 남성 교육수준별 취업이행유형 분포와 출생코호트 비교: 1971~1975년생과 1986~1990년생

(단위: %)




주: x축의 유형번호에서 9번부터 3번까지는 노동시장 진입시점이 가장 빠른 유형부터 나열한 것이며, 8번과 5번은 완만한 이행 및 퇴장이 나타나는 유형, 4번은 비취업 유형이다.

## 제3절 취업이행 유형과 초기 성인기 결혼 지연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여성과 남성 각각의 취업궤적유형이 30세까지의 결혼여부와 통계적인 관련성을 갖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결혼이행은 모든 생애시점에서의 결혼이행률이 아니라 30세 시점에서의 결혼여부로 측정한다.[7] 30세 이내에 이루어진 결혼 사이의 시점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이므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통제변수로는 5세 간격 출생코호트, 교육수준, 부모 각각의 교육수준, 14세 무렵 가정형편(5점척도)을 활용하며, 이러한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취업궤적유형은 30세 시점 결혼여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출생코호트를 통해 시기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며, 취업궤적유형과 별도로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교육수준과 구별되는 취업궤적유형만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초기 성인기의 특성상 부모의 계층지위가 중요하므로 부모 각각의 교육수준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고, 14세 무렵 가정형편을 가구소득 수준의 대리변수로 활용한다.

먼저 여성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은 초대졸이하와 대졸 이상 사이의 차이만이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여성은 대졸 이상의 여성에 비해 20대에 결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코호트 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 최근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20대 동안 결혼할 가능성은 감소하였는데, 특히 1980년대 초반 출생자와 후반 출생자 사이의 차이가 커졌다. 아버지의 학력도

7) 여기에서 30세를 기준으로 한 것은, 취업이행궤적 관찰 상한연령을 29세로 정하였기 때문에 그 직후의 연령으로 30세를 선택하였다. 이처럼 절대적인 연령기준에 따라 결혼율을 측정하는 것은 (생애사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해) 자의적인 한계가 있지만, 초기 성인기(19-29세) 생애과정의 전체를 파악하는 데에는 유리하다.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20대 동안 결혼할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4세 무렵 경제적 형편은 좋을수록 30세 시점 결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교육수준과 경제적 형편은 30세 시점의 결혼이행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그 이유를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아버지 교육수준은 자녀의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직업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직업지위를 가진 경우 동일한 학력과 취업궤적을 갖고 있어도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14세 무렵 경제적 형편은 응답자의 직업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가족형성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이나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응답자의 결혼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14세 무렵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경우는 현재에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이어져 응답자의 결혼이행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대 취업궤적유형이 30세 시점 결혼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비취업유형인 4번을 준거범주로 하여 측정하였다. 취업중단유형인 5, 6, 9, 10번은 30세 시점 결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비취업유형인 4번에 비해 취업지속형인 1, 2, 3, 7번 유형은 모두 결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빠른 1번과 7번 유형의 결혼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불완전 통합유형인 8, 11, 12번 유형은 세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8번과 11번 유형은 4번에 비하여 결혼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유형으로 나타났지만, 11번 만이 통계적으로 의미있었다. 마지막으로 12번 유형은 불완전 통합유형 중 결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행 로지스틱스 회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경우 19-29세 취업이행궤적의 유형에 따라 30세 시점 결혼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단유형, 비취업유

형, 지속유형, 불안정지속유형의 순서로 결혼 가능성이 낮아진다. 전통적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중단유형과 비취업유형이 1970년대와 1980년대 출생 여성들의 초기 성인기 생애유형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특징은 여성 취업유형과 결혼의 관계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빠르고 노동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1번과 7번 유형이 2번과 3번 유형보다 결혼 가능성이 더 낮았는데, 이는 빨리 취업하고 빨리 결혼하는 중간이하 학력층 여성의 전형적 유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고학력 여성이더라도 취업이행유형에 따라 결혼이행에 차이가 있는데 졸업 직후 취업한 여성들과 달리, 20대 후반에 취업을 시작하거나 취업과 비취업을 반복하는 불안정통합유형은 결혼이행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성인기 여성의 결혼 지연은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하여 긴 노동이력을 가진 유형과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였거나 불안정하게 통합되어 노동이력이 짧은 유형의 양극단의 결혼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2-15〉의 우측에 제시하였다. 30-40대를 포함한 기존 연구의 결과와 달리, 초기 성인기(19-29세) 남성의 결혼에서 교육수준과 부모의 학력은 결혼이행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는 것과 노동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것이 결혼 지연의 이유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취업준비 기간을 늘리는 것이 30세까지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초기 성인기의 노동시장 이탈이 상대적으로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연구결과를 수용하고(박미희, 홍백의, 2014; 변금선, 2018), 실제로 취업유형 중 늦은 취업에 대졸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기 성인기의 결혼 지연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보다는 그렇지 않은 집단의 행위양식인 것이다.

〈표 2-15〉 1971-1990년 출생코호트 남녀의 19-29세 취업궤적과 30세 시점 결혼여부

| | 여성 | | 남성 | |
|---|---|---|---|---|
| | odds ratio | (s.e.) | odds ratio | (s.e.) |
| 교육수준(준거: 고졸 이하) | | | | |
| 전문대졸 | 0.861 | (0.086) | 0.966 | (0.100) |
| 4년대졸 이상 | 0.685*** | (0.070) | 0.828† | (0.087) |
| 출생코호트(1971-75년생) | | | | |
| 1976-80년생 | 0.784* | (0.074) | 0.753** | (0.069) |
| 1981-85년생 | 0.763** | (0.076) | 0.694*** | (0.071) |
| 1986-90년생 | 0.658*** | (0.077) | 0.392*** | (0.049) |
| 아버지 학력(중졸 이하) | | | | |
| 고졸 | 0.812* | (0.080) | 0.883 | (0.091) |
| 대학 이상 | 0.671** | (0.102) | 0.765 | (0.125) |
| 어머니 학력(중졸 이하) | | | | |
| 고졸 | 1.088 | (0.113) | 1.116 | (0.124) |
| 대학 이상 | 0.912 | (0.188) | 1.030 | (0.225) |
| 14세 경제 형편(5점) | 1.155** | (0.059) | 1.159** | (0.060) |
| 20대 취업궤적 집단(준거: 4번 비취업 유형) | | | | |
| 1 | 0.702** | (0.094) | 2.947*** | (0.453) |
| 2 | 0.780† | (0.113) | 4.143*** | (0.567) |
| 3 | 0.781* | (0.096) | 2.211*** | (0.334) |
| 5 | 4.836*** | (1.154) | 1.013 | (0.230) |
| 6 | 2.869*** | (0.507) | 4.849*** | (0.764) |
| 7 | 0.692** | (0.093) | 5.186*** | (0.858) |
| 8 | 0.793 | (0.114) | 2.856*** | (0.488) |
| 9 | 2.977*** | (0.606) | 4.536*** | (0.792) |
| 10 | 4.600*** | (1.032) | 3.566*** | (0.502) |
| 11 | 0.624** | (0.099) | | |
| 12 | 1.361† | (0.236) | | |
| LR $x^2$ | 408.23 | | 341.28 | |
| N | 3,877 | | 3,546 | |

주: 1) † p<.1, * p<.05, ** p<.01, *** p<.001.
2) 여성의 20대 취업궤적 중 1,2,3,7은 취업지속형, 8, 11, 12는 불완전통합형, 5, 6, 9, 10은 취업이탈형, 4는 비취업유형임.
3) 남성의 20대 취업궤적 중 9, 7, 6, 1, 2, 3, 10, 3번까지는 노동시장 진입시점이 가장 빠른 유형부터 나열한 것이며, 8번과 5번은 완만한 이행 및 퇴장이 나타나는 유형, 4번은 비취업유형임.

남성의 초기 성인기 결혼이행 패턴은 계층에 따라 생애유형에 대한 선호와 지향이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간 이하 학력 남성은 일찍 자립하고 가정을 형성함으로써 부족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충하려는 욕구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직종의 지위나 임금수준이 낮더라도 노동시장에 일찍 안착할 수 있으면 빨리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고학력 남성은 교육기간을 늘리고 취업준비 등에 시간을 할애하여 입직시점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결혼이 늦어지더라도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기 성인기 결혼이 지연된다. 이러한 후기 진입자의 결혼 지연을 반드시 남성만의 행동패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성의 초기 성인기 결혼패턴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남녀 모두 늦은 노동시장 진입은 결혼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여성은 남성과 달리 조기 진입이 결혼이행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조기 진입이 교육수준이나 계층지위면에서 중하위층의 특성임을 감안하면, 중하위계층이면서 길고 안정된 노동이력을 가진 여성들의 결혼 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에 일찍 나와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서 고용을 지속하는 여성들에게 결혼이 그것을 상쇄할 자원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유사한 상황의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일찍 결혼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이다. 여성의 정규직 장기 고용은 결혼이행을 서두르지 않도록 하는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성인기에 국한해서 봤을 때, '지금 결혼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는 가치가 중간 이상의 계층보다는 중간 이하의 계층에서, 남녀 간의 격차가 더 클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성인기 전반에서 결혼가치의 성별 차이가 중하위계층에서 더 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은 개인 간의 결혼여부 및 결혼시점 차이에 대한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가 있다.

첫째, 지난 20년 간의 초기 성인기 생애과정 변화를 출생코호트 간의 비교를 통해 관찰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여성의 초기 성인기가 '가족에서 시장으로' 이동한 점이다. 이는 모든 교육수준(계층)에서 나타난 변화였다. 남성의 초기 성인기는 이미 2000년대부터 늦은 진입과 불완전통합, 그리고 긴 비취업 기간 등으로 특징지어지고 있었다. 고학력화는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난 변화였지만, 여성의 초기 성인기는 고학력화와 더불어, 모든 교육수준에서 나타난 비취업 유형의 감소 및 취업 지속경향 등으로 인해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남녀 모두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는 것은 초기 성인기 결혼 지연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늦은 진입자에는 저학력자도 포함되지만 대졸자가 대부분이다. 교육, 구직, 취업준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을 수 있는 조건은 계층화되어 있으며, 적어도 부양의존이 가능한 조건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노동시장의 늦은 진입과 관련된 초기 성인기 결혼 지연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보다는 그렇지 않은 집단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남녀 모두 늦은 노동시장 진입은 결혼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여성은 남성과 달리 조기 진입이 결혼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조기 진입이 교육수준이나 계층지위면에서 중하위층의 특성임을 감안하면, 중하위계층이면서 길고 안정된 노동이력을 가진 여성들의 결혼 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같은 조건의 남성과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심화된 연구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결혼의 가치가 상위계층보다는 중하위계층에서

성별 격차가 클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3장과 4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종합적으로, 20대라는 초기 성인기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교육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안정화 등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20대의 주요 생애과업이 되었다. 지난 20세기에는 가족형성 및 자녀출산 등 친밀성과 재생산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과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초기 성인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과거에는 남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현재보다 빨랐고 노동시장의 고용 여건이 더 좋았기 때문일까? 그보다는 남성의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일단 여성들은 대부분 결혼하고 결혼하면 노동시장에서 물러나 재생산활동을 중심으로 생애를 재조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초기 성인기에 결혼하고 노동시장에서 물러나는 전통적인 여성생애는 크게 줄어들었다.

대신에 오늘날의 초기 성인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안정화하며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윤리에 지배받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초기 성인기는 시장의 요구와 가족의 요구가 각축하는 시기를 거쳐, 시장의 요구만이 살아남은 시기로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수준에서 고안한 결혼 지연이라는 전략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후기 성인기로 지연되고 있는 결혼시점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 제3장

## 계층유형별 노동경험과 청년기 연장의 의미

제1절 학교-노동시장 이행과정과 계층적 차이
제2절 청년기 '가능성'의 신화와 이행기의 장기화

# 제3장 계층유형별 노동경험과 청년기 연장의 의미

## 제1절 학교-노동시장 이행과정과 계층적 차이

이 장과 다음 장(4장)에서는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불평등체계에서의 위치와 가족형성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해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우선 이 장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노동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행기 청년들이 경험하는 불평등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의미부여 특성을 살펴본다.

3장과 4장은 모두 다음 〈표 3-1〉과 같이 연구참여자들을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 구분을 따른다. 이러한 구분은 성인자녀의 성취지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적 지위와 자녀 본인의 성취의 결합(Hout and DiPrete, 2006)이라는 이론적 관점과 실제 심층면접 결과에서 얻은 통찰에 의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계층구분은 연구참여자들 사이에서의 계층구분이며, 각 계층의 경험적 특성은 심층면접에서 나타난 '성인이행기에 대한 부모의 지원 수준'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자녀에 대한 지원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가족배경을 상위계층(유형 1, 2)과 중하위계층(유형 3, 4)으로 구분하였다. 본인의 계층지위는 경력상승 이력 혹은 전망에 따라 상승이력(유형 1, 3)과 정체이력(유형 2, 4)으로 구분하여 조작적으로 개념화(operational conceptualization)하였다. 모든 계층집단은 집단 내부에서 성별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 및 해당 연구참여자에 관한 설명은 〈표 3-1〉과 같다.

〈표 3-1〉 계층배경과 노동 이력에 따른 계층 유형 구분

| | 상승이력(13명) | 정체이력(27명) |
|---|---|---|
| 상위 계층 (16명) | **유형 1: 상승이력 상위계층**<br>원가족 중산층 이상, 본인 서울 주요대학 졸업 이상, 정규직(공채), 경력상승 전망 높음<br><br>(여성) N09, N25, N28, N30<br>(남성) N34, N38 | **유형 2: 정체이력 상위계층**<br>본인 주요대학 졸업 이상, 노동시장 진입 시 주로 계약직, 소득은 높으나 경력 상승 가능성 낮음<br><br>(여성) N10, N12, N21, N22, N26, N27, N29, N36<br>(남성) N16, N35 |
| 중하위 계층 (24명) | **유형 3: 상승이력 중하위계층**<br>전문대 졸업 이상, 원가족 지원 약함, 불안정한 노동으로 시작하여 경력상승 중<br><br>(여성) N18, N19, N20, N24, N32<br>(남성) N33, N37 | **유형 4: 정체이력 중하위계층**<br>고등학교 졸업 이상, 불안정 혹은 저임금 노동, 경력상승 가능성 낮음<br><br>(여성) N01, N02, N04, N06, N07, N08, N11, N13, N15, N23, N39, N40<br>(남성) N03, N05, N14, N17, N31 |

이하에서는 부모의 계층지위와 본인의 노동이력에 따라 구분한 네 가지 유형, 즉 상승이력 상위계층(유형 1), 정체이력 상위계층(유형 2), 상승이력 중하위계층(유형 3), 정체이력 중하위계층(유형 4)을 순서대로 살펴본다.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은 전형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부가적으로 비전형적 사례들의 내용도 함께 다룬다. 대표적인 네 사례는 각각 N25(유형 1, 1989년생, 33세), N29(유형 2, 1985년생, 37세), N32(유형 3, 1988년생, 33세), N02(유형 4, 1991년생, 31세)로, 모두 수도권에서 출생하여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이다. 이들의 연령대는 30대 초반(N02, N32)에서 중반(N25) 그리고 후반(N29)으로 다양하지만, 모두 충분한 일 경험(최소 8년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입직 이후 직급이나 경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승 혹은 정체의 경로를 잘 보여줄 수 있다. 특히 입직 과정 및 직장생활 과정에서 계층과 젠더의 차이가 어떤 방식으로 교차하는지 드러나는 지점에서 남성 참여자의 경험을 전형적인 사례와 비교한다.

## 1. 상승이력 상위계층: 예상 가능한 경로, 열린 전망

N25는 서울 소재 특목고(외고)와 유명 재수학원을 거쳐 주요 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 공채로 입사한 뒤 한 직장에서 꾸준히 진급했다. 연구자가 향후 경력 전망에 대해 질문했을 때 N25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제가 이제 진급할 때쯤이 되면 저보다 낮은 연차의 사람을 뽑아서 같이 일하는 조직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5년 뒤라면 제가 한 차장 정도 됐을 시기니까 그때 이제 한 대리나 사원 **같이 일하는 팀원이 있어서 좀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더 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0년 뒤에는, 10년 뒤면 이제 사실 뭐 연차 상으로 봐서는 팀장의 연차가 될 텐데. 이 회사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현재 회사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네, 팀장 연차 정도 되어서 조금 **더 많은 직원들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20년 뒤에는 이제 50대가 될 텐데. 어,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현재 회사에 계속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정년퇴직이 꿈인 사람이에요**. 현재 회사에 계속 다니면 좋겠지만 20년 뒤에는 임원이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이 갈리는 시기거든요. 임원이 되지 않은 자에 속하게 된다면, 어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 어려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어 저 같으면 **임원에서 조금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면 다른 곳을 찾아갈 것 같아요.** (N25, 1989년생, 33세, 여, 대기업 공채)

호봉제와 직급상승 체계가 마련된 대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경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호봉제에 따라서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이 상승하며, 경력에 따라서 직급 상승이 보장되어 있다. N25는 지난 몇 년간 직급상승을 통해 현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관리자로 직급이 상승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

다. 이는 상승이력 유형 중 정규직 호봉제 체계 안에 있는 참여자가 공유하는 특성이다. N38은 연차가 쌓이면 승진하는 것은 "그냥 정해져 있는" 조직의 제도이고, 이러한 조직에 속한 개인에게는 상승이력이 예상된다.

> 제가 고민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 (...)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문화상 그리고 특히나 저희 같은 계약상 연공서열을 막 무시하고 승진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N38, 1987년생, 35세, 남, 금융계 공기업 과장)

N25는 장기적으로 최고위 관리자인 임원으로 승진하여 정년으로 퇴직하는 것까지 전망하고 있다. 대기업 공채는 기업 조직의 '내부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이다. 입사 초기에는 보조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다가 경력이 쌓이고 직급이 상승함에 따라 조직 내에서 독자적인 업무를 맡는다.

> 이전에는 제가 그냥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팀에서 막내로서, 어 이제 가장 그 톱니바퀴의 가장 밑단에서 일을 했었다면 지금은 저 혼자 하는 팀이에요. 그래서 팀원은 있지만 서로 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어 **홍보 관련된 일은 제가 혼자서 전담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더 결정권을 가지게 되고** (...) 제가 모든 창구가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일에 대해 떠올리면 그 이제 홍보가 필요하다 하면 이제 저를 바로 떠올리게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서 예전에 느꼈던 그런 뭔가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많이 극복이 됐어요.**(N25, 1989년생, 33세, 여, 대기업 공채)

노동시장 내 안정된 자리에 있는 참여자들은 업무에서 자율성과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성과에 따라 임금인상과 직급상승이라는 보상이 주어진다.

> 공무원분들처럼 호봉제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해가 지나면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 연봉 인상률은 가져가지만, 이제 퍼포먼스에 따라서 굉장히 차등 지급이 되고. 그리고 **확실히 일을 잘하면 이제 프로모션의 기회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승진을 한 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저는 좀 워커홀릭(workerholic)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만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N28, 1987년생, 34세, 여, 외국계 패션 브랜드 근무)

유형 1의 참여자들은 고용 안정성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안정적이라 평가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대기업 공채출신(N09, N25, N30, N38)이 대부분이며, 외국계 기업 수시채용(N28) 시스템이나 추천제도(N34)를 통해 입직한 사례도 있다. N34는 캐나다 어학연수에서 만난 지인의 추천으로 유명 외국계 IT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으며 입사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몇 년 더 근무한 뒤 예전 상사의 추천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의 정규직 IT 회사로 이직하게 된다. N34는 외국계 회사의 추천제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외국계 기업은 추천 제도가 워낙 활발히 돼 있어서. **이 믿음직한 직원이 추천해준 사람은 당연히 믿음직할 것이다**. 이런 기조 같은 게 깔려 있어서. 그래서 대학교 이름은 크게 진짜 중요하지 않고 기술 스택(stack)이 좋거나 영어를 잘하면서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N34, 1991년생, 31세, 남, 외국계 IT 기업 근무)

유형 1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안정적인 경로를 거쳐 현재의 지위에 안착하기까지 추첨제 사립유치원(N38)부터 서울이나 학군지로의 전학(N34. N38), 영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로의 어학연수나 교환학생(N25, N34, N38) 같은 지원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자녀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서 나아가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경험과 견문을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N38은 영국 어학연수 과정에서 경험했던 성취와 그 성취 과정에서 겪는 일정 정도의 어려움을 스스로를 돌아보는 '터닝 포인트', '살아남는 과정'으로 만들어 귀국 이후의 취업과 삶의 전망을 수립하는 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 그 **스무 살 초반이 많은 생각의 변화를 많이 줬던 또 변화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단순히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알바도 해보고 사무 같은 것도 해보니까 내가 다른 분야를 해보면 잘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N38, 1987년생, 35세, 남, 영국 런던에서 1년간 어학연수)

N25 역시 대학입시에 실패한 후 가족의 지원을 통해 서울 소재 유명 재수학원에 등록하여 재도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진학 후에는 학교 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생활을 경험했다. 취업 후에도 원가족에게 차량을 지원받는 등 지속적으로 물적 지원을 받았다. 상승이력 상위계층 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유형의 참여자와 비교하여 임금이 높고 고용 상태가 정규직인데다 원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빠르게 형성할 수 있다.

> 네, 학비를 이제 부모님이 대주셨고요. 어 그리고 교환 학생을 갈 때도 그 유학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현지에서의 학비와 생활비를 다 지원을 해주셨고. 취직하기 전까지는 다, 예, 지원을 해주셨죠.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나서는 제가 생활비를 많이 드리지는 못했고, 소량으로 성의 표현 정도로 드렸고. 부모님께서 **'생활비를 주는 것도 좋지만 저축을 많이 해라 그 돈으로'**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저축을, 생활비를 많이 드리지 않고, 저축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자취를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낼 때는 제가 모았던 돈으로 거의 대부분 했고, 대출도 일부 있고요. 근데 그때는 특별히 지원이 있지는 않으셨는데 **차량 같은 거 지원해 주시고.**(N25, 1989년생, 33세, 여, 대기업 공채)

지방 출신인 N34(1991년생, 31세, 남) 역시 서울에 직장을 구했을 때 가족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일부를 '빌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빌린 돈을 '갚는' 대신 더 조건이 좋은 전세집으로 이사할 때 더 큰 액수를 빌렸다.

보증금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갈 때 돌려줘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부모님 거만. 할아버지 할머니 거 말고. 부모님 거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다음 전세를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그럼 더 큰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거 돌려줘라 했는데, 못 돌려주고. 거기에 심지어 한 천만 원, 이천만 원을 더 얹어주셔서** 이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N34, 1991년생, 31세, 남, 외국계 IT회사 정규직)

서울로 직장을 구하는 초년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거나 친척 집에 기거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원가족이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이런 모습은 중하위계층(유형 3, N18, 유형 4, N03, N31)에서도 볼 수 있다.

안정적인 노동이력을 확보하는 데에서 나아가 직급 상승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인정을 획득해야 하는데, 이때 남성과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다르다고 N30은 진술한다.

사실 남자들은 **일을 사실 되게 잘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담배 피우러 나갈 때마다 같이 나가서 펴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든지, 술자리에 따라가서 끝까지 남아서 같이 보필을 해준다든지. 사실 이게 지금 진짜

> 20세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실 되게 먹히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사실 그게 좀 안 되기도 하고. **일단 여자 선배 자체가 없으니까. 끌어줄 여자 선배도 없을,** 저희 회사 임원 하나도 없는, 여자 임원 하나도 없거든요.(N30, 1982년생, 40세, 여, 금융기업 공채)

위 진술은 직급 상승 과정에서 특별한 어려움이나 불평등을 인식하기 어려웠으며(N37, N38) 오히려 공고한 연공서열제로 인해 '조직이 활력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남성 연구참여자들과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 사원, 대리, 과장까지는 자동 승급이고요. 과장부터는 뭐 평가를 해서 올라간다는데 사실상 그냥 연차로, 이제 미뤄줄 사람한테 평가 몰아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N37, 1992년생, 30세, 남, 금융계 공기업 정규직)

## 2. 정체이력 상위계층: 안정적 노동이력의 이면

'정체이력 상위계층(유형 2)'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은 앞에서 제시한 '상승이력 상위계층(유형 1)'과 원가족의 배경 지원이나 학업 성취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노동시장 진입 이후 경력이 정체되는 경험을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원가족의 지원을 통해 주요 대학에 편입, 해외 유학, 석사 이상의 학업을 수행하는 등 충분한 교육기회를 확보 하였으나 이후 경력 형성 과정에서 좌절을 경험하였거나(N10, N12, N16, N35), 성인기 이후 원가족 혹은 본인의 지위 하락이나 경력 정체(N21, N22, N26, N27 N29, N36)를 경험한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인 N29는 경력의 형성과 좌절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이제 무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갈 때, 알게 모르게 그런 뭐라고 그러지 유리천장 같은 게 있어가지고. **더 이상 제가 나아갈 수 없거든요.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걸 느끼고 나서는 굳이 내가. '그냥 나는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나의 즐거움을 찾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게 됐죠.(N29, 1985년생, 37세, 여, 은행 계약직 입사 후 준정규직으로 전환)

서울에서 나고 자라 현재도 강남 소재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N29는 소득과 자산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 '4년제-대기업 루트'를 계획하였다. 서울 주요 사립대 경제학과에 진학하였으나 본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 저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느끼는 실패감이 굉장히 컸어요.** (...) 그래서 되게 안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고 대학교에 갔는데, 갔는데 주변 친구들 너무 잘난 거죠. 아 '내가 정말 우물 안 개구리였구나'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되는데, 놀아요. 놀아서 학점이 그리 좋진 않았어요.(N29, 1985년생, 37세, 여, 은행 계약직 입사 후 준정규직으로 전환)

2000년대 중반에 대학에 입학한 N29는 졸업할 즈음 취업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눈을 낮추어야 했다. "대기업은 스카이(sky)가 우선"이라 차선책으로 증권회사 인턴으로 경력을 시작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예전이라면 입사가 가능했을 회사의 문턱이 높아졌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취업하기 어려웠다고 기억하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여자애들이 대량으로 취업이 잘 안 돼요.** 남자들은 취업이 또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막상 들어와 보니 들어와서 좀 있으면 결혼해. 육아휴직. 비우게 되거든요. **비용이죠.** 다 사실은. 회사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여자가 봐도 그래요. 물론 여자가 애기를 낳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 남자들은 **회사가 남자들을 그때는 더 선호했겠죠.** 그리고 여자들은 취업이 (TO가) 이제 작으니까 더 뛰어난 애들을 뽑겠죠. 그럼 제가 그만큼까지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N29, 1985년생, 37세, 여, 은행 계약직 입사 후 준정규직으로 전환)

두 곳의 금융회사 인턴을 거친 다음 N29가 지원한 일자리는 은행 무기계약직 중 창구 응대 업무(이하 '텔러')였다.

저보다 학력 아니 학점이 훨씬 높고 한 친구가 ㅇㅇ은행 텔러(teller)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가요(취업을 했어요). 그래 쟤도 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데 뭘 고를 땐가, 해서 제가 갑자기 눈을 낮추죠.** 그래서 텔러를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텔러라는 게 무기계약직이거든요. 그래서 정규직하고 약간 구멍이 다른 그런 걸로 문을 두드리게 돼요. 근데 거기는 바로 그냥 됐어요. 바로 돼서 바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갔는데 그때 저희가 그 텔러만 이제 해서 또 연수를 갔는데, 거기 연수 담당자가 그랬어요. **가장 높은 학력의 텔러다.**(N29, 1985년생, 37세, 여, 은행 계약직 입사 후 준정규직으로 전환)

연수 담당자의 말대로 '텔러'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직군이며, 종사상 지위도 계약직으로 서울 4년제 주요 대학 학력 소지자인 N29가 선택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선택은 경제위기에 따른 취업 시장의 경직에 따른 수동적인 대처라기보다는 원래 목표로 했던 금융권에 종사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꾀했던 연구참여자의 대응전략이라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가 여성이라는 점이 금융권 정규직 공채라는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과 동시에 '차선책'으로서 '텔러'의 "문을 두드리게" 하는 조건이 된다.

N29가 근무하는 직장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심사를 진행한다. N29는 전환심사를 준비하던 중에 실적을 내기 좋은 지점과 생활 인프라가 훌륭한 서울 강남 지점을 두고 고민했다. 그간 "우수한 텔러"로 인정받았기에 강남 지점에 남기로 결정했는데, 현재는 이를 경력이 정체되고 당초의 계획이 좌절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평가한다.

> 강남 지역본부로 발령을 내줘요. 안 그러면 제가 그만두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강남 지역본부로 갔더니 생각보다 빽이 너무 많은 거예요. **뒷배경이 우수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저 같이 정말 약간 서울 촌년 같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아무리 내도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이 안 됐어요.(N29, 1985년생, 37세, 여, 은행 계약직 입사 후 준정규직으로 전환)

정규직 전환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회사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는 것으로 회사 방침이 바뀌었으며, 이때 N29 역시 대상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 '정규직화'는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대신 공채로 입사한 직군과 별도의 직급과 승진 체계를 제시한다. N29는 연구에 참여하기 위한 인구사회 정보를 작성할 때 현재 자신의 종사상 지위를 '준정규직'이라고 기록하였다. '준정규직' 전환 이후 N29의 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을 상회하고 호봉제가 적용되어 꾸준히 상승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공채 출신과의 격차는 유지된다.

**엄청나게, 일하는 데 동력을 잃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한테 또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평판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하긴 하죠. 하지만 가끔 **현실에 부딪힐 때 되게 많죠.** 일을 열심히 안 해도 승진, 그냥 들어온 애들은 승진을 다 때 되면 시켜주거든요.(N29, 1985년생, 37세, 여, 은행 계약직 입사 후 준정규직으로 전환)

유형 2에 해당하는 다른 참여자들에게서도 비슷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경력정체는 일의 의미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높인다.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직급 상승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은연중에 경험하는 경우 일에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게 된다. 금융회사에 입사하여 지점 변경과 계열사 이동을 경험한 N22는 지방 발령을 일주일 전에 통보받아도 '조직에 충성하는' 직원이었다. 그러나 30대 중반 이후 자신이 교육했던 남성 부하직원과 직급이 역전되는 것을 경험한다. 그녀는 자신의 직장을 "진급과 나의 사회생활에 대한 커리어와 이런 거를 살짝 포기하고 그냥 내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기혼 여성으로서 그냥 다닌다라고 하면 괜찮은 회사"라고 냉소적으로 소개한다. 그녀는 현재 일에서 의미와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위험하다고까지 주장한다. 일은 그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상승이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 방어적으로 의미부여하는 것이다.

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인 거죠. 정말 그거 이상의, **일을 그거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N22, 1984년생, 37세, 여, 은행원)

유형 2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이 괜찮은 일자리로의 입직에 실패하거나 노동시장 내에서 경력이 정체된다는 점은 유형 4와 비슷해 보이지만, 대

학 진학이나 입직 과정에서 조기유학, 편입 혹은 대학원 진학, 해외 전문 직업훈련 학비 지원을 부모로부터 이미 충분히 받았거나(N10, N12, N16, N35), 현재에도 생활비 지원(N10, N12, N35, N36), 자산 이전(N22, N26), 사업체 지원(N36) 등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이 근무하는 직장의 대부분은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라 평가된다. 다만 직급 상승 혹은 업무의 주도성, 직장 내 인정의 측면에서 노동이력이 정체되기 때문에 일에서 의미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일부 연구참여자들은 출산육아기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일을 그만두는 것을 상상하게 된다(N29).

> 그냥 육아하면, 그냥 육아만 하겠다. 근데 아직 육아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직장 내에서는 좀 싫증도 있고 거기서 느껴지는 힘듦도 있어서**. 저희는, 이거는 좀 회사일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되게 공무원처럼 보장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육아휴직을 일단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고, 된다면 복직하지 않고 지금은 그대로 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N29, 1985년생, 37세, 여, 은행 계약직 입사 후 준정규직으로 전환)

일에서 겪은 좌절이 노동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2유형에 속한 모든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 이후 퇴직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니다. N27도 일에서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존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의 의미를 찾았다.

> 일은 해야 해서 하는 거. 엄청 즐겁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 꿈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뭔가 학교 다니거나 어릴 때 생각했

던 꿈은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하는 건데. 어 왜 이러지. [눈물] 지금은 **실은 좋아하는 거, 좀 재밌다고 느낀 그 작은 순간들을 위해서, 되게 싫다고 생각하는 걸 되게 많이 해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가 뭔가 내 자아 정체성, 나의 그런 존재를 이 사회 내에서 **어쨌든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N27, 1989년생, 33세, 여, 외국계 스타트업 마케팅업무).

## 3.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끝나지 않는 이행기

'상승이력 중하위계층(유형 3)'이 앞의 두 유형과 구분되는 가장 큰 지점은 성장 과정에서 원가족의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학업 및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고용지위 혹은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에서 시작했다는 점이다(N18, N19, N20, N24, N32, N33). 또한 몇몇 연구참여자는 성인기 이후에 원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N19, N20, N32, N33)에 놓여 있다는 점이 이후 설명할 '정체이력 중하위계층(유형 4)'과 비슷하지만, 본인의 경력이 상승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안정된 일자리로의 경력상승을 성취했지만 물적 자원이나 정보 부족, 인적 네트워크 결여 등으로 인하여 시간 혹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요하거나 방황의 시기를 거친 경험이 있다.

이 유형의 전형적인 사례인 N32는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중소기업과 계약직 일자리를 거쳐 외국계 기업 정규직 물류팀으로 이직한다. 경력 상승 과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점진적으로 진출하게 된 원동력에 대해서 N32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당시에 알고 있던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정보를 알았으면 더 현명한 초이스(choice)를 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정보를 몰라서 아예 생각해보지 못했던 커리어 패스(career path)가 바로 외국계였어요.** 외국계가, 차라리 처음부터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만 해도 외국계를 간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이력 같이 느껴지고 엄청나게 뭐 뛰어나야지 갈 수 있는 줄 알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시도조차 못해봤었는데. (...) 처음에 그냥 무역회사로 시작을 해서 이제 좀 길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보고 외국계로 이직을 했고, 그러면서 조금 그런 근무 환경이나 이런 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업무의 강도는 좀 더 많아진, 높아진 것 같고. 그리고, 그래도 좋은 점은 제가 **미래를 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상대적으로. 예전에 그냥 한국 회사, 수출 회사를 다닐 때보다는. 그런 면을 높게 보고 계약직을 하다가 이번에 사실 정규직으로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는 오히려 연봉을 깎아서 왔어요. 거의 한 오륙백[만 원]을 깎아서 오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규직이라는 기회가 저한테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초이스를 했고.(N32, 1988년생, 33세, 여,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

N32는 부모님이 경제적 곤란으로 생긴 불화로 이혼하였으며, 서울로 취업한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 이전까지 원가족과 생활을 같이하되 용돈은 스스로 해결했으며, 취업하여 원가족과 분리된 이후에는 가족 식사비 등을 비정기적으로 지원하였다. 유형 3에 속하는 연구참여자의 대다수는 취업 이후에 가족과 경제적으로 분리되었다고 진술한다. 이는 본인의 임금 수준이나 고용 안정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원가족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경제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과 함께 원가족 역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성인 자녀의 소득이나 자산까지 공유하려 하지 않는 태도가 결합된 결과이다.

제가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든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는 제가 알바를 하면서 용돈을 충당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본가에 같이 살면서 어머니가 어쨌든 저를 부양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월세든 식비든 그런 게 다 돈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는 비교적 분리한(독립적인) 형태가 되긴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어 뭐 작게는 용돈을 드릴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여전히 그래도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요청을 하시지는 않지만. 본인도 일을 하려고 하시고. 이렇게 **엄마를 만나거나 가족들을 이렇게 모였을 때 아무래도 저, 제가 돈을 내거나 그게 뭐 가족 식비든 뭐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지긴 했어요.(N32, 1988년생, 33세, 여,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

남성 N37 역시 부모와 비슷한 합의를 했다고 진술한다.

부모님과 개인적으로 약속을 한 게 부모님이 먼저 일단 저 대학생,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내 지원은 대학교가 끝이다. 그래서 본인들도 이제 **너한테 노후 자금 요구 안 할 테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지원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N37, 1992년생, 30세, 남, 금융계 대기업 재직 중)

N32가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4학기를 마친 후 1년 간 호주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와 대학 마지막 학기 3개월 간 캄보디아 해외인턴을 거친 후 서울에서 얻은 첫 번째 일자리는 직원이 6명인 물류 소기업의 해외영업 파트였다. N32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가장 크게 작용했던 두 가지 기준은 '해외와 관련된 일자리일 것', 그리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일 것'이었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일자리에 진입했지만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 어떤 업무는, 아, 예를 들면 전문대생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디벨롭(develop)이라는 측면에서 보지 않고. 예를 들면 그때 무역 회사에서 보면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그 포지션(position)을 좀 그렇게 보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예를 들면 **'한 이천이백만 주면 돼'** 그러면, 이거를 아무리 해도 돈을, **그 사람이 사천, 오천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사람을 바꾸면 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그 당시의 수출 회사에는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아,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N32, 1988년생, 33세, 여,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

유형 3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계약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구직 경로 역시 공채보다는 개별 기업의 상시 모집공고나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지원한다.

> 그때도 사람인, 알바몬, 이런 게 잘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아르바이트는 알바몬 보고, 제가 알바몬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한창 뭐 아르바이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 되게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로 들어갔다가 조금 더 길게 몇 개월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그 자리로 가게 돼서 몇 개월 하게 됐습니다.(N18, 1992년생, 30세, 여, 중견기업 물류팀 정규직)

구직 경로뿐만 아니라, 이직 횟수도 앞에서 설명한 상위계층으로 분류되는 두 유형과 차이가 있다. 유형 3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처음에 임금 수준이나 고용 안정성이 열악한 일자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직이나 전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이직이나 전직에 대한 열망이나 동기에 따라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이직하거나(N18, N19, N32), 같은 직장에서 고용상태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직급이 상승하거나(N24), 제한적이나마 호봉제 적용을 받아 임금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거나

(N20), 유망한 분야나 직종으로 전직(N33)한다. 게임회사에서 계약직 테스트유저 업무로 시작해 중견 게임회사 사업팀에서 정규직 프로젝트매니저(PM)로 직급과 연봉이 상승한 N24는 자신의 경력 상승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시작했을 때는 최저임금**으로해서 한 백육십(만 원), 백팔십(만 원) 이하인 월급을 받다가, 그다음에 한 1년 반 정도 했을 때 그 다른 팀에 있는 계신 분이 저한테 좀 사업부로 와서 일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주셔서 '재밌어 보이는데요', '그럼, 좋다' 이렇게 해서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인데 QA팀에 있다가 사업팀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16년도 9월에 이제 옮기게 됐고, 근데 그 옮기기 전에 임금 상승은 없었고요. 그냥 최저임금으로 계속 지내다가 원래 2년 계약 만기였는데 그 **1년 반 안에 다른 데로, 이제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된 거고(...) 정규직 되면서 **이천칠백(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9월에 정규직 됐으니까 원래 다음 연도에는 인상이 없을 거라 했는데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거 보고 실장님께서 올려주셔서 삼백(만 원)이 추가돼서 **삼천(만 원)**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정규직 입사하는 남자분들 월급이 원래 삼천(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이천칠백(만 원)으로 시작했던 거죠. 씁쓸함을 나중에 느꼈고, 그리고나서 거의 매년 운영, 게임 운영을 하다가 이제 사업PM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한 10% 정도씩 조금 조금씩 올라가서 올랐고,** (...) 재작년 그때 한번 게임 회사들이 현금이 되게 많다고 한번 세무조사 크게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팔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올려준 적**이 있어요. 그때 크게 올려줬거든요.(N24, 1989년생, 33세, 여, 게임회사 PM)

N24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유형 3에 해당하는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더 나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때 '어떤 일자리가 더 나은지'에 대한 내적 기준을 형성한다.

실제로 여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오히려 여기가 더 길겠구나'**라고 느꼈어요. 좀 더 내 커리어의 길이 길겠구나, 해서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약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뭐 정규직을 찾았어도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잘 주는 분위기다 보니까. 물론 그걸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제 정도 나이가 되면 아무래도 은연중에 이제 그런 육아휴직 계획이 있나 이런 것도 궁금해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한국 회사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커리어를 유지하기가 용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N32, 1988년생, 33세, 여,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

사실 광고홍보 이런 쪽이 되게 야근이랑 이런 게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항상 퇴근이 12시 이렇게 인데, 과장님은 항상 [새벽] 3시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내가 과장이 된다고 해도 맨날 저렇게 3시에 퇴근을 해야 한다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쪽은 나랑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내 시간이 너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뭔가 만족, 그러니까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게 너무 잘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지켜진 그런 분야에서는 일하는 게 '정말 나랑 안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4개월 만에 '이제 그냥, 저, 이제 그만 다니겠습니다'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N18, 1992년생, 30세, 여)

이 유형뿐만 아니라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어떤 일자리가 더 나은 일자리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그 기준을 바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는 것과 함께, '그 일자리에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능력 역시 필요하다고 진술한다. 대학 시절 기자를 꿈꾸며 '언론고시'반에서도 공부했던 N27(유형 2)은 자신의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여 다른 분야로 전직한다.

케이블 TV에서 한번 일해보고는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아, 그리고 제가 또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고 느꼈던 부분이, 그 업계에서 제가 뭔가, 그 뭔가 **학벌적으로 그리고 뭔가, 뭐 외모적으로 조금 더 내세울 것들이 부족할 수 있겠다.** 아무래도 이게 보여지는 방송 쪽에를 또 제가 또 원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차별화가 없을 수 있겠다. 그리고 차별화될 만한 경험도 없이 제가 그냥 너무 스트레이트로 졸업을 해버린 거예요. 뭔가 **이제 외국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그래서 좀 생각보다 빨리 좀 판단을 하기는 했어요.** 친구들도 '너, 그거 하고 싶어 하더니 왜 이렇게 빨리 판단했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이쪽 업계에서 공부도 하고, 또 일을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어떤 자원이 더 필요할 수 있는데 **내가 거기에 걸맞는 특출난 자원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라고 했던 게 이제 입시 컨설턴트였고.(N27, 1989년생, 33세, 여, 외국계 스타트업 마케터)

N32는 한국 중소기업 해외 영업팀 두 곳을 포함하여 총 6번의 이직을 거쳐 현재 외국계 회사 물류팀 정규직 일자리로 옮겨 올 수 있었다. 현재 직장에 대한 정보는 영어 스터디를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서 얻을 수 있었는데, 육아휴직 대체 일자리, 계약직 일자리를 거쳐 노동시장에 진입한 지 10년이 다 되어서야 현 직장에 정규직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출신대학에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았던 점, 도전의 기회 조차 알지 못했던 점이 이처럼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라고 설명한다.

만약에 지금 저희 대학교에서 저한테, 만약에 강연을 해달라, 만약에라도 그런 게 오면 저는 외국계 회사를 들어가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한 줄 알았고, 되게 어려운 얘기인 줄 알았고, 남 얘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냥 그 사이트를 좀 알아서, 그 사이트에서 예를 들면 **계약직이든 뭐든 도전을 해봤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 그런 **정보 면에서 되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N32, 1988년생, 33세, 여,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

경력상승 경로를 밟아온 유형 1과 3 여성 연구참여자는 경력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하급자를 관리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남성 위주 사업장인 게임회사에서 프로젝트매니저(PM)로 일하는 N24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제가 사업 PM이고, 이제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게임을 이렇게 고쳐나가는데, '이걸 고쳐주세요'라고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PM이 여자면 그 설득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한 다섯 번 넘게 얘기를 해야 '아, 예, 해줄게요' 약간 이렇게 하고. 이제 남자고 '너 좀 해봤어, 너 뭐 롤 티어 몇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너와 나가 남자고 너를 인정한 남자면, 그냥 약간 '우리 이거 하자' 이렇게 하면 그냥 한 번에 돼요. 그래서 이 설득이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인데 정말 오래 걸리는 거예요.(N24, 1989년생, 33세, 여, 게임회사 근무)

이 과정에서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여성 직장 상사의 필요성(N24, N26) 혹은 부재(N22, N25, N30)에 대해 유형 1~3 여성들이 지적한다. 직장 내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자신보다 5년을 먼저 걸어 간' 여자 선배가 없거나(N22), 이사회에 여성 사내이사(내부 승진을 통해 임원이 된 여성)가 없다는 언급이 있었다. 또 일만 잡고 가정과 육아는 놓친 여성 관리자거나(N25), 소수의 여성관리자가 존재하나 구조조정 시기를 버티지 못하거나(N26), '선후배 다 짓밟으면서 팀장한테만 충성을 다하는' 여자 선배(N30) 등에 대한 경험도 이야기한다.

3 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스스로의 힘으

로 자립을 한 경험과 그에 대한 자부심이다. 상승이동 경험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의 의미나 가치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에 따라 달랐지만, 강한 일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형 2와 차이가 있었다. 그 기반은 주거자립과 소비능력의 확보로 나타났다.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없었던 유형 3의 연구참여자들의 경력 초기 주거는 매우 불안정했다. N32는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명이 함께 주거를 공유하는 형태로 살았었다고 했고, N18은 친척 언니의 원룸에서 1년 이상을 함께 살아야 했다고 한다.

> 친척하고 한 2년 정도 살다가 거기 되게 원룸이고 방에 침대 하나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침대 하나로 끝이에요. 옷장 침대 이렇게였고 반지하고 이런 상태여서 **둘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어찌저찌 한 1년 반에서 2년을 같이 살다가 **'독립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독립한 지 4년째예요.(N18, 1992년생, 30세, 여, 지방 출신이나 서울에서 직장을 구함)

> 지금의 제 나이 정도 되는 언니들이 투룸을, 네, 해서 한 명을 이렇게 방을 빌려주는 그런, 여기서는 **하우스 메이트(house mate)**라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로 처음에 다녔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언제 옮길지 모르고 나아지면 그때 옮겨야지** 했는데 그 생각을 할 때부터는 이미 계속 옮길 때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월세로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집이 된 게 그 한 2년 하고 좀 더 전, 그때여서, 저한테는 의미가 컸죠. 제, **저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처음 가졌으니까**.(N32, 1988년생, 33세, 여,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

독립적인 공간 마련은 '상승이력 중하위계층'의 중요한 생애과업 중 하나이며, 30대 후반인 N20은 최근 원가족의 도움 없이 주택을 매수했다.

제가 이 집 매매해서 들어온 지 이제 한 6개월 좀 넘었어요. 근데 **전환기를 맞이하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서 이제 든든한, 물론 집값이 떨어지네, 어쩌네 하지만 **더,이상 이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개천에서 난 용' 출신이어서 화장실이 밖에 있는 단칸방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집에 대한 한이, 이렇게 막 맺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내려다보면 아 **'내가 이렇구나'라는 게 너무, 이제 눈에 보이는 자산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N20, 1985년생, 37세, 여, 2015년 이후 원가족 지원을 중단하고 분리)

이들은 주거안정과 독립을 통해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원가족과의 분리를 통해 '삶의 전환'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최근 자신이 한 가장 의미 있는 소비로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물건을 구입한 경험을 들었다.

최근에 인상적으로 산 거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보일러 가리려고 그냥** 시키다가 사실 보일러 가리는 건 3만 원짜리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이 돈이면...' 하다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그래서 **36만 원짜리 그림을 샀어요.**(N20, 1985년생, 37세, 여, 최근 주택 매수)

키우던 열 살짜리 고양이가 아파서 걔를 돌보게 됐는데 청소를 못하는 거예요. 걔 털이 많이 날려서 청소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로봇 청소기를 구십만 원짜리를 그냥 일시불로 한번 긁었거든요.** 그때가 가장 큰 저를 위한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걔가 되게 오래된 빌라를 닦으면서 굉장히 제 **가사 노동 시간을 많이 줄여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N24, 1989년생, 33세, 여, 1인 가구)

제가 이사를 하면서 이제 **제 공간을 마련하면서 쓰는 비용**들이 좀 많아요. 아시겠지만 뭐 TV를 사면 그게 비용이고. 최근에 건조기를 사

가지고 삶의, 어 사람들이 왜 건조기, 건조기 하는지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집을 꾸미는 데 요즘에는 좀 비용을 많이 쓰고 있고요.(N32, 1988년생, 33세, 여,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

## 4.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사다리 없는 일

마지막으로 '정체이력 중하위계층'은 원가족의 계층지위가 낮고 본인의 노동이력도 불안정하고 지위가 낮은 유형이다. 원가족의 지원이 없거나 처음 진입한 일자리가 임금수준이나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열악했던 상황은 세 번째 유형인 '상승이력 중하위계층'과 비슷하다. 그러나 조건이 더 열악한 일자리 사이를 널뛰거나(N01, N02, N04, N08, N17),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 고용 안정성을 포기하거나(N03, N07), 생계 유지와 고용 안정을 위해 원하지 않는 직무와 낮은 임금을 감수하거나(N05, N23, N31, N39, N40), 상황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과 이탈을 반복(N06, N11, N14, N23)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 유형의 전형적인 사례인 N02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그가 거쳐 간 일자리가 단기 계약직과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23곳이었다. 대부분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고용조건이 지나치게 열악하여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프로젝트 사원이라고 해서 되게 거창하게 해서 들어갔는데 되게 좋아서 계속 일하고 싶었지만 **계약직만 뽑으신다**고, 사실 6개월에서 8개월까지는 연장이 되긴 했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사람을 구하시지 않으셔서 안타깝게 일할 수는 없게 됐고요. (...) 공장에서 생산직으로도 일해봤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다 죽어 있는 분위기,** 그래서 되게 침체돼 있는 분위기고 계속 일만 하는 그런 분위기고, 근데 거기서 저도 일하면서 저까지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울한 사람이 아닌데 일을 하면서도 이게 재미가 없다, 졸리다,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여기서 희망이 있을까,** 물론 돈은 벌겠지만 재미가 없으니까 또 못하게 돼서 그만두게 되고.(N02, 1991년생, 31세, 여, 콜센터 근무)

이 와중에도 이들은 경력 상승을 위해 4년제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하고 뉴질랜드로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오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원가족을 지원하면서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했기에 괜찮은 일자리로 최초 진입하거나 상승 이동하기 어렵다.

저한테는 정보도 없었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조금 힘들게 살아서 이제 원래는 재수를 하고자 했으나, 같이 일이랑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아르바이트 8시간 하고.(N02, 1991년생, 31세, 여, 콜센터 근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더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했지만, 원가족을 지원하거나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이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위협받는다.

**모았던 돈도 다 이제 가족한테 쓰고** 그리고 그 생활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영국(워킹홀리데이 신청)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저축을 하고 자기 돈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돈이 없어요. 백만 원 정도 있는데 이제 이거를 지금 **투잡하면서 돈을 또 벌고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겨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치료비로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지금 작년에만 갑자기 500이 넘게 나왔고요. 대학병원에서 아직 치료 중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혀 갈라지는 것도

이제 또 큰 병원에 가보라고도 하셔서 응 대학병원에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또.(N02, 1991년생, 31세, 여, 콜센터 근무)

이 유형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 혹은 조건의 개선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작업장 내에서 업무의 자율성과 주도성, 임금 협상력 등을 상실한다.

병원이 아무래도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가 맞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일했던 데는 그래도 위탁이라고 하죠. 국가에서 위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호봉제가 있어서 쉽게, 쉽게 막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좋아요. 지금 여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데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이라는 건 없고, 거의 없고, 여기 계열이 좀 그런 편이고 그냥 올려주면 땡큐.**(N08, 1992년생, 29세, 여, 의원 근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클레임인데 위에서는 오케이 해버리면 저희는 조금 힘 빠질 때. 아마 그러면 솔직히 고객이랑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건 저희인데 이런 것까지 다 오케이가 돼버리면 앞으로의 그런 **고객님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막 다 해달라고 할 거고 우린 또 쩔쩔맬 거고,** 우리는 일단 안 된다고 했다가 위에서는 다 된다고 하는 패턴이 계속 눈에 보이니까 그런 거는 좀 불만이죠.(N04, 1981년생, 41세, 여, 백화점 판매직)

저임금과 불안정성, 그리고 노동시장의 하층에서 감수해야 하는 모멸감 등은 현재를 벗어나서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를 강화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소득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미래에 투자할 기회를 제약한다.

그냥 남들 하는 거 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냥 너무 이렇게 넘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솔직히 좀 되게 비관적이긴 하거든요. 이게 사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는 더 좁아지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어디 한 군데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지 심적으로 그런 안정도 되고 어떤 플랜(plan)도 짜는 건데, 그게 지금 생각만큼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이상은 남들 하는 만큼 하면서 그렇게 그냥 조금 물질적은 아니어도 마음의 여유나 그런 안정은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조금 **그렇게 막 낙관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싶어요.**(N14, 1988년생, 33세, 남, 보안업체와 식당 아르바이트 투잡)

반려동물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자격증 따기도 했는데. 근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당장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는 또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어떤 역할 책임감 이게 또 있고 하니까. 아 그리고 물론 고양이도 있고 반려동물도 있고. 근데 어쨌든 부모님이 그런 거 그러니까. 당장 달달이 그렇게 벌어야지만 사니까. 엄마도 그랬고. 그래서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쉴 때 인천에서 하는 청년 지원 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아 내가 이거를 20대 때 좀 더 많이 젊었을 때, 어릴 때 그 초반 사회생활 초반이나 그럴 때 알았으면,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신 직업훈련 이런 걸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근데 그때는 그거를 하는데 어쨌든 그걸 하려면 일을 하면서 할 수는 없고, 그거를 이제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여유가 없어. 누구는, 아 그래도 할 수 있으면 다 해, 이러는데. **그냥 계속 벌어야 됐어요. 어쨌든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적어도 계속 벌어야 돼가지고.**(N39, 1987년생, 35세, 여, 프리랜서 방송작가).

유형 4의 여성 연구참여자들은 직장 내 성차별을 더 노골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경험한다. 중소기업의 하위 사무직으로 노동시장에 입직한 여성들은 업무의 전문화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조직 체계 내에서 '커피 심부름' 등 여성화된 서비스노동을 받았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면접 시 결혼 계획에 대해 묻는 등 결혼하지 않은 30대 초반 여성 직원을 기피한다는 인상을 받거나(N13), 직장 내에서 여성다움을 강조하며 사업

주에게서 “그냥 백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거나(N01),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커피 서비스를 요구하는 등(N06, N13, N15) 직무 역량이나 내용과는 관련 없는 요구를 경험한다. N06은 지방 4년제 경영관련 학과를 졸업한 뒤 수도권 외곽의 중견기업에서 경리로 몇 년간 근무하다 퇴사했다. 이 회사는 경영관리부서 근로자 중 여성에게만 유니폼 착용을 강요하고, 고졸 여직원은 9년 동안 승진이 불가능한 회사였다. 성차별이 당연한 문화로 고착된 일터에서 N06 역시 하루에 스무 잔 커피를 타고 구내식당에서 직원 간식 준비에 동원되는 경험을 한 후 퇴사했다.

> **여자들의 진급은 정말 늦었어요.** 같이 입사를 남자랑 했어도 여직원 3년이 되면 대부분 이제 진급을 시켜주는데 남직원은 당연하게 진급을 시켜주는 진급 대상자가 되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 직원들은 그게 안 돼가지고 너무 부조리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 특히 이 회사가 오래된 회사였어 가지고 유리천장이 굉장히 두껍다고 느꼈던 게 여자에서도 가장 높은 직급은 과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후의 진급은 없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저는 느꼈어서 내가 여기 더 있다가는 좀 내 성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안주를 하면 나는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퇴사를 했죠.**(N06, 1993년생, 29세, 여, 경영회계관리 부서 근무 경력)

지금까지 개인의 노동시장 내 지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계층지위로 이어지는지 네 유형의 전형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청년기 연구참여자들이 사회이동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교육에서 노동으로 이행이라는 생애과정 상의 성취와 좌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면화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과 행위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살펴본다.

## 제2절 청년기 '가능성'의 신화와 이행기의 장기화

> 네, 이 정도로 좀 꿈이 많아요.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요, 열심히 사니까 뭐, 네, 더 좋은 날이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N02, 1991년생, 31세, 여, 콜센터 근무)

이 절에서는 중하위계층이거나 정체이력(저임금 불안정노동)에 속한 청년들(2~4유형)의 자기 해석과 미래 전망을 살펴본다.

### 1. 부모 등 지원자의 부재에 대한 원망

30대에 들어선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거를 회고한다. 불만족스러운 현재와 그러한 현재를 초래한 원인을 생각해보는 일은 당연한 수순이다. N03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하위계층 청년들은 부모의 방임, 무지, 무관심, 잘못된 안내 등에 대한 원망을 나타냈다.

> **두 분 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거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게 잘못은 아니니까 그래서 말로는 자유롭게 키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유로운 게 아니고 무관심이지 않았나, 아니면 **그 관심 자체가 어려워서 놓으셨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새는 조금 들어서.(N03, 1992년생, 30세, 남, 전문대 졸업 후 프리랜서 방송작가)

중하위계층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흥미나 적성보다는 관습적인 시선에 따라 고등학교 계열을 제안한다.

> 부모님 생각에는 실업계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실업계는 불량한 학생들이 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인문계로 갔으면 좋겠다'**라고.(N05, 1992년생, 29세, 남, 인문계고 졸업 후 이십 대 중반 전문대 진학)

그러나 이런 우려가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님을 N19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보육교사인 N19는 중학교 시절부터 직업 훈련을 염두에 두어 유아교육과가 있는 실업계(현재 특성화고)로 진학했음을 후회한다. 실업계 진학을 통해 특화된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대학 진학 이후에도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이 연계되지도 않았다. N19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한정된 직업군으로 진출하게 되는 실업계의 특성상 다양한 친구를 사귈 수 없어 사회적 네트워크가 한정되는 것이 큰 단점이라고 생각한다.

> 인문계를 가고, 거기서 여러 친구들 다양한 직업군을 갖고 있는 친구들 사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었어도 괜찮았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N19, 1986년생, 35세, 여, 보육교사)

그러나 자신의 가족배경을 비관하는 서사가 이 연구에서 흔한 것은 아니었다. 더 많은 청년들은 나이가 들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부모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성숙해갔다. 그러나 현재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해석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무능력이나 의지부족의 문제로 치환될 때, 성장과정에서 누리지 못한 부모의 지원과 지지에 대한 아쉬움이 강해지는 것이다.

## 2. '가능성'으로서 청년기의 역설과 불안정성의 심화

연구참여자들의 상당수는 현재에 불만을 갖고 있다. 이들의 객관적인 노동조건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청년'이라는 생애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 즉 현재를 개선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현재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추동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의 직장에 정착하겠다는 청년들보다는 다른 직장, 다른 직업, 다른 지역(나라) 등으로 이동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았다.

N18은 유형 3으로 상승이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일'(N18)을 찾을 때까지 탐색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한다.

>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고 싶은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예요.** 제가 잘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일로써 얻는 성취감을 저는 약간 느끼고 싶거든요. (...) 나중에 제가 정말 진짜 뭔가 이것도 이상적인데 하고 싶은 일을 꼭 찾아서 그 일로써 뭔가 좀 중심을 잡고 그리고 좀 살아가는 게 나로서 살아가는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N18, 1992년생, 30세, 여, 24세에 입직 후 3번 이직).

이는 학업 기간 및 교육에서 노동시장 내 안정된 위치로 이행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데서 영향을 받는다.

> 저는 항상 그냥 최근, 그냥 몇 년을 멀리를 내다보고는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해 그 해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서 공부할 때도 공부를 해야 됐고, 부양을 할 때도 부양을 해야 됐고, 그러니까 **너무 그 앞만 바라보고 거의 1년 이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30대 후반 이 생각을 누구나 할 법도 한데, 제가 이

렇게 **처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N16, 1990년생, 32세, 남, 지방대에서 서울 국공립대로 편입, 공무원 수험생활과 5번의 이직 경력)

지금 나이로 보면, 올해로 보면 약간 제가 정체기인 느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방황기,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시선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왜냐하면 그전 올해 1~2월에 아르바이트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조심스러워지고, 그래도 이제 서른이니까, 왜냐하면 다들 그래요. 나이가 서른이네요, 여자 나이 서른이면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라고 말하는 데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스스로는 좀 방황기라 생각하지만 제가 제 **전체적인 인생을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N06, 1993년생, 29세, 여, 최근 퇴사)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안정된 소득을 마련하는 시기가 지연되면서 자신의 선호와 취향을 파악하고 소비를 경험하고 자아를 탐색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시간 역시 지연된다. 이제 막 서른이 된 N18은 '아직은 더 놀고 싶다'고 말한다. 노동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잦은 이직과 취업준비 기간을 보내는 최근 세대들은 20대가 아니라 30대가 되어서야 사회적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시점으로서 '진정한' 청년기가 이제야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동안 되게 뭔가 힘들게, 계속 뭔가 돈도 없고, 맨날, 맨날 취업 준비만 해야 되고, (...) 그나마 **20대에 비해서는 뭔가 지금 돈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욕심을 낼 수 있잖아요.(N18, 1992년생, 30세, 여, 24세에 입직 후 3번 이직)

학업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4년제 대학 졸업, 공무원 시험 준비 등 노동시장 내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쟁적 문화의 만연은 괜찮은 일자리에 진입한 이후에도 현재 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준다. 연구참여자 중 소득과 고용안정성 측면 모두에서 가장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N38 역시 이러한 압박감을 토로하며, 그로 인한 불안이 크다고 말한다.

> 안정적인 만큼 또 뭔가, 어 막 **이렇게 치열한 경쟁이나 커리어 개발은 쉽지가 않은 곳**이라서, 그거에 따른 불안함이 있거든요. 뭔가 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남들은 이렇게 좀 더 정글에서 막 이렇게 살아남는데. 그러한 불안함이 있는 것 같고. 이건 약간 제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인데, 불안함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N38, 1987년생, 35세, 남, 금융계 공기업 근무)

그런데 이 제도적 불안정성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애과정 중 일과 삶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기간의 증가와 가능성의 증가'로 해석된다.

> 생산직에 자리 났더라, 거기 몸은 힘들지, 힘든데 한다 그러면 밖에서 돈은 꽤 벌어, 먹고살 만해, 이렇게 했는데, 대충 연봉 4천 정도 5천 되더라고요. 많이 받죠. (...) 근데 저는 이 아등바등 사는 거를 뭔가 그 기회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삶이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 있고, 이쪽으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이렇게 그냥 기계처럼 일만 하다가 저녁에 영화 한 편 보면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자고 주말에 일어나서 어디 여자친구랑 놀러 간다든가, **이런 트랙(track)의 삶을 아직은 제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N03, 1992년생, 30세, 남, 전문대 졸업 후 프리랜서 방송작가)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일하는 N03은 현재 자신의 불안정한 상황을 '기회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러한 기회를 계속해서 탐색하도록 이끄는 힘으로 성장욕구를 들 수 있다. 또한 탐색을 통해 근로 조건을 개선할 수 있을지 판단한다. 이때 근로 환경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와 일의 의미까지 포함한다.

> 첫 직장이고 서울에 있고 멀기도 했는데, **좀 사람 때문에 힘든 거를 못 참고,** 1년을 버텼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저는 '안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9개월 다니고 나서 다시 취업을 준비했어요.(N06, 1993년생, 29세, 여)

> 현타가 와서, 그래서 약간 그런데, 이게 돈이 적어서도 절대 아니었어요. 이렇게 돈이 적은 건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 적은 것도 상관없었고, 그다음에 파견직이나 계약직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의미가, 의미를 못 느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N16, 1990년생, 32세, 남, 공공기관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

> 제가 학교 밖을 벗어났을 때 '내가 이 임금의, 이 정도 근로시간에 확약받을 수 있는 직업이 있는가'라고 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 저는 이제 더 고학력으로,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또 밟아야 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더 공부하느냐 아니면 더 열악하지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느냐.'** 학교 밖을 벗어나면 저한테는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N20, 1985년생, 37세, 여, 기간제 교사)

N02 역시 자신이 하는 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단지 임금, 노동시간 등의 근로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교육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제가 뭔가 연구를 하고 있다든지 제가 공부를 한다든지, 그래서 좀 더 성장을 시키고 뭔가 결과가 있고 뭔가 좀 **교육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경험적으로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쨌든 경험이지만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없고, 내가 교육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N02, 1991년생, 31세, 여, 콜센터 근무, 23번 이직)

자기성장 혹은 성취에 대한 열망은 개인의 성취를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한정된 기회 구조 안에서 그러한 추동력이 원하는 삶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불안정성을 탐색의 과정으로 해석하면서 모든 책임과 비난을 '자아'가 감당해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

> 솔직히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는 왜 하고 싶은 일이 없을까.**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욕심 내가지고, '나는 이런 걸 꼭 성취해야 돼, 이거를 꼭 해내야 돼,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런 게 왜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좀 상담을 받아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발견을 하면 다 버리고 다 거기에만 좀, 정말 내가 배를 굶고 막 그러더라도 그런 것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을까.(N04, 1981년생, 41세, 여, 일본 어학연수 후 판매직 근무)

대학진학률이 높은 상황에서 대학교육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노동시장 내 안정된 일자리에 안착하는 것은 어렵다. 대학원 학위, 외국어 능력 향상, 해외 경험, 인턴십 등의 소위 '스펙(specifications의 약자)'이 필요하다. 문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 없이, 개인의 능력만으로 이러

한 '스펙'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전문직업훈련 과정, 공무원 수험 과정 등을 위해 생계나 구직을 위한 활동을 상당 기간 중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심층면접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는지' 질문했을 때 N31과 N35는 각각 '게으른 사람 그리고 꿈이 한정적인 사람', '성실한 사람,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 그냥 조금 **게으른 사람? 그리고 꿈, 꿈이 좀 한정적인 사람?** 네.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좀 활발했는데 어느 순간 좀 계속 나이 먹으면서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좀 있어요. (...) 요새는 좀 그래요. 제일, 자는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 잠드는 시간.(N31, 1987년생, 35세, 남, 24개월 간 노량진에서 경찰공무원 수험생활 후 포기)

> 저는 어떤 일이든지 주어진 일이 있으면 **단 한 번도 중도에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다들 이제 굳게 마음먹고 시작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런 걸 정말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어떤 것들이 주어지면 평생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장기간 꾸준히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실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해요.(N35, 1989년생, 33세, 남, 38개월간 미국 비행조종학교 수료)

N31과 N35는 경찰공무원과 민항기 조종사(파일럿) 등 공무원 시험 혹은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쟁에 참여했다. N31은 생계 등을 이유로 수험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택배 기사(자영업)를 거쳐 현재 자동차 부품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원가족으로부터 충분히 지원받았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리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N35가 3년간 2억 원가량이 드는 비행 조종학교 과정의 학비를 집

으로부터 조달할 수 없었다면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N31뿐만 아니라 N23도 실패를 자신의 게으름, 끈기 없음 등 개인의 성향 탓으로 여긴다.

> 한번 비싸게 배워본, 돈 넣은 게 있어요. 코딩 배우고 싶어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막 돌아다니면서 막 보던 게 있는데, 코딩 가르쳐준다라고 해서. (...) 하고 싶은 게(마음이) 갑자기 너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막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쫓아가서 배우고 싶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실행도 안 되니까, 계속 계속 스텝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포기하고) 나오면서도 울었는데.** 그게 줌(zoom)으로 배웠던 건데도 사람들을 잘 몰라요. 근데도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온다는 게 너무 슬펐는지, 그 상담해 주는 사람이랑도 울었단 말이에요. [울컥함]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왜 그때 포기했지라는 생각이** 또 지금 얘기하면서 또 드는데.(N23, 1987년생, 35세, 여,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간 생산직으로 일하다 퇴사)

20살 이후 동시에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스스로 비용을 마련해 1년간 뉴질랜드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으며, 10년간 사이버 대학에서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던 N02는 콜센터 근무와 간호조무사 일을 병행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성취를 얻어내지 못한' 것을 자신의 성격적 단점 때문이라고 말한다.

> 저의 단점은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데, **뭔가 깊게 계속해서 배워서 성취를 얻어내지 못한** (다는 거에요). '이건 조금 해봤어, 이건 조금 해봤어', 이건 있는데. 근데 물론 이게 **제가 엄청 계속 좋아하는 거면 그걸 계속하겠지만 아직 그걸 못 찾아서 그런 거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N02, 1991년생, 31세, 여, 콜센터 근무, 10년만에 사이버대 졸업)

### 3. 막힌 가능성과 탈출 계획: 해외 이주 또는 자영업

30대 초반 여성 연구참여자 중 몇몇은 해외로 이주하는 것을 막연하게 꿈꾸거나 계획하고 있었다. N06은 세 차례의 이직 후 현재 다시 구직 중이며, 마지막 직장 재직 당시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플로리스트 자격증과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 저는 약간 외국에 살고 싶은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카페도 한국은 너무 과포화 시장**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외국에서는 한 가지로 몇백 년을, 몇 번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기간이 저는 굉장히 짧다고 봐요. 유행도 너무 빨리 지나가고. (N06, 1993년생, 29세, 여)

20대에 뉴질랜드에서 1년간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했던 N02는 구체적인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인터뷰 당시 다시 영국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고 이주를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투잡'을 하고 있었다. 이주의 동기 역시 구체적이고 명확한데, 여유 있는 삶과 가족과의 단절이다.

> 그 일을 하는 목적이 그래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걸 통해서 경험을 얻으려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좀 **더 여유롭게 살면서** 돈도 여기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래도 여유 있게 벌면서 내가 절약하면서 살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가정과 이제 좀 연결이 덜 된다,** 한국에 있으면 물론 연락도 계속 자주 하고 하지만 이제 뭔가 계속 만나고 간섭을 해주시잖아요.(N02, 1991년생, 31세, 여, 부모와 동거 중)

중하위계층 정체이력의 30대 초반 여성들의 해외 이주 서사는 해외 생활의 동경이라기보다는 한국에서는 확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만들어진다. 이들에게 해외는 '여기가 아닌 어딘가'이다. 원가족과 가

부장제 등 기존에 여성이 벗어나고 싶었던 관계와 사회적 규범과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외를 상상한다. 이들은 30대 초반의 연령대를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기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30대 초반이라도 이력이 안정적이거나 상승 과정에 있는 참여자들은 장기간의 해외여행이나 해외 주재원 생활(N37)을 꿈꾸는데, 이력이 정체되어 있더라도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여성들은 해외 이주를 쉽사리 감행하거나 상상하기 어려워한다.

몇몇 연구참여자들은 해외 이주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퇴직 후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고민한다. 10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거치면서 회사생활에 적응하기 쉽지 않다고 느끼거나(N15),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건강에 위협(N20)을 느끼거나 더 이상 직장 내에서 승진 같은 경력 상승을 기대할 수 없어서 직장을 다니기 애매한 경우(N21, N22)가 이에 해당한다. 부산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넘게 직장을 다닌 N15는 부모와 동거하며 1억 원가량의 자산을 모았다. 그녀는 40세 즈음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과 자영업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 여기를 그만두면 다시 회사는 안 다닐 것 같아요.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조직에 이런 적응해야 되고. 다른, 항상 조직마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적응하는 게 지금도 사실 조금 힘든 것 같아요.(N15, 1988년생, 34세, 여, 사무직 종사자)

조직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 한 직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12년 동안 5회 이직한 N15에게 해고나 퇴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생애사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단순 반복 업무, 지나친 성과보상제도에 따른 업무과중 혹은 소진에 대해 특히 유형 4의 연구참여자들이 많이 언급하였다.

N20 역시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 그 사람들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에서도 더 열악한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자잘자잘한 성범죄 계속 이어져 오고, 소모품처럼 쓰이는 문제가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벌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조금 딜레마예요. 제가 이 일을 계속하려면 ㅇㅇㅇ이 일꾼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줘야되는데 당장 일은 너무, 이제 선을 넘어서서 몰아치고, 그럼 나는 이걸 어디까지 받고 어디서 끊어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좀 건강을 위협받는 문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N20, 1985년생, 37세, 여, 기간제 교사)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근속연수가 낮고, 채용이나 해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관행 역시 30대 후반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높인다. 이러한 위험들을 고려하면 30대 후반 연구참여자들의 퇴사 후 자영업을 자발적으로 선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지금 회사는 저보다 어린 친구, 한 30대 초반이 주류예요. 그러니까 뭐 큰 회사에 가더라도 보통 사원, 대리급이 가장 많으니까 주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다양성 자체는 좀 있었거든요. 연령의 다양성. 근데 이게 훨씬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근속연수도 길지 않아서 확실히 노동시장이 이렇게 작은 회사들의 노동시장, 작은 회사 정도의 노동시장은 뭐랄까. 어린 친구를 빨리 쓰고 버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본 그냥 다른 스타트업들도 보면은 근속연수가 짧은 게, 근데 이제 그게 서로 빠이빠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일하는 사람이 빠이빠이 하는 것도 있지만, **일하는 사람이 2년 정도만 일해도 '우리 이만 빠이빠이 하는 게 좋겠어'** 하는 소리가 나올 만한 환경인 거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제가 커리어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중이긴 해요.(N26, 1986년생, 36세, 여,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이직)

## 4. 성인 되기의 계층화

성인기 이행이 제도화되어 있던 시기에는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생애사적 사건과 상태변화가 성인 됨을 증명해주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성인 됨을 졸업, 취업, 결혼, 주거독립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일반적 상태로 이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성취와 연관짓거나(N03), 인격적인 성장과 관련된 것(N04)으로 이해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모두 공통적으로 결혼을 성인 지표에 포함하지는 않는다(결혼한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점이다. 이는 이미 2010년대 초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이다(김현주, 이선이, 이여봉, 2013).

> 직업적으로 뭔가 좀 안정적으로 자기 스케줄이 있고 이제 돈도 모아가면서, 이제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밟아가는 그런 정도가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N03, 1992년생, 30세, 남,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 책임질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의무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될 때도 있을 거고. 그냥 그런 게 어른이지 않을까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해야 되고, 내가 맡은 바 해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고.(N04, 1981년생, 41세, 여,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이처럼 성취와 성장의 지표로서 성인 됨은 과거의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성인 됨보다 더욱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비혼 상태에 있는 30대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결혼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성취와 지위, 그리고 인격적인 성숙 면에서 완전한 성인이 되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

> 아마 열여덟 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0년 뒤에는 이라고 생각하면서라고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른여덟에는 뭔가 이루지 않았을까, 그게 꼭 막 엄청 대단한 일이라기보다는 그것이 가정이든 일적으로 커리어든, 그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뭔가 해냈든, 그 어떤 것이든 서른여덟에는 뭔가 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했었거든요. 살아보니까 **서른여덟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이를 먹었을 뿐이고.** 저는 서른여덟이 되게 뭔가 의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딱히 의미가 없었어요.(N22, 1984년생, 37세, 여, 정체이력 상위계층)

그러나 성인 됨의 객관적인 지표 중 '취업'은 두드러진 의미를 갖고 있다. 직업과 소득을 갖고 있는 현재 상태는 적어도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는 의존적 '아동청소년기'와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N09는 한편으로 "목표한 회사에 들어와서 소득수준을 올렸으니까" 어른의 1단계는 충족한 것 같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소득으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된 것 같다고 말한다.

> 어른이 완전히 됐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1단계는 이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표한 회사에 들어와서 그래도 소득 수준을 올렸으니까요.** 근데 아직 앞으로 한 제가 목표한 예를 들어 5단계 어른까지 있다면 이제 1단계 정도니까 아직도 더 성장을 해야 되는 어른인 거고. 그리고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돈을 좀 이렇게 쓰는 입장에서의 어른을 생각을 한다면 되게 어른 같아요**(N09, 1992년생, 30세, 여, 상승이력 상위계층).

반면, 현재 일자리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노동이력의 부침을 많이 겪은 참여자들은 자신이 어른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N03은 생산직이더라도 대기업에 정착한 친구를

두고는 어른으로 여기는데, 꿈을 쫓는 사람으로 간주되는 자신은 어른으로 취급받기 어렵다고 한다. 모델을 지망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벌고 있는 N07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다. 자신은 어른이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직업이라든가 결혼여부라든가 외부적인 조건을 따진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한 이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상처를 받고 위축된다. 어른됨이 곧 존중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똑같이 200을 받는데 이 친구는 삼성전자 계열사에 다니는 생산직이다, 이 친구는 프리랜서다. 이러면 뭔가 얘는 좀 철이 덜 들었네, 이 친구는 열심히 하면 돼, 잘했네. 이렇게 약간 그런 안정적인 부분들, 직업적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성인으로 인정하는 게. 어 그다음 결혼은 요새 잘 포함되는 것 같지 않아요.(N03, 1992년생, 30세, 남,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 저는 지금도 계속 어린애 같단 얘기 많이 듣거든요. (...) 저는 그 기준보다 생각이 깊고, 말조심할 줄 알고, 막 그런 이해력이 높은, 그런 내면적인 거. 그런 걸 더 성숙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외면적인 걸 더 보는 것 같긴 한데, 직업적인 거랑. 지금도 결혼한 친구들은 자기도 애기같은데 결혼생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걔네도 자기가 애기같다고 하는 거는 직업적인 걸 떠나서 내면적인 걸 말하는 것 같아요.(N07, 1992년생, 29세, 여,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아울러, 성인 됨이나 성장과 같은 생애사에 대한 직선적인 시간관과는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N02는 솔직히 자신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어른이 되는 것은 의

무에 종속되는 것이고,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는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맞춰주는 것으로밖에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은 이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맞춰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 근데 그런 마음을 **맞추기 싫은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냥 막 맨날 이거대로 살아, 저거대로 살아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저는 아이 같은 면도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N02, 1991년생, 31세, 여,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과거에는 노동계급 또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중산층 청년들에 비해 일찍 성인이 되었다. 노동계급 청년들은 일찍 노동시장에 나와서 돈을 벌고 일찍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성인 됨('어른 됨')은 졸업, 취업, 결혼 등으로 이행하는 것을 통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단지 일자리를 얻는 것으로 생활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졸업, 취업, 결혼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객관적인 성인기 지표 대신에, 성취와 성장을 강조하는 성인기 인식이 확산된다. 성인에 대한 변화된 인식은 중하위계층에 있거나 노동시장 정체이력을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특히 불리하다. 연구참여자들의 복잡한 이직경로와 짧은 근속기간, 그리고 비정규직의 저임금이라는 노동경험 특성은 이들이 일찍 일을 시작한 것과 달리 성인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젠더-사회계층의 교차성에 놓인 여성들은 사회적 인정과 개인적 만족의 결핍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적인 심리적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유사한 사회계층적 불리함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남성과 달리 여성들은 '의미'와 '인정'의 결핍에 대해 더 민감한 경향을 보였다. 그

런 경험들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기라는 끊임없는 탐색을 추동하기도 하고, 소비에 의미를 담아 '자기를 위한 소비'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되고 있었다.

이 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들은 고교-대학-구직-취업-이직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일자리에 도달해 있다. 높은 노동강도, 낮은 보상, 장기근속의 유인 부재, 성차별 등은 청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직을 시도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되고 있었다.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자신의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하고자 현재에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모색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현재의 지위를 수용하고 적응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안정된 직장과 괜찮은 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상위계층 청년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중하위계층 청년들은 여전히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거나, '지금보다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식으로 현재에서 더 나아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4장에서 살펴볼 '가족'(결혼과 출산)에 대한 중하위계층의 비관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와 대조를 이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의 정체성은 일(소득활동)과 가족을 모두 통합하고 있지 못하며, 이 중 하나를 더 우선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을 더 우선시하는 태도는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태도, 물질주의(소비주의) 등으로 해석되며, 이 연구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경제적 성취 그 자체보다는 성장의 가능성, 자아의 발견과 실현 등과 관련된 욕구를 더 강조했다. 이는 주로 간호조무사, 텔레마케터, 판매원, 소기업 하위사무직 등 여성들의 일자리가 갖는 성격과 관련되어 있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를 바라는 청년들의 태도에는 부

정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노동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현재에 대해 부모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통해 설명하는 특징을 보였다. 고교와 대학 등 노동준비기에 충분한 동기부여와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기성세대(부모)와 교육기관(학교와 선생)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에는 충분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현재의 자신에 대한 비난도 포함되어 있다. 끈기있게 도전하지 않았다거나 남들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열정을 쏟을 일을 찾지 못했다는 서사들은 현재의 일에 불만족하는 많은 청년들이 이 사태의 책임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인 책임의 서사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거나 좀 더 끈기 있게 도전한다면 현재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와 연결되었다. 이러한 개인화된 대응전략은 '가능성'이라는 청년기의 신화와 함께, 불안정한 청년기(이행기)를 계속해서 연장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장에서 유형화한 계층-노동이력의 유형을 틀로 삼아, 이러한 노동이력과 경험의 서사가 가족형성 전망 및 태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4장

## 계층유형별 결혼 전망과 결혼 지연의 의미

제1절 청년세대의 결혼 전망 형성과정: 결혼 가능성과 결혼기대
제2절 계층유형별 결혼 전망: 동질혼과 성역할 전망
제3절 성별화된 결혼 지연과 새로운 가족형성의 전망

# 제4장 계층유형별 결혼 전망과 결혼 지연의 의미

이 장에서는 심층면접 자료에 기초하여 청년세대의 결혼에 대한 의식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결혼의식은 결혼 전망과 결혼 지연의 동기를 통해 파악한다. 3장과 마찬가지로 4개의 계층유형과 성별에 따른 차이에 주목한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규범에 대한 태도('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나 결혼의향('결혼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보다는, 결혼 전망(결혼 가능성과 결혼생활에 대한 예측적 기대)과 결혼 지연이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1절에서는 결혼 전망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2절에서는 계층별 결혼 전망을 분석하며, 3절에서는 결혼 지연의 동기를 분석한다.

## 제1절 청년세대의 결혼 전망 형성과정: 결혼 가능성과 결혼 기대

### 1. 연구참여자들의 계층유형과 결혼 전망 개요

40명의 비혼 연구참여자들을 결혼 전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먼저 3명의 연구참여자(N08, N16, N40)는 성인이 되기 전부터 결혼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현재에도 그러하다.[8] 이를 제외한 나머지 37

8) 이 세 사례의 '비혼주의'는 아동청소년기 가정폭력과 학대 경험, 비이성애적 섹슈얼리티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비혼주의 자체를 다루는 것은 이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는다.

명은 20대 초반 무렵에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했다.

그러나 결혼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생애과정의 일부로 생각했던 연구참여자들은 20대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결혼지향과 결혼 가능성 면에서 서로 다른 집단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과정을 결혼에 대한 규범적 태도가 '현실적' 태도로 변화한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언제 결혼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할 것인가, 결혼을 하기 위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비롯하여, 필요한 자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자녀는 필요한가, 자녀를 낳는다면 부부는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가 등으로 태도가 구체화된다. 이 과정을 통해, 어린 시절 갖고 있던 결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나 규범적 태도는 '결혼 가능성'과 '결혼시기'의 문제로 전환된다.

3장에서 구성한 4개 유형과 결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위계층 출신(1유형과 2유형)이거나 상승이력(평균이상의 임금수준)(1유형과 3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을 희망하고 본인의 결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1~3유형의 참여자들 중에서 결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은 모두 30대 후반 이상의 여성 참여자들이었다(N30, N12, N20, N21, N22).

결혼 가능성이 희박하다거나 반쯤은 포기했다고 진술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정체이력 중하위계층(4유형)에 속한 남성과 여성이었다. 15명 중 결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참여자는 커플이 함께 연구에 참여한 N07과 N23뿐이었으며, 15명 중 나머지 13명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았다.

현재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결혼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된 이유였지만,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한다고 해서 결혼 가능성에 낙

관적이지는 않았다. 현재의 소득과 자산으로는 목표한 결혼자금(특히 주택구입이나 임대를 위한 돈)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유형의 남성 참여자들은 다른 유형의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가정을 이루는 '생애과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상당수의 4유형 남성들은 앞으로 몇 년간 돈을 모을 수 있으면 그때 결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했다(N03, N05, N06, N17, N37). 이들의 결혼 지연은 현 시점에서의 결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감수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지연이면서, 목표로 한 결혼자격을 갖추기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갖는다.

이와 달리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여성들은 경제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남성과 다르지 않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혼을 달성해야 할 과업으로 여기는 것과 달리, 결혼을 우선적인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4유형의 여성들은 다른 유형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지금이 좋다'거나, '결혼이 일 순위는 아니다'라며, 다음 국면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적극성은 강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양가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그런 점에서 4유형의 여성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장 결혼하기에는 갖추고 있는 자원이 부족하지만, 현재의 '비혼 기간'을 갖는 것 그 자체도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성들의 결혼 지연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당장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것이지만, 결혼자격을 갖추기 위한 시간벌기의 의미보다는, 결혼에 수반된 변화를 최대한 미래로 연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남성과 차이가 있다. 여성들의 결혼 지연은 시간 한정적인 성격을 갖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긴 30대에 속한 사람들로서 결혼을 언젠가는 하고자 하지만 당장 할 의사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37명의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결혼을 지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비혼남성과 비혼여성들이 결혼을 미루는 행위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지연 행위는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가족'에 대한 개개인들의 판단에 기초하고 있었다. 지역, 성별, 나이, 직업, 계층, 그리고 개인적 성향과 경험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놀랍도록 유사한 모형의 가족생활을 그리고 있었다. '안정된 직업과 소득, 자산을 갖춘 가족경제'라는 경제적 기반 위에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양책임과 양육책임을 부부가 나눠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종적인 부양책임은 남성에게 있고, 양육책임은 여성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남성은 부양책임에 대한 경직적 태도, 여성은 양육책임에 대한 경직적 태도를 더 강하게 갖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이 처한 상황과 가치 지향이 전형적 결혼모형과 괴리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결혼 가능성에 대한 판단과 결혼 지연의 동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지향에 맞게 가족생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없었다.

## 2. 초기 성인기의 결혼 전망과 결혼시기에 대한 전망

지난 20여 년 동안 결혼율이 크게 하락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규범에 대한 태도에서도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 2022년 현재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인구의 절반에 불과하며, 미혼남성과 미혼여성은 그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2022. 11. 16.).[9)]

9) 2022년 전체 인구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2020년보다 1.2%p 감소한 50.0%였으며, 이 중 미혼남성과 미혼여성은 '결혼을 해야 한다'에 각각 36.9%, 22.1%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2022, 11. 16., p.12).

그러나 결혼을 당연하고 의무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결혼을 거부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연구에 참여한 미혼남녀 중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미래의 결혼을 희망하고 있었다. 특징적인 점은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혼 역시 현실적인 선택지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결혼 전망과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 무렵에 갖고 있던 결혼에 대한 태도나 기대에 대한 회고적 응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갖고 있던 결혼에 대한 전망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미래의 결혼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초기 성인기의 결혼 전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비혼의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연구참여자들의 (비혼 가능성을 포함하는) 현재 결혼 전망이 성인이 된 이후의 자기 경험과 사회인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초기 성인기의 결혼 전망은 대체로 규범에 대한 순응적 태도와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에 의해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은 당시에 결혼이란 당연히 하게 되는 일, 즉 의식적인 계획이나 노력, 그리고 자격을 통해 얻는 지위와 성취라기보다는 때가 되면 당연하게 해야 하고, 하게 되는 일로 이해하고 있었다.

> 나도 당연히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애 낳아야지라고 되게 생각을 하다가.(N27, 1989년생, 33세, 여, 정체이력 상위계층)

>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중에 저렇게 돼야겠지.** 저렇게 되겠지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 그냥 남들처럼 살겠지. 뭐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N30, 1982년생, 40세, 여, 상승이력 상위계층)

무조건 결혼한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결혼 안 하면 큰 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라왔다고 해야 되나 제가 살아왔을 때.(N15, 1988년생, 34세, 여,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또한 결혼을 성인으로서의 성장과 성취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이해하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결혼은 동떨어진 생애사건이 아니라 취업을 하고 돈을 버는 성장 과정의 일부이면서, 그러한 개인적 성장(성숙)의 결과물인 '번듯한' 생활양식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기대는 가까이는 부모와 친족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재생산되어 왔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은 성인으로서의 삶에서 결혼이 확고한 하나의 일부가 되어 있으리가 기대하고 있었다.

당시에 꿈꿨던 가족은 제가 주체적으로 꿈꾸고 이랬다기보다 그냥 남들 하듯이 그러겠지 하는, 어떤 **그냥 제가 보고 미디어에서 보고 주변에서 본 것에 의해서 그러려니 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N26, 1986년생, 36세, 여, 정체이력 상위계층)

학교 다닐 때 (기대하기로는) **누구든지 집을 사고 누구든지 차를 사고 가정도 뭐 있겠고 근데 결혼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그때쯤이면 결혼도 했을 수 있겠고 아이도 있을 수 있겠고,** 그냥 전반적인 가족의 형태를 이루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는 돈은(인데) 그래도 잘 벌고 있겠다, 행복하겠다, 여행도 가고 뭐 하겠다 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N02, 1991년생, 31세, 여,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사회에서 흔히들 이제 서로 얘기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뭐 직장 갖고 그러면은, 한, 그래도 그거를 숫자로 생각하면 그래도 **한 서른 그렇게** (되면 결혼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 뭔가를 이루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로이기도 하면서 성취이기도 하고 꿈이기도 하고. 서른 (...) 그 정도면 안정이 될 줄 알

> 았어요. 열심히 하면 안정이 될 줄 알았어요. 결혼이든 일이든.(N39, 1987년생, 35세, 여,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초기 성인기 결혼 전망의 두 번째 특징은 성별에 따라 결혼시기에 대한 전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결혼 전망을 이야기하면서 결혼시기에 대한 전망도 함께 진술한 사례는 주로 여성 참여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수이지만 남성 참여자들 중에도 결혼시기에 대한 전망을 가진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N38은 "어렸을 때는 무조건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는 결혼에 대해 규범적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한다. 또한 N37은 졸업, 취업, 결혼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20대 중반이면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고 했다.

>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통념적인 생각으로 그냥 **오히려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고,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다.** 근데 뭐 깊게,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N38, 1987년생, 35세, 남, 상승이력 상위계층)

> 20대 초반에는 사실 연애 경험도 없었고, 그냥 막연하게 아 **대학 졸업하고 빨리 취업하면은 20대 중반이면 가정을 꾸리겠구나**라고 막연한 생각을 했었는데.(N37, 1992년, 30세, 남, 금융계 공기업 공채 3년차,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여성 참여자들에게는 결혼 전망과 결혼 시기에 대한 전망이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결혼에 낙관하더라도 결혼시기에 대해서는 대략 30대 초반 이후가 적당하다거나, 빨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시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

었다(N25, N27, N13, N21, N24). 다시 말해 졸업이나 취업한 직후를 결혼 시기로 생각하거나 빨리 결혼하고자 했다는 여성들은 없었다. 결혼을 정상적인 삶(normal life)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 그 자체에서의 성차(gender difference) 보다는, 이상적인 결혼시기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성차가 더 두드러진다.

연구자들은 초기 성인기에 갖고 있었던 본인의 결혼 전망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그때 지향했던 가족의 모습을 몇 가지 시각적 유형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선호와 이유를 질문하였다(비네트 기법, 1장 연구방법참조).[10] 다양한 유형의 생활형태(가족형태)를 제시함으로써, 부부의 형성, 부모-자녀관계의 형성에 대한 기대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했다. 여성 참여자들은 단지 자녀의 존재여부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 남편과 아내가 모두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는가, 2) 남편과 아내가 모두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가, 3) 생활수준이 현대적이고 윤택한가 등의 기준을 가지고 제시된 그림 각각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에 따라, 우선순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남녀 응답자 모두 초기 성인기에 기대했던 결혼생활의 형태는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차 생애경험이 누적되어 가면서 결혼에 대한 태도는 변화를 겪는다. 구직, 취업, 연애, 여타 사회적 경험을 해나가면서 체득한 지식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그리고 자신의 개인적 노동이력과 성취 등을 종합해나가면서 현실적인 결혼태도를 갖게 된다.

10) 비네트조사는 심층면접조사 중반부에 도입되어 모든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N24부터 비네트조사를 실시했다.

## 3. 결혼 지연의 사례: 불확실성과 '아직 때가 아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결혼 탐색을 시작하는 시점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직후가 아니라 이처럼 자신의 노동시장 지위가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들어섰다는 판단이 들 때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신혼부부가 현재 배우자를 만난 시점은 대부분 직장에 들어간 이후로 나타났는데, 이는 커리어를 확정지은 후에 배우자 탐색을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최선영, 오신휘, 박종서, 2020). 오펜하이머(Oppenheimer, 1988)가 주장했듯이,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강한 시대에는 더더욱 결혼 탐색의 시점을 뒤로 미루게 된다. 자신의 커리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배우자 탐색의 기준을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N03(1992년생, 남)은 현재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다. 지방전문대학을 졸업했고 졸업 후 대학 소재지에서 일을 시작한 후,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서울로 이주했다. 현재 하는 일은 불안정하고 임금도 낮은 수준이다. 그는 지금이 자신의 지위와 소득을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결혼은 5년이 지난 후에 생각해보겠다고 한다.

N16(1990년생, 남)도 유사하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공무원·공기업 수험생활과 학원강사로 오랜 기간을 보낸 후 현재는 지방대학에 계약직으로 사무노동을 하고 있다. 수험생활 중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자신의 커리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여자친구를 결혼상대로 확정짓는 일이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 **이 친구가 나를 기다려주면 사실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어쨌든 공기업을 붙든 안 붙든 붙는다면 결혼을 당연히 생각을 하는 게 예의고, 인간 사회적 예의인 것 같고. 물론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안 하면, 안 하면 얘도 좀 그럴 것 같은 거예요.(N16, 1990년생, 32세, 남, 정체이력 상위계층)

N14(1988년생, 남)는 부산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다. 첫 직장은 제조업 생산직이었으나 (핸드폰) 판매직으로 이직했고, 조리학과 이수 후 요리사, 그리고 다시 사이버대 경찰학과 졸업 후 보안요원으로 직업을 바꾸어왔다. 전문대 게임학과 1년을 마친 후 군대를 다녀왔고, 2010년 제대 직후 복학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여러 직업을 거쳐온 탓에, 임금은 여전히 200만 원 초반 수준이다.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는데, N16과 유사하게 N14도 큰 부담을 느끼고 대답을 회피했다고 한다.

N21(1983년생, 여)은 20대 후반에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결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헤어졌다.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으로 젊은 시절이 종결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자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도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도 찾기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 전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라는 여성들의 이야기에는 결혼이 곧 '제약'으로 간주되도록 만드는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맥락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 이력이 복잡했던 여성들은 구직과 이주를 반복하면서 힘든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안정된 일자리와 괜찮은 소득을 향유할 수 있는 얼마간의 기간을 갖고자 한다.

> 그때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어느 정도 서울 생활이 익숙해지고, 그때 한참 이것저것 놀기도 하고, 뭐 하면서 이 서울 생활의 재미있는 것들을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 그동안 약간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 **이 상태에서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일단 그 당시에는, 결혼하면 나는 분명히 일 안 하고 그리고 뭔가 아기를 낳고 뭐 하고.**(N21, 1983년생, 39세, 여, 정체이력 상위계층)

> 지금은 제가 구직 중이니까 저도 이제 새로 들어가면은 적응하는 시기도 필요하고 이제 모아둔 돈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목표한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모아야지, 저는 좀 안정적이게 결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N06, 1993년생, 29세, 여,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N18도 유사한 입장에서 자신의 20대를 회고한다. '치열했던' 20대를 보냈는데, 곧바로 결혼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복잡하고 불안정했던 긴 이행기는 결혼만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삶도 함께 지연하기 때문이다.

> 멋있는 말은 못 할 것 같고, 그냥 돈 때문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 보니까. 근데 뭔가 취업도 잘 안 되고, 내 능력이, 내 능력은 뭔가 한계가 있고. 근데 돈은 벌어야 되는 거니까 되게 작은 일들을 치열하게나마 막 이렇게 하고 (...) 나도 조금 더 놀고 즐기고 싶어 하면서 근데 돈은 없어. 그래서 돈은 또 열심히 벌기는 벌어서 생활은 또 유지는 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하나를 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되게 풍족하지 않은 그런 치열했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20대는.(N18, 1992년생, 30세, 여,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 제2절 계층유형별 결혼 전망: 동질혼과 성역할 전망

연구참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태에 더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된다. 과거와 달리 결혼이행이 명확한 연령 상한선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연령구간에 진입하면 자신의 결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계층지위에 따라 결혼 전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비슷한 계층'의 사람과의 결혼을 선호한다고 말하는데, 상위계층과 중하위계층의 각각의 결혼 전망을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동질혼 지향이 갖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연구참여자들의 계층에 대한 자기인식을 살펴보고, 계층별 동질혼 전망의 특성을 파악한다.

여기에서 동질혼(homogamy)이란 그 상위개념인 선택혼(assortative marriage)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선택혼은 배우자의 지위가 본인의 지위보다 더 높은 승혼, 반대로 배우자의 지위가 더 낮은 강혼, 그리고 배우자의 지위과 본인의 지위와 같은 동질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상위계층의 낙관적 결혼 전망

### 가. 계층 동질혼 추구와 결혼에 대한 낙관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비슷한 계층'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첫째, 상대방의 계층을 고려하여 선별하는 행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둘째, 상대방의 계층이 자신의 계층적 지위보다 높거나 낮은 것보다는 유사한 사람을 선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먼저 계층을 선별하는 행위의 필요성에 대해 상위계층 연구참여자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결혼이 개인 간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가족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N10(32세, 여)은 배우자의 계층적 수준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결혼 이후 양측 가족과의 '융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N25(33세, 여)는 결혼은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

에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부모님도 현재 N25의 결혼에 관심이 많은데, 언제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녀 본인이 "생각하는 게 같기 때문에"(N25) 큰 의견 대립을 겪지 않는다고 한다.

> 뭐 만난 사람 없니, 뭐 누구 만나고 있으면 뭐 그 집은 뭐 뭘 하신대, 집안을 물어본다거나 뭐 좀 관심이 많으세요. 저의 연애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저는 되게는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좀 반감이 있었어요. (...)** 전에는 이제 어머니가 '교회에 누구 아는 분 누구 집사님네 누가 괜찮은데 만나볼래?' 하면 막 싫다고 그랬거든요. 요즘엔 '아 어떤데?' 이러면서 오히려 제가 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부모님하고 저하고 조금 표현의 방식이나 그런 게 달라서 그렇지.**(N25, 1989년생, 33세, 여, 상승이력 상위계층)

N09(30세, 여)는 상대방 부모의 경제력 때문에 헤어진 경험을 갖고 있다. 그녀는 연구참여자들 중 상위계층에 속하고 상승이력을 가진 1유형으로 분류되었지만, 자신이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형편이 어려운 사람과는 결혼으로 인한 계층하락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한다.

> 만약에 **제가 금수저였다면 경제적인 그런 여건은 전혀 안 따지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결혼했겠죠.** 예를 들어 대학교 때 만났던 그 남자친구랑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죠. '엄마 나 얘랑 결혼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엄마가 그냥 다 돈을 대줬다면 (경제적인 것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남자랑 살았겠죠. 그랬을 거 같아요.(경제적인 것은 결혼에) 무조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N09, 1992년생, 30세, 여, 상승이력 상위계층)

N34(31세, 남)도 배우자 부모님의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부모님 자신에 대한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였다. 그는 이 조건이 "제(자신의) 주변에서는" 평범한 조건에 불과하며, 평범해 보이지만 "마음 놓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계층을 선별하여 배우자를 만나는 흔한 방식 중 하나가 '소개팅'이다. 30대 비혼자들의 결혼은 주로 소개에 의존하여 탐색이 이루어지는 데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에는 소개를 통해 이성을 만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N38(35세, 남)은 현재 매달 한번씩 소개팅을 하고 있는데, 상위계층에서는 소개팅과 계층적 동질혼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소개팅은 확실히 조건 같은 거 보잖아요. 이제 아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니까. 서로를 판단하기에는 스펙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으니까 그만큼 기대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주변 또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좀 제가 다른 직업의 다른 상황에 다른 그런 쪽이었다라고 하면은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N38, 1987년생, 35세, 상승이력 상위계층)

이러한 특징은 낭만적 사랑과 결혼을 등치하지 않는 결혼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계층을 막론하고 소수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이미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부터 적지 않은 연애경험을 갖고 있다. 연애 기회의 부재가 결혼의 감소와 관련된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노동이력이 복잡해지고 있는 최근 세대들 사이에서 20대에 '평생'의 배우자를 선택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자신의 노동시장 지위는 물론 가치관이나 생활형태 등

이 확실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는 물론, 결혼여부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조건은 낭만적 사랑과 현실적 사랑을 구분하도록 만들고 좋은 가정을 꾸리기에 적합한 결혼상대의 '자격'에 대한 세심한 기준을 부여하도록 만든다.

> 제가 이분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이제는 제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은 생기고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을 즈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N28, 1987년생, 34세, 여, 상승이력 상위계층)

## 나. 자녀갖기와 여성의 불확실한 생애경로

좋은 직장에 다니는 상위계층 출신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이들이 결혼상대자로서 비교적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이 충족된다고 해도, 결혼 후 자녀를 가진 후 어떻게 부부간의 역할 분담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혼을 결정하는 데 부담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상위계층 청년들은 이미 회사 내에 정착된 육아휴직 사용문화와 조부모의 도움에 대한 기대, 그리고 본인들의 소득으로 돌봄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자신감 등을 갖고 있었다(N25, N09, N34, N28). 특히 이러한 자신감은 이들의 계층지위와 내부노동시장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유리한 조건에 힘입은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지위가 높은 여성들은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일을 그만두는 것의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혼을 결정한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1유형(상승이력 상위계층)이면서 결혼의향을 가진 경우는 모두 자녀출산을 계획하고 있었다.

> 어 저도 놀란 게, 저희 제가 주변에서 가까이 지내는 저희 직원 분들은 **남성분들이 본인들이 아이 하원을 담당하시는 분이 많고 어 그리고 그 사내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은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오면 아빠가 더 가까이 있잖아요 사내에 있으니까 그래서 연락받고 '원장님하고 상담하고 올게요' 뭐 하고 내려갔다 오시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뭐 아이 케어나 이런 것도 재우는 거 그런 것도 **주보육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N25, 1989년생, 33세, 여)

이와 달리 상위계층 출신이지만 자신의 커리어가 불안정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2유형(정체이력 상위계층)에서는 결혼을 희망하지만 자녀는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자녀출산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남성 참여자인 N35는 해외에서 취업하기 위해 서둘러 결혼을 하려고 한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었고 현재에도 구직 중이기 때문에 결혼할 만한 경제적 자산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N35는 부모의 도움으로 결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를 갖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만한 경제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 주변에도 아이를 낳지 않는 친구들이 많고", 미래에 자녀세대가 과연 행복할까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저희 둘이 번 만큼 저희 둘이 원하는, 갖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전부 다 누구 눈치보지 않고 하는 거"에 더하여 지금까지 자신을 무리해서 뒷바라지한 부모님의 노후에 보탬을 드리고 싶다고 말한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조건에서 성장한 1980년대 출생 중산층 배경의 청년들은 자녀로 인한 소비수준 하락을 두려워하며, 무리해서 자녀에게 교육투자를 한 베이비붐 세대들은 막상 노후가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 N35는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중산층 배경이거나 소득 상위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희망적인 것은 주어진 경제적 상황과 제도적 여건과 관련 없이 낙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이들은 결혼을 전망할 때 출산여부나 시기는 물론, 자녀가 생긴 이후 부부 간의 시장노동 분담방식, 돌봄부담 분담과 외부적 조력 동원 가능성 등을 모두 머리 속에 넣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확실성을 전제하며, 그것이 관리될 수 있는가를 타진하는 것이다. 최근 확대된 육아휴직제도 및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직장에 속한 비혼여성들은 제도 활용 가능성을 미리 간접 경험할 수 있고,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기에 용이한 환경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성들이 결혼 이후 경력을 이어가는 것은 부모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거나 경제적 자원이 있는 1유형의 참여자들에게도 도전적인 과제로 여겨진다. 노동이력이 10년 내외에 해당되는 30대 중반 여성들은 조직 내에서 자신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계속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고민한다. 배우자 남편이 충분한 소득을 벌어들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자신이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자녀 양육에 힘쏟는 것이 더 가치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1유형의 N25, N28과 2유형의 N29가 서로 다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N28은 부모님이 도와준다는 전제로 일과 가정(아이)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육아휴직 제도가 남녀 모두에게 접근가능한 사내 문화, 직업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 그리고 결혼과 출산 후에도 계속해서 커리어를 놓지 않고 있는 동료 여성들을 통한 간접 경험 등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인다.

> 거의 맞벌이가 많고요. **커리어에 대해서 안 놓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해본 적은 없

고 이게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라고 불리는 곳들을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대부분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N28, 1987년생, 34세, 여, 상승이력 상위계층)

N25는 입사 초기 "이 회사에서 임원이 될 거"라며 업무에 욕심이 많았다고 했지만, 그동안 "롤모델이 될 만한 여성임원"을 본 적도 없고 현재는 "가정과 업무에서의 성취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내는 게 정말 어렵겠다"고 생각한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무게 중심은 가정에 두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저는 가능하다면 어 출산을 한 뒤에도 현재 직장에서 같은 일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 아무래도 예를 들어 아이가 좀 아픈 일이 자주 있다거나 좀 돌발 변수들이 생기더라고요. 주변 분들을 보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병행을 잘 해나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그게 좀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면 조금은 더 압박이 적은 곳으로 소득이 좀 더 뭐 많이 줄고 하더라도 어 좀 정해진 워라벨을 지킬 수 있고 좀 **저녁을 가정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업으로 바꿀 수 있는 의향이 있어요.**(N25, 1989년생, 33세, 여)

N29(1985년생, 여)는 시중은행에서 텔러로 일하고 있다. 월 급여수준은 400만 원 후반대이다. 소득은 높지만 현재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점이 불만족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보상은 있지만 인정(recognition)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N29는 직장에서 업무 성과나 승진 등의 조직 내 인정으로 자존감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대신 직장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를 늘리거나, 일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존재감과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결혼을 고려한다.

> 제가 소비가 좀 많아지는 것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습게 보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꾸미려고 하고**, (...)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정규직이어서 과장 차장 됐으면 굳이 결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결혼은 해야겠다. **'나는 안정감을 찾겠다'**라는 거죠.(N29, 1985년생, 37세, 여, 정체이력 상위계층)

N29는 강한 결혼의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 20대에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했죠. 근데 현재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죠. **그냥 육아하면 그냥 육아만 하겠다**. 근데 아직 육아를 경험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 그래서 **육아휴직을 일단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고, 된다면 복직하지 않고 지금은 그대로 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N29, 1985년생, 37세, 여, 정체이력 상위계층)

N10은 외국에서 호텔경영자로 일한 후 한국에 와서 구직 중인 상태에 있다.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는 가족(어머니)을 돌보기 위해서였지만, 호텔 일에 지쳤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현재 찾고 있는 일이 호텔과는 관련없는 일이라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그녀는 결혼을 하고 싶고 자녀를 원하며, 아이가 있다면 육아에 전념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10대와 20대 동안 교육을 받고 좋은 직업을 얻는 일에 몰두했으며, 원하는 일을 찾아 거기에 전념했다고 자신을 설명한다. 결혼이나 자녀를 성취의 대체물로 여기지는 않는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 기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하위계층의 결혼·출산 시나리오와는 차이가 있었다.

**근데 아이가 있다면 좀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서 저는 다시 나갈지라도 그렇다면 내가 내 커리어가 거기서 멈추는 건데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해봤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틈틈이 공부를 한다든지 자기 개발을 조금씩 해가면서 그 분야에서 내가 감을 잃지 않고 뭔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대학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자격증을 더 따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뭔가를 계속할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집에서 애 키우는 건 저도 원치는 않지만 아이를 위해서 잠깐 제가 전업 주부를 하는 거지 아예 그냥 전업 주부로 전환은 좀 글쎄요**(N10, 1990년생, 32세, 여, 호텔관리자 현재는 구직 중, 정체이력 상위계층).

1유형의 남성 참여자들(N34, N38)은 배우자 여성이 사회적 역할을 갖고 맞벌이로 함께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가 생긴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 N34는 어느 한 사람이 가정을 돌보는 게 불가피하다면 경제활동과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남성참여자들은 자녀출산이 아내의 경제활동 중단을 초래할 경우 경제적 부양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상황이 좋은 1유형의 남성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여성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만약에 힘들면 요새는 많잖아요. 직접 일터에 나가지 않고도 재택으로 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네이버 마켓 이런 걸로도 그냥 그 리모트(remote)로 다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 명은 그런 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다른 한 명은 어쩔 수 없지만 밖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N34, 1991년생, 31세, 남, 외국계 IT 기업 근무).

## 2. 중하위계층의 결혼 전망

N20(37세, 여)은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솔직하고 과감하게 자신의 연애와 결혼시도, 그리고 파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대 후반에 결혼하고 싶은 남성이 있었지만, 부모의 경제적 몰락을 감추고 결혼을 시도해서 헤어졌고, 30대 초반에는 경제적 조건만 보고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과 결혼 직전에 파혼했으며, 현재는 적극적으로 비혼을 선택한 상태에 있다. 그녀는 자신의 노동지위나 가족의 자산수준 등 모든 면에서 중산층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말한다. 자신보다 계층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신과의 결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상승혼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누구도) 손해 보지 않는 선택"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사이의 결혼이 되겠지만, 결혼을 통해 쌓아 올릴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결혼의 이득이 무엇일까 회의적이다. 하위계층의 결혼은 이득이 없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 만약에 제가 아주 경제적으로 넉넉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사람이랑 더 큰 부를 쌓아보려는 야망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저의 개인적인 자유나 이런 걸 떠나서 (...) 저도 결혼을 수단으로 이용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남자도 저의 경제력보다는 제,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의 경제력을 볼 테니까. 그렇다면 맞교환의 측면에서 **손해 보지 않는 선택으로서 결혼**을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N20, 1985년생, 37세, 여,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 가. 경제적으로 준비된 결혼

과연 3유형이나 4유형의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과 남성은 결혼의 가치와 편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모든 계층과 모든 이력 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 '경제적인 것'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3유형과 4유형의 특징이 있다면,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은연 중에 당연시 했던 1~2유형과 달리, 본인의 노동소득을 통해 결혼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있었다. 이 때문에 1~2유형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 가능성에 회의적인 사람은 없었지만, 3~4유형에서는 비혼을 선택하거나 결혼에 회의적인 사례가 포함되어 있었다.

3~4유형의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인 불안정 상태에서 가족생활(특히 자녀양육)을 지속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술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한 이야기, 부모의 잦은 싸움과 폭력으로 얼룩진 가족생활, 나아가 자녀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경제적 무능력 또는 사실상의 방임 등 원가족의 경제적 부침과 경제적 결핍이 바로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N14는 그러한 '되물림'을 막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으로 준비'된 결혼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N24는 결혼에는 돈이 걸려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N19는 결국 돈이 모든 여유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 꼭 가난만 대물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인생이나 그런 삶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자신이 행복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어떤 결혼이나 (...)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N14, 1988년생, 33세, 남,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친구 관계에서만 어떤 나보다 나은 친구, 안 좋은 친구를 다 사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하지만), **결혼에 있어서는 돈이 걸리기 때문에**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N24, 1989년생, 33세, 여, 게임회사 프로젝트 매니저)

(...) 이상적인 거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적인, 이제 애들한테도 잘해주고 나한테도 잘해주고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가장 큰 1번은 여유인 것 같아요. **돈의 여유, 시간의 여유, 마음의 여유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은 돈에서 나오더라고요.**(N19, 1986년생, 35세, 여, 계약직 보육교사)

## 나. 중하위계층의 '동질혼'과 공동부양 결혼의 희박한 가능성

결혼 탐색과정에서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이 만나는 일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상위계층에서 경제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신과 유사한 계층지위를 갖춘 배우자를 선호한다는 것으로서, 일정한 재산과 좋은 직장, 그리고 괜찮은 소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중하위계층에서는 본인의 계층지위(가족배경과 현재 노동시장 지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이 결혼의 선결요건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결혼 가능성을 낙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국 자신의 낮은 지위를 보완할 수 있는 상위계층과의 결혼을 선호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즉 중하위계층의 선택혼 형태는 동질혼이 아니라 상승혼일 것이라는 가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앞서 N20의 냉소적인 진술에서 드러났듯이, 중하위 계층에서

결혼을 통해 경제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모든 사람이 결혼을 통해 '손해'를 보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결국 결혼은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는 것은 '염치 없는' 생각이라거나(N19), 돈을 모으는 일이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상대방이 많은 돈을 갖고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N30). 그런 의미에서 중하위계층의 결혼 전망에서도 선택혼의 양상은 '동질혼'이었다.

> 제가 도둑이 아닌 이상 내가 벌어놓지 않았는데 이 사람한테 기대하는 것 자체도 되게 웃긴 것 같고. 대신에 그게 있어요. 마인드가 같이, **너도 없고 나도 없으면 대신에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에, 기반이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 기반이 없다면, 같이 같은 생각으로 좀 갈 수 있는...**
> (N19, 1986년생, 35세, 여, 계약직 보육교사,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N18은 부모의 계층수준이 높지는 않지만 노동시장 경력을 통해 상승이동을 경험한 여성이다. 이 여성은 자신보다 더 높은 지위의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굳이 그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사회계층간에는 경제적 재산과 소득의 차이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이나 문화적 자본의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후자의 측면은 사회계층 간에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갖도록 만든다. 결혼이 개인간의 결합이 아닌 가족간의 결합이라고 생각할수록, 계층적 차이가 두드러진 상대방과의 결혼은 '우려'를 동반한다. N18은 이러한 측면을 지적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승혼보다는 동질적인 문화적 배경을 갖는 사람과의 결혼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설명한다.

> 돈이 많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좋은데, 서로 데이트할 때는 뭔가 좋은데, 나중에 봤을 때는 뭔가 불편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한 번씩 막 받았던 게, (...) 근데 그분이 골프를 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부모님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은 골프를 요즘 즐겨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되게, 모르겠어요.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약간 저희 집이랑은 조금 뭔가 다소 다른 분위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을 미뤄봤을 때는 저는 그래서 **뭔가 다 비슷비슷한 비슷비슷한 이런 환경에 있는 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N18, 1992년생, 30세, 여, 사무직,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N32는 자신의 원가족 형편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상대방의 '집이(가족이) 너무 좋으면' 자신의 좋지 못한 형편이 더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다.

> **저희 집이 그 원가족 상태가 좀 안 좋은 집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어머니가 노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으시고. 동생 둘을 포함해서 이제 세 명의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더 더욱이나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거나 그런 거는 사실 막 엄청 크진 않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히려 너무 집이 좋으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N32, 1988년생, 33세, 여, 외국계회사 물류담당 사무직,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여성들의 노동경험이 보편화되고 노동이력도 길어지면서, 배우자의 상대적 계층지위에 대한 태도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N24는 '너무 어려운 가정배경'의 배우자는 곤란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배우자라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싸워서 이겨낼 수 있

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낙관적인 생각을 갖게 될 것 같다고 진술했다. 여성들은 가치관이 맞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에는 대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비슷한 상황이면 좋겠고,** 그거보다 조금 괜찮아도 좋고 낮아도 괜찮고 이런 상태인데. **좀 별로라도 우리가 뭔가 그 가치관이 괜찮으면 앞으로 싸워서 이겨낼 수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N24, 1989년생, 33세, 여, 게임회사 프로젝트 매니저,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그렇지만, 노동시장에서 남성의 임금이 통상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소득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계층지위에 있다면, 남성의 노동시장 여건이 여성보다 더 낫기 때문에, 임금수준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족배경 차원에서는 비슷한 지위나 상황의 배우자를 선호하고, 본인의 소득 면에서는 남성의 소득이 좀 더 높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여성들이 상승혼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는 모호하다. 중하위계층 여성들의 계층 선택혼에 대한 생각은 결혼을 통한 계층상승을 기대하는 형태보다는, 동질혼을 기대하는 현실적 태도에 가까우며, 그러한 계층적 동질성이 '두 개의 소득원을 갖는 결혼'(two-income marriage)을 지향하도록 만든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소득 수준이 같다면 배우자로서 어떨 것 같으세요?) 음 배우자로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정말 열심히 돈 같이 벌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긴 할 텐데 열심히 벌어야겠네요.**(N18, 1992년생, 30세, 여, 사무직,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중하위계층에서도 노동시장 지위가 상승한 여성들과 달리, 4유형의 여성들은 가족형성에 대해 같은 4유형의 남성과 마찬가지로 비관적이다. N02는 일관된 결혼 전망을 갖고 있지 못했다. 결혼에 대한 전망을 질문했을 때, 그녀는 피상적으로 '할 수도 있지요'라고 무성의하게 답했고, 마음 맞는 친구와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할 때는 오히려 구체적이었다.

>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좀 좋은 조건에 있고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플러스가 되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딱 제 것만 보고 제 상황에서 계속 나아지지 않는 쳇바퀴처럼 돌고 있는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거 외에 이 사람을 만나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못해서). (N02, 1991년생, 31세, 여, 콜센터 근무)

## 다. 전망하기 어려운 성역할 전망

중하위계층에서 동질혼은 결국 여성들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여성들은 계속 일을 한다는 전제 하에 자신과 비슷한 계층 또는 노동시장 지위를 가진 남성과의 결혼을 전망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혼 전망에서 생계부양과 자녀양육이라는 갈등적 역할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는 아직 결혼 전망에 통합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결혼과 달리, 아이를 키워줄 친족 자원을 동원하기가 여의치 않고, 자녀양육에 전념하며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은 소득상실이라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소기업 종사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은 상위계층 남녀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정해진 수순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하위계층에서는 자녀출산 이후 가구의 두 소득원을 모두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한다.

> 그렇게 하면(둘이 같이 벌면) 쉽겠죠. 둘 다 일하고 한다는 가정 하에. 근데 거기서 이제 자녀가 생기게 되면 (...) **둘 중에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오고. 하면 그때부터 또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N05, 1992년생, 29세, 남, 생산직,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현재 일반사무직으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N13(30세 여성)은 전문대를 졸업한 이후 현재 직장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일을 해왔다. 공연예술분야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여, 판매, 영업 등의 일을 하다가, 전문성을 가지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반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현 남자친구와 사귄 이후로는 결혼의향도 갖게 되었고, 조카를 보면서 출산의향도 갖게 되었지만, 자신의 커리어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에 당장 결혼을 하기보다는 미루고 싶은 생각이 강하다.

>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아기가 자연적으로 생긴다면 직장이 문제겠네요.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아기가 생긴다고 하면 어쨌든 엄마인 제가 뭐 일을 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겠네요. 자영업을 하더라도 만약에 부부가 같이 하는 거면 남편이 좀 하든지 가족들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건데, 직장을 다니면 제가 다니는 직장인 거니까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일을 그만두고 아기한테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N13, 1992년생, 30세, 여,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여성들은 “결혼까지는 괜찮지만” 아이가 생기면 그전까지의 생활방식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고하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출산 이후 일과 가정의 양립가능성은 모든 여성들의 불안요인이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중하위계층 여성들은 여전히 직장인가, 아이인가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들이 속한 계층적 지위는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가족의 계층적 지위로 이어진다. 계층선택혼의 방향이 동질혼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은, 결혼을 통해 계층간 불평등정도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위계층의 동질혼은 결혼을 통한 계층적 지위의 하락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며 자산이 있는 계층은 결혼을 통한 자산규모의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중하위계층의 동질혼은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위험한 선택처럼 보인다. 특히 원가족의 지원 없이 부부의 노동소득 만으로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결혼시기를 미루고 결혼 가능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또한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의 취약성으로 인해 자녀출산 이후 공동부양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도 가족형성의 대표적인 난관 중 하나이다.

동일한 계층적 지위를 공유하고 있더라도, 여성과 남성은 결혼가치, 결혼 가능성, 결혼 지연 태도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제3절 성별화된 결혼 지연과 새로운 가족형성의 전망

### 1. 비혼기의 기반으로서 여성의 일

내가 뭐 엄청나게 큰 돈을 버는 직업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어쨌든 나도 내 밥벌이를 할 수 있으니,** 굳이 성격적으로도 뭔가 안 맞거나 굳이 사회적으로 나이가 됐으니까 해야 되는 결혼 이런 거는 역시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N27, 1989년생, 33세, 여, 정체이력 상위계층)

20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불안정 노동이력이 늘어나면서, 안정된 성인기로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요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년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가를 설명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커리어가 안정되고 소득도 늘어난 상태에서, 당장 결혼으로 진입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당분간이라도 지속시키고자 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아네트(Arnett, 2004)의 '새로운 성인기'(emerging adulthood) 개념을 변용하여, 이를 비혼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결혼의 지연이나 비혼 지향이 단지 결혼에 필요한 자원을 갖추지 못한 문제로 환원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비혼기'의 존재가 결혼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여성들의 생애에서 경제적 소득을 갖춘 결혼하지 않은 성인기가 시간적으로 장기화되고 그것이 선택 가능한 옵션의 수를 늘리는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이다.

>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지금 남자친구도 있고, 집, 집에서도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혼자서, 강아지 있어도 안 외롭고 만약에 사회적으로 그냥 외로우면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너무 만족스럽게 살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현재로서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N09, 1992년생, 30세, 여, 상승이력 상위계층)

이러한 비혼기의 출현과 장기화를 뒷받침하는 조건은 여성의 일이다. 2장에서 살펴봤듯이 결혼이 기대되는 연령은 직업적인 성취에 대한 기대가 높은 시기와 겹쳐진다. 고학력 대기업 종사자들은 조직 내 숙련이 상승하면서 맡은 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승진 등 경쟁을 위해 인적 투자에 매진하기도 한다.

> 그때 정도 되면은 보통 이제 막 승진하고 뭔가 일에 사실 좀 많이 몰입할 때기도 해요. 왜냐하면 **회사 생활에서 한 10년차가 되면은** 일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거 내가 가면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거 좀만 하면 엄청 터질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이럴 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에 되게 몰입을 한 것도 있었고.** (N30, 1982년생, 40세, 여, 상승이력 상위계층)

노동시장의 주변적 위치에 있는 경우라면, 아직 확고한 자신의 일을 찾지 못했다는 점이 비혼기를 연장시키는 요인이 된다. 30대 초반의 정체이력 여성들은 자신의 일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혼이 가능성과 탐색을 갑작스럽게 중단시킬 것이라며 이를 우려한다. 아직은 자신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4유형의 1990~93년생 여성 6명(N01, N02, N06, N07, N08, N13)은 모두 200~250만 원 정도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N01, N06, N13)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N02, N07). 일상적인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의존 상태는 벗어났지만, 소득을 더 높이거나 노동지위를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탐색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N02, N06, N07, N13).

그런 맥락에서 당장 눈 앞에 그리는 이상적인 생활의 모습은 (먼 미래의 결혼이 아니라) 자기만의 주거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는 모습이다.

> 남자친구가 있긴 하지만 저 혼자만의 저만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방을 꾸미는 것도 좋은데 그게 내 집이면 더 좋을 것 같고 굳이 결혼으로 집을 꾸미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다 온전히 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N06, 1993년생, 29세, 여,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노동시장 지위가 상승한 여성들도 '혼자'인 시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N24는 앞으로 5년 동안 비혼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혼자 살고 싶다고 말한다. 20대 중반부터 혼자 살아왔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에게 혼자 살기는 단지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부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한시적이더라도) 추구하고자 하는 생활형태로 보인다.

> 앞으로도 5년간은 비혼을 할 생각이고(이에요). 파트너나 이런 것도 사실 생각을 해봤고, 제가 친구랑 사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 제가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집에서 살아서 그런지 **혼자서 사는 거에 대한 이상이 좀 컸더라고요.** 그래서 스무 살 이후에 자취했지만 언니랑 같이 살았고 그다음에 스물 여섯 살부터 계속 지금 계속 자취를 혼자 살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그 혼자 있는 외로움을 견디는 방법도 다 알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가 안정적이라 생각해서. (N24, 1989년생, 33세, 여,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대부분의 여성들이 '당연하게' 결혼했던 시기에는, 결혼하지 않기 위해 특별한 능력이나 성취가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컸다. 가령 1960년대 출생 여성들에게 결혼한 이유를 물어보면, "제가 뭐 그렇게 능력이 특출난 것도 아니고" 평범하기 때문에 결혼을 굳이 안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고 결혼의 이유를 설명했다(전희경, 2012). 여성들의 혼자 살기 위한 조건은 '능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출생코호트 여성들 사이에서, 비혼은 대단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1980년대 출생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 이유로 자신의 '소박함'을 주장한다. 소박함은 경제적 자립능력을 전제로 하고, 사실 이것이 전부이다. 비혼과 달리 결혼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 이상으로 생활수준과 소비수

준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은 남편과 자녀, 시가족 등 관계의 확장을 통해 '그럴듯한' 삶의 외형을 갖추도록 해주는 대신,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침해하거나 위협한다고 생각한다.

> 일단 혼자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받는 연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솔직히 혼자 사는데 그렇게까지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저 자체가 되게 그냥 소박한 사람이라서** 뭐 갑자기 뭐 명품을 탐하고 그러지 않아서 그냥 제가 살 집만 있으면 되고 그냥 거주할 수 있는 공간만 취미만 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돼서. 네. **혼자 살기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서** 비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N24, 1989년생, 33세, 여,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 내가 꼭 결혼을 해야지 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라도 충분히 살아갈 기반이 된다면 그렇게 (결혼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 **비혼은 아니지만 내가 내 상황적으로 비혼으로 가더라도 그거에 대해 큰 불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N19, 1986년생, 35세, 여,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여성들이 (결혼 없이) 성인기에 진입한 이후 얼마간의 '비혼기간'을 갖고자 하는 데에는 페미니즘의 영향도 크다. 1990년대 이후 페미니즘 운동은 성인 여성이 사회적 인격을 얻기 위해 결혼이 필수적이라는 관념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2015년 이후 대중적으로 확산된 페미니즘은 이러한 추세에 더하여 비혼을 여성적 성취로 의미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페미니스트 독서모임에 적극 참여해 온 N20은 자신의 생애를, 주체성을 결여하고 타인의 인정에 기대하며 살았던 시기로부터 벗어나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독립성을 확보해 온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성장 서사에서 '비혼'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N20은 결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이 되

는 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20대 초반에는 '감히' 기대할 수 없었던 자신의 성취를 현재의 비혼과 연관짓는다(N20, 1985년생, 37세, 여,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 **직장생활을 이렇게 길게 할지도 몰랐고** 결혼 안 하고 내 이름으로 단독으로 집을 산다는 점, 그리고 부모님에게서 감히 독립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효도해야 돼, 이러면서 막 정말 학원 강사 해가지고 한 달에 120만 원 받아서 거기다 꽂아주고(부모에게 보내주고) 이러던 때였거든요. (...)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했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N20, 1985년생, 37세, 여,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그러나 여성의 출산통제권, 비혼동거에 대한 사회적 수용 정도, 비혼출산의 사회적 가시성과 비혼가족 구성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결혼하지 않는 '비혼기간'의 생활에 특별한 요소가 있지는 않다. 혼인 외부에서의 동거와 출산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결혼의 제도적 중심성'은 여전히 강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에 의미를 부여하는 여성들은 '혼자로 존재하기' 그 자체를 긍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혼 긍정의 태도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소극적, 비관적인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가정생활은 여성 자신에게 엄청난 제약이라는 의견이다. 많은 여성들은 다소 피상적으로 '결혼을 하면 시가족도 챙겨야 한다'든지, 자신을 위한 시간,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다.

> **결혼을 하면 뭔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결혼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혼자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제가 누리면 되는 거고, 돈도 제가 쓰면 쓰는 건데, 뭔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되게 다 제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N18, 1992년생, 30세, 여,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이상에서 여성들의 결혼 지연을 '비혼기간'이라는 새로운 생애시간과 그에 대한 여성들의 긍정적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에서 살펴볼 남성들의 태도는 이와 큰 차이가 있었다.

## 2. 남성의 비혼기와 부양능력 따라잡기

현재 본인의 노동시장 지위가 낮거나 불안정하고 중하위계층 출신인 연구참여자들(4유형 정체이력 중하위계층)은 결혼을 희망하지만 결혼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5명의 사례 중 결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참여자는 커플이 연구에 참여한 N07과 N17뿐이었으며, 나머지 13명의 사례는 결혼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았다. 특히 남성들은 현재의 상태로는 결혼비용(특히 주택구입이나 임대를 위한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점을 결정적인 이유로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이력 중하위계층의 남성들은 다른 유형의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고 가정을 이루는 '생애과업'을 달성하고자 구체적인 자금마련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상당수의 4유형 남성들은 앞으로 몇 년간 돈을 모을 수 있으면 그때 결혼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했다(N03, N05, N06, N17, N37).

중하위계층 남성들은 결혼을 희망하면서도 미루고 있다. 4유형의 남성들은 생애, 가족, 성별관계에 대해 여성과 비교하여 훨씬 경직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징은 미국 하위계층 남성에게서도 나타난 특징이었다. 실바(2020)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이 생각하는 결혼 가능성은 실

제보다 더 비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단지 이들의 노동시장 지위가 취약한 데에만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상대적으로 경직되게 받아들임으로써, 배우자와 아이를 부양할 능력이 없으니 결혼 관계도 맺을 수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바는 이들이 전통적인 젠더 배치와 친밀성의 형식 바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유연한 태도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바의 관찰을 한국 중하위계층 비혼남성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남성 참여자들은 결혼을 제약으로 간주하거나 결혼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 또한 결혼 전망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결혼상대에 대한 기준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그보다는 '자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했다. 중하위계층 비혼 남성들은 공통적으로 결혼을 위해 '자산 1억'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둔다. 전문대를 졸업하여 현재는 지방에서 제조업 정규직으로 일하는 N05는 자신의 조건부 결혼 전망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 그게 저는 만약에 **서른여섯까지** 제가 지금 번 돈이랑 주식이랑 해서 만약에 **내가 1억이 모인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이제 결혼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지금 늦어진 생활 그대로 그냥 쭉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N05, 1992년생, 29세, 남,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굳이 선택을 해야 되면 저는 그 기준에 있는 게 (경제력이라는) **조건을 맞추고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N03, 1992년생, 30세, 남, 프리랜서 방송작가,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위와 같은 진술은 남성 측에서의 결혼 지연 동기를 설명해준다. 모든 남성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 경제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것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결혼 탐색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N33은 여성이 1억을 모으지 못했을 때는 큰 일이 아니지만, 남성이 1억을 모으지 못했을 때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진술한다.

> 저 개인적으로도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결혼을 그런 금전적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엄두가 안 나는 게(...) 어쨌든 그게 서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되, **심리적으로 뭔가 남자가 더 죄가 크다는 느낌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더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N33, 1985년생, 36세, 남,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남성 참여자들에게 '1억 모으기'는 꼭 필요하지만 달성하기 어려운 과업이다. N35가 다음과 같이 길게 서술하듯이, 남성은 군복무 기간 2년, 수험생활, 취업준비로 입직연령이 여성에 비해 지연되며 괜찮은 일자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결혼적령기'(30대 초반)까지 1억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다.

> **병역의 의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2년 정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자 분들에 비해서 더군다나 이제 요새는 또 학력이 높아졌잖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대학교는 거의 필수**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최소 2~3년에서 최대 4년까지는 또 20대부터 학업에 열중하기 때문에 소득이 거의 없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라도 20대 후반 정도는 돼야지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또 결혼을 생각할 나이는 요

> 새 많이 늦춰졌다 하더라도 보통은 30대 초반으로 보니까 **많이 잡아도 한 4년에서 5년 사이인데 그 안에 1억**을 만약에 1억이라는 액수가 나왔으니까 일억이라고 예를 들자면 액수는 중요하진 않지만 **최소한 1년에 이천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지 1억**이라는 돈이 모이는데 또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직을 시작하면 엄청나게 고소득을 처음부터 한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N35, 1989년생, 33세, 남, 구직을 위해 해외이주 준비 중, 정체이력 상위계층)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지위와 높은 소득을 얻는 상승이력(유형 1, 3) 연구참여자에게 '1억'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마련 가능한 액수(N37)거나, 결혼자금으로서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금액(N34, N38)이다. 반면 노동시장에서 지위가 열악한 정체이력(유형 2, 4) 연구참여자에게는 '모으기 아득한'(N03, N05, N16, N31, N35) 금액 이거나 '막연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N17) 금액이다. 그러나 결혼을 하기 위해 1억 모으기를 달성할 수는 없을지라도 남성들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자기 성취의 목표로 간주하고 중요성을 부여한다.

> 어디 한 군데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지 심적으로 그런 안정도 되고 어떤 플랜도 짜는 건데 그게 지금 생각만큼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이상은 **남들 하는 만큼 하면서** 그렇게 그냥 조금 **물질적(인 것)은 아니어도 마음의 여유나 그런 안정은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N14, 1988년생, 33세, 남,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연구자는 연구 초기에 남성 참여자들이 '1억'에 대해 이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후 여성 연구참여자들을 포함한 모든 연구참여자에게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1억이 필요하다'라는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1억 모으기'는 남성들이 주로 이야기하지만,

여성 참여자 역시 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N25는 '1억'을 현실적으로 결혼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이자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정산서로 해석한다.

> 음, 저는 동의해요. 그게 액수가 꼭 1억이냐 아니냐보다도 그러니까 1억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현재 서른 네 살인데 (...) 최소한 제 또래거나 저보다 연상이거나 그런 분일 텐데. 그런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그래도 뭐 대부분 이제 한 8년에서 10년 가까이 혹은 그 이상 해온 분들이실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이제 개월 수로 치면 120개월인데 그 정도 이제 **일을 했는데 1억 정도의 자금을 모으지 못했다는 거는 음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N25, 1989년생, 33세, 여, 대기업 정규직 근속 10년, 상승이력 상위계층)

결혼 전망이 있는 여성들은 결혼의 자격 요건으로 물질적 기준을 노골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거부감을 표시했다. 금액을 내걸고 결혼기준 운운하는 것은 남성들 간 '서열 세우기'(N26)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비난하거나, 정작 중요한 기준을 놓치고 있다고 '바보같다'고 말한 참여자도 있었다(N24). 또한 함께 벌어서 모으면 되는데, 너무 고지식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여성도 있었다(N18).

여성들 자신도 적지 않은 직장생활을 해왔으면서도 돈을 모으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성별을 떠나, 평범한 임금노동자가 30대 초반까지 1억을 모은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업이라는 것이다.

> 근데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 보니까, **돈을 모은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막 예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집은 해와야지 뭐 해야지. 근데 사실 서울에서 집 사는 거 되게 어렵고요. 전세자금은 모으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결혼은 남자든 여자든 준비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준비가 되었

> 을 때 하는 게 사실 좋고. 그리고 부모님들이라고 해서 어디서 뭐 3억 4억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1억은 되야지 결혼한다는 거는 사실 여자도 동일할 것 같아요. 여자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N30, 1982년생, 40세, 여, 상승이력 상위계층)

문제는 모든 사람이 1억을 벌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1억 이상의 돈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데 있었다. 더욱이 결혼 시 남성이 집을 마련하는 전통적 규범 역시 남성의 결혼 조건으로서 '1억'의 필요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과 주거비의 상승으로 더 이상 남성 혼자서는 집을 마련할 수 없다고 여성 참여자들은 이야기한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는 1억으로 전세나 월세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N27, N30, N34, N35, N37, N38), 부모의 도움이 필수적이고(N29, N34, N38) 원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며, 특히 중산층 이상의 가족배경이나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 본인은 1억을 가져오고 저는 그래서 원가족. 그러니까 원가족을 안 볼 수가 없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서포트해(support) 주지 않는 이상, 이거는 **내가 혼자서 살던 거에서(생활수준과 비교하여) 너무 쳐질 수밖에 없다.** 삶이. 그래서 1억 정도는 보태주셔서 한 2억. 그리고 나도 1억 정도는 가지고 가야. 3억 정도는 있어야.(N29, 1985년생, 37세, 여, 현재 결혼 고민 중, 정체이력 상위계층)

이러한 맥락에서 중하위계층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결혼자금을 마련한 후 결혼으로 이행하는 것이 결코 현실적이지 않다. 이에 대하여 중하위계층 여성들은 '비혼 긍정'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자원에 의존하여,

결혼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자기 생애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와 달리, 남성들은 결혼의 가치는 물론, 남성의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도 경직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혼자 사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남성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남성들 자신의 수용적 태도에는 단지 젠더 규범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하위계층 남성들의 결혼 전망이 '1억 모으기'로 표현되는 것은, '1억'이라는 금액의 규모로 표현된 결혼 가능성이 무맥락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데 있을 것이다. 그것은 좋은 학벌이나 좋은 직장, 좋은 가족 배경 등과 같이 (이미) 바꿀 수 없는 현실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누구나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화폐적 기준을 결혼의 자격으로 삼아, 결국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유지시킨다. 중하위계층 남성들은 결혼 지연(결혼 탐색의 지연)을 통해 자격을 갖출 때까지의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벌기를 통해 '남성의 자격'을 갖출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1억 모으기라는 담론은 남성의 결혼 지연을 단지 객관적인 '결혼 가능성'(marriageablity)의 충족여부 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남성들의 좌절과 체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남성에 대한 기대는 성별 관계에서 강화되는 형태라기보다는, (결혼시장에서) 여성 상대방에 의해 요구되기 전에, 남성 자신의 도덕적 규범이자 계층적 상승에 대한 기대를 통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억 만들기 담론에 나타난 중하위계층 남성의 결혼 전망은 미국 흑인 남성 노동자들이 '경제력, 남성다움, 결혼의 문화적 연관관계'로 인해 결혼에 대해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상태와는 다르다(실바, 2020, p.122-123). 한국 청년의 사례는 '남성의 자기 정체성이 부양자라는 의식'에 얼마나 의존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미국 노동계급 남

성청년과의 공통점을 보여주지만, 계속된 결혼 지연을 통해 요구되는 경제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전망을 불안하게나마 갖고 있다는 점에서 좌절과 체념, 포기의 정서와는 차이가 있었다.

## 3. 이상적 배우자와 결혼의 의미

그렇다면, 19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결혼을 오직 '경제적인 거래'이거나 '경제적인 성취'의 단순한 파생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인가. 연구자들은 이상적 배우자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견해를 질문하여, 최근 세대의 결혼 가치를 파악하고자 했다.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원하는 배우자는 경제적 능력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인가의 여부라고 강조했다. 2010년대 초 비혼여성의 결혼 전망에 대한 이재경과 김보화(2015)의 연구는 많은 수의 여성들이 이상적인 배우자로 '자상한' 남성을 원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우리 연구에서는 '자상한'이라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거의 모든 여성들(과 일부 남성)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배우자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낭만적 열정의 상대이기보다는 편안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마음이 막 두근두근 뛰지 않아도", "막 설레지 않아도"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막힘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는 이미 긴 사회생활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 그리고 몇 차례의 연애경험을 통해 낭만적 사랑의 열정적 감정을 상대화할 수 있게 된 것 등, 30대의 생애시간적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저는 대화가 가장 잘 통하는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거든요. 같이 있을 때 지루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좀 같이 있을 때. 그게 가장 그러니까 **마음이 막 두근두근 뛰지 않아도 편안함이 더 지금은 좋거든요.** 예전에는 20대 때는 가슴 뛰는 그런 걸 생각했다면, 지금은 좀 편안함을 더 추구하는 것 같고.(N29, 1985년생, 37세, 여, 정체이력 상위계층)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막 설레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하지만 오래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그냥 무슨 얘기든 그럴 수 있구나 라고 가정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이해가 넓으신 분이셨으면 좋겠어요.**(N10, 1990년생, 32세, 여, 정체이력 상위계층)

둘째,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오펜하이머가 말한 '결혼이후 적응적 사회화'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불확실성이 강한 현대사회에서 결혼 탐색과정에서 확인한 상대방의 기능적 역량만으로는 미래에 대해 확신하기는 어렵다.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과정은 끊임없는 협상과 미시적인 의사결정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혼생활에서 경제적 자원만큼이나 필요한 것은 협상가능한 대화상대로서의 역량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화가능성을 강조하는 연구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조건으로 가치관의 일치를 중요시한다고 진술한다.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말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보통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이거면 솔직히 좀 어려워도 조금 헤쳐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지 않을까** 싶어요.(N19, 1986년생, 35세, 여,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사실 대화가 어렵죠. 대화에는 가치관이라는 것도 분명히 들어가고. (...) 최소한 어 **이 사람과 제가 가진 사고나 이런 관심사, 가치관이 좀 비슷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똑같을 필요는 없고 막 너무 많이 같지 않아도 되지만, 예를 들어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도 우리 둘이 살 집을 하나 정도는 언젠가 마련해야 되니까 적당히 저축하고 적당히 즐기며 살고 싶다가 제 생각이거든요. 하하 그러면 그 사람도 비슷해야 되는 것 같다는 쪽이에요.(N32, 1988년생, 33세, 여,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자들이 계속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나는 일하는 게 중요한데, 일도 늦게 시작했고 근데 내 업무가 좋고 근데 커리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아이를 낳는다는, 낳고 기른다는 환경에서. 그랬을 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그냥 아이 낳고 좀 쉬다가 마트에서 일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 그거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 어쨌든 그 친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헤어지게 됐거든요. 아 안 맞는구나.(N32, 1988년생, 33세, 여,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셋째, 동류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교육수준이나 관심사가 일치하는 것, 나아가 계층적인 수준이 비슷하다는 의미로 '대화가능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배움의 수준이 비슷하고 관심이 취미가 비슷해야지 대화가 통하잖아요. 저도 제일 중요한 게 대화인데.(N12, 1980년생, 43세, 여, 정체이력 상위계층)

대화가, 사실 여러 면에서 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문화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러니까 뭐, 진짜 위아래

로 두세 살 이내의 그런 사람들.(N30, 1982년생, 40세, 여, 상승이력 상위계층)

사실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은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도 갖고 있다. 객관적인 요건들로 비슷한 가정환경, 유사한 직업,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지식수준 등등의 조건은 결국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객관적 요건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사성과 근접성 등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험을 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N32는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대화가 더 잘 통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전 남자친구와 달리 현재 남자친구는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잘 안 통한다고 말한다.

이상적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는 한편으로 부부관계가 상호우애를 통해 실현되는 20세기 초 '우애결혼'(companionate marriage)의 이상을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Coontz, 1992; 2005). 의사소통 가능성은 모든 우애의 기본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의 우애결혼은 낭만적 사랑과 짝을 이루었으며, 부부간의 성역할 분리와도 충돌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대화가 통하는 사람'의 의미는 탈낭만적 사랑 시대의 결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후기 근대적 성격을 보여준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운 시대에, 요구되는 이상적 배우자와 결혼의 가치는 일방적인 보호와 부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관계의 역량'을 갖춘 사람들 사이의 상호의존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관이 맞고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의 이상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4. 현실화된 비혼과 다른 '가족'에 대한 전망

30대 초반의 여성들은 비혼기간 자체를 긍정하면서 결혼 지연 그 자체를 하나의 목적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태도가 노동시장에서 성취를 이룬, 유리한 위치의 여성들에게 한정된 것도 아니었다. 비혼기간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태도가 가족형성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서로가 의지가 되는 사람"의 필요성은 거의 보편적인 욕구이기 때문이다. N21은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한데, 결혼이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한다.

> 결혼을 막 지금 당장 하고 싶다, 이거는 아닌데 조금 나중에 혼자 살아, 살아도 될 만큼의 뭔가 여력이 되는 게 아니라면 같이 **어쨌든 좀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그 생각 정도까지만 하고 있어요. (...) 사실상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건 결혼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되죠.(N21, 1983년생, 39세, 여, 정체이력 상위계층)

이와 달리, 결혼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면서 결혼에 부여한 가치도 철회하는 여성들이 나타났는데, 이 여성들은 고연령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 지금 40대를 딱 지나고 나니까 너무도 담담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결혼이 그 연애의 끝도 전혀 아니고 행복의 결말이 전혀 아니라는 걸** 살면서 너무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N12, 1980년생, 43세, 여, 정체이력 상위계층)

적극적 비혼은 개인의 일관된 이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상황적 요인에 따른 차선책인 것이 사실이다. 비혼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비혼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N30은 점점 나이 들수록 자신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의 풀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결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제는 아기를 낳을 수도 없을 것 같은 데 굳이 결혼해야 하나"라며, 출산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도 있었다(N11). 이처럼 나이는 여성참여자들로 하여금 비혼을 현실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요인인 것이 사실이다.

비혼을 현실로 받아들인 여성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결혼하지 않고서도 안정적이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특히 N30처럼 이미 직업이나 소득 면에서 자립성을 갖춘 여성들은 '혼자서 잘 살아나가는 것'을 힘겹지만 도달가능한 목표로 설정한다.

> 한편으로는 내가 스스로 되게 돈도 진짜 많이 모아놓고, 내 건강도 잘 챙겨놔야, 내가 나중에 혼자서도 잘 살아나갈 수 있겠구나. 누구한테 이렇게 짐이 될, 짐을 들어 줄 사람도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주체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N30, 1982년생, 40세, 여, 은행원, 상승이력 상위계층)

그러나 N30을 포함하여, 비혼자들에게 상호의존과 서로 돌봄의 욕구가 부재한 것은 아니다. 김혜경(2017)의 연구에 따르면, 결혼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든 자연스럽게 비혼자로 굳어지든 상관없이, 결혼 외부에 있는 것과 상호의존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갖는 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친구들'의 존재 또는 부모, 형제자매 등과의 교류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상호의존과 서로 돌

봄을 추구한다. 따라서 비혼전망은 단지 노동시장에서 획득한 소득을 가지고 친밀성과 돌봄관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법적인 결혼관계와는 '다른' 관계를 채워나가야 하는 아직 작성중인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9~49세 비혼자의 64.1%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혼이더라도 연령이 증가하면 주거자립이 늘어나 부모동거율은 감소하지만, 30~34세 미혼남성 46.4%, 미혼여성 58.4%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최선영, 2022).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거의 절반이 부모와 살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30대 비혼자들 중에는 이미 1인가구로 독립하여 살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 현재 부모와 동거 중이라고 해도 독립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힌 사례(N06, N26)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혼자들은 고령의 부모와 동거를 지속할 가능성도 크다. 이미 몇몇 비혼자들은 가족 내에서 주요한 돌봄자로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돌보았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N10, N11, N12). 또한 이미 부모와 함께 사는 주택에 자금을 지원하여 공동소유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사례도 몇몇 있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비혼자들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나이 들어가는 시나리오를 현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부모로부터 주거를 분리하여 혼자 살거나 N08과 같이 동성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N08은 가족을 구성하는 데 반드시 결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 근거로 가족으로 살고 있는 자신과 파트너의 관계를 제시한다. 결혼을 통해서만이 '출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관념에 대한 비판도 강하다.

> **가족 형성하는데 결혼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외국 같은 경우도 결혼 없이 동거를 해왔고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진 다음에 잘 맞는 것 같아 하고 결혼하는 형태도 있고 가족 형성에서 결혼이 꼭 필

수적이지 않은 게 저처럼 마음이 맞는 친구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N08, 1992년생, 29세, 여, 사회복지사, 정체이력 중하위계층)

**'결혼을 안 하면 어때서요?'라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좀 국가에다가.** (...) 국가의 생각은 이거 같거든요. '결혼을 안 하면 애를 안 낳고 애를 안 낳으면 국가에 경쟁력이 없어지잖아' 여러 의미로 이런 것 같은데 **결혼을 안 해도 애를 키우거나 낳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 '사유리'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은 여성들이 원할 것 같고 결혼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N28, 1987년생, 34세, 여, 외국계 패션 브랜드 근무)

비혼자의 증가는 비혼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친밀성에 대한 인정과 지원을 필요로 한다. N20과 N26은 동반자관계에 대한 법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성애만이 아니라 우정과 상호돌봄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주거, 보호관계 등을 차별 없이 인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족 제도에 엮이지 않고도 법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동반자 관계 있잖아요. 그게 되어야 한다고 하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또 성별을 뛰어넘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자 옆에 꼭 남자가 있어야 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정의 차원에서 갈 수 있는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N20, 1985년생, 37세, 여, 상승이력 중하위계층)

동반자관계가 반드시 주거를 공유하는 방식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N20, N30도 현재와 같은 1인가구의 독립적 주거공간을 유지하되, 이러한 1인가구들이 물리적으로 가까이 모여서 느슨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비혼의 증가는 서구사회처럼 비혼동거(consensual union)의 확대를 수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느슨하게 상호의존하는 생활형태에 대한 욕구는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법적 인정 및 지원과 사회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제5장

## 결론

제1절 연구의 함의
제2절 정책적 함의

# 제 5 장 결론

## 제1절 연구의 함의

이 연구는 한국인의 결혼 지연 행동과 동기를 이해함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결혼 감소 추세의 원인을 탐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초기 성인기 노동경험과 제약에 주목했고, 이를 통해 사회계층적 불평등과 젠더 불평등이 가족형성 전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혼이행을 결정하는 경향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계층 차별적 결혼이행 패턴은 남성의 경우 뚜렷하고, 여성의 경우는 최근으로 올수록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차별적인 결혼이행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을 때 결혼이행은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이 연구는 먼저 결혼이행을 관측하는 생애시기를 30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초기 성인기(19-29세)의 결혼이행 패턴을 분석했다. 첫째, 지난 20년 간의 초기 성인기 생애과정 변화를 출생코호트 간의 비교를 통해 관찰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여성의 초기 성인기가 '가족에서 시장으로' 이동한 점이다. 이는 모든 교육수준(계층)에서 나타난 변화였다. 남성의 초기 성인기는 이미 2000년대부터 늦은 진입과 불완전통합, 그리고 긴 비취업 기간 등으로 특징지어지고 있었다. 고학력화는 남녀 모두에서 나타난 변화였지만, 여성의 초기 성인기의 경우, (결혼과 출산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유형이 대폭 감소하고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초기 성인기 내내 계속 남아있는 지속취업형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둘째, 남녀 모두 노동시장에 늦게 진입하는 것은 초기 성인기 결혼 지연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늦은 진입자에는 저학력자도 포함되지만 대졸자가 대부분이다. 교육, 구직, 취업준비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있을 수 있는 조건은 계층화되어 있으며, 적어도 부양의존이 가능한 조건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노동시장의 늦은 진입과 관련된 초기 성인기 결혼 지연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보다는 그렇지 않은 집단의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남녀 모두 늦은 노동시장 진입은 결혼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여성은 남성과 달리 조기 진입이 결혼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조기 진입이 교육수준이나 계층지위 면에서 중하위층의 특성임을 감안하면, 중하위계층이면서 길고 안정된 노동이력을 가진 여성들의 결혼 가능성이 낮게 나타난 결과이다.

20대라는 초기 성인기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교육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 안정화 등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20대의 주요 생애과업이 되었다. 지난 20세기에는 가족형성 및 자녀출산 등 친밀성과 재생산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과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이 초기 성인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과거에는 남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현재보다 빨랐고 노동시장의 고용 여건이 더 좋았기 때문일까? 그보다는 남성의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일단 여성들은 대부분 결혼하고 결혼하면 노동시장에서 물러나 재생산활동을 중심으로 생애를 재조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초기 성인기에 결혼하고 노동시장에서 물러나는 전통적인 여성생애는 소수의 경험이 되고 있다. 여전히 가족형성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강요하지만 결혼 지연 현상이 보여주듯이, 여성들은 적어도 그 시점을 뒤로 미루고자 한다.

오늘날의 초기 성인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 노동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안정화하며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윤리에 지배받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초기 성인기는 시장의 요구와 가족의 요구가 각축하는 시기를 거쳐, 시장의 요구만이 살아남은 시기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집단은 초기 성인기 동안 노동시장 지위를 안정화하지 못한 남녀 노동자들이었다. 과거에 비해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졸업장에 접근하기는 쉬워졌지만,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청년들은 계속적인 이동과 탐색을 통해 불안정하게 구직과 이직을 반복하고 있었다.

청년기라는 가능성의 신화는 청년에 대해 보편적인 함의를 갖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경쟁에서 밀려났거나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 못한 청년들이 이행기를 장기화하면서 붙잡고 있는 신화였다. 노동시장 지위가 불안정한 청년들은 '결혼은 나중의 일이고, 당장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결혼 지연은 계층배경, 학력자본, 성별 등의 구조화된 제약을 뚫지 못하고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를 이어가는 청년들이 여전히 '그 가능성의 신화'를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중하위계층 청년들이 과거와 같이 빨리 결혼하고 일찍 어른이 되는 것은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다. 오히려 성인 됨의 의미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청년들은 노동시장이나 가족 등 생애과정 제도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는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성인 됨은 실질적인 성취(경제적이든 인격적이든)와 연결된 사회적 인정의 문제이므로, 단지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만으로는 성인 됨을 확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성인 됨의 관념은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에게 더욱 불리한 관념일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일찍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적 의존 없이 스스로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사회적 평판이 낮고 자율성과 존중도 쉽

게 부인되거나 회수되는 일자리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중하위계층 배경과 낮은 노동시장 지위가 결합하면, 결혼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선택은 대체로 유사한 계층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소득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결혼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해야 하는 중하위계층 청년들에게 결혼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꿈 같은' 일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하위 계층 배경의 청년들의 결혼 전망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은 결혼에 부여하는 가치의 젠더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중하위계층 남성들은 여전히 결혼은 남성이 부양자가 되는 일로 생각하고 있었던 반면, 중하위계층 여성은 함께 일해서 (부족한 자원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남성들은 '남성의 소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유일한 소득원으로서 스스로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결혼을 지연하도록 만들었다. 반면 여성들은 결혼 후 소득활동을 전제하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야 할 유인이 적었고, '탐색'을 지속하여 '잘 할 수 있는 일', '의미있는 일'을 찾는 것이 결혼 후의 삶을 위해서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계층 동질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경제력에 대한 기대보다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통해 동등한 관계에서 친밀하고 정서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이러한 중하위계층의 특성은 상위계층 상승이력 청년들의 결혼전망과 큰 대조를 이룬다. 상위계층 상승이력의 남성과 여성은 결혼 이후 부부의 공동부양 모형을 널리 수용하고 있었다. 여성의 소득 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주위에서' 맞벌이 부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점이었다. 이러한 간접 경험은 남성과 여성 모두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지 않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조건에 있으며, 그러한 조건이 긍정적인 결혼전망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달리 중하위 계층에서는 직장을 통해 일-생활 균형 제도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친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여성이 일을 그만두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자녀 양육기간은 남성의 단독부양에 의존해야 하는 기간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있으므로, 중하위계층 남성들이 부양자 남성 책임을 중심으로 결혼 전망을 구성하는 것은 젠더규범 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 연구는 결혼을 지연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결혼 지연의 동기를 해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그러한 목소리에서 사회경제적 자원의 결핍에 의해 가족(조차) 만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강조하기보다, 불평등한 조건과 상황을 수용하고 그에 체념하는 것이 아닌, '평등주의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이 결혼 지연이라는 행동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남성의 결혼 지연은 시간을 벌어 '부양자 남성의 기준'을 맞춘 이후로 결혼을 지연하는 행동이었다. 남성 참여자들은 대다수가 결혼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으며, 다만 개인적인 부양능력에 따라 결혼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남성들에게 결혼 지연은 결혼 전 노동기간을 늘리는 수단으로서의 결혼 지연이다.

이와 달리, 여성의 결혼 지연은 대부분 '비혼기' 그 자체를 확보하기 위한 지연, 즉 그 자체가 목적인 지연이다. 여기에는 결혼 후 여성들이 경험하는 가사노동, 자녀돌봄, 커리어의 제약 등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적 결혼 지연도 가족이라는 불평등 구조에 대한 반응적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결혼 지연은 비혼상태에 대한 긍정적 의미화를 기반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의 결혼 지연과 차이가 있다. 비혼

은 '자기'를 위해 사는 상태를 의미했으며, 많은 여성들이 향후 결혼할 의향이 있더라도 일단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자기 혼자'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기'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낮은 기대, 그리고 가족생활에 대한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 등을 표현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생애 비혼'은 남녀 모두에게 차선책으로 채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이러한 차선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남녀 모두에게 단순히 '결혼 그 자체'가 생애과업이 될 수는 없다. '좋은' 결혼을 지향하기 때문에 결혼은 지연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그리고 젠더 질서에 의해 불리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이 끊임없는 이행기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

## 제2절 정책적 함의

이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사회계층유형에 따라 결혼가능성에 대한 전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하위계층 배경의 정체이력 청년들은 결혼가능성에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상위계층 청년들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적 반응을 낳을 수 있다. 하나는 중하위계층에 대해 경제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성별과 계층을 막론하고 가족형성의 선결조건은 경제적 기반이라고 말하였으며, 남성 청년들은 결혼 계획을 자산형성 계획으로 표현할 정도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매우 큰 중요성을 부여하

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을 지연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결혼의 경제적 기초에 대한 규범적인 기대와 실제의 재정적 능력 간의 격차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기초와 결혼가능성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남성 청년들의 부양자 정체성과 경직된 젠더 규범에 의존하는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 경제적 능력은 가족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이지만, 더 이상 유일한 기초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고소득과 가족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상위계층과 달리, 중하위계층에서 결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의 경제적 기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실제로 중하위계층 여성들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기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을 지속하면서 '함께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결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잘 알려져 있듯이, 생계부양 수단을 갖춘 여성들에게 결혼은 점차 덜 매력적인 제도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 따르면, 최근 세대 여성들은 결혼의 가치를 경제적 의존이나 부양에서 찾기보다는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함께 협력하고 협상하는 수평적 관계를 통해 상호의존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서 찾고 있었다. 여성들에게 '일'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서둘러 결혼으로 이행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현대 여성들에게는 '비혼'이라는 옵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결혼의 경제적 기반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능력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1억 모으기'로 표현되는 중하위계층 남성의 결혼 지연 동기를 문자 그대로 '자산 형성'의 문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중하위계층의 결혼 지연 추세에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더 나은 방식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면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

고, 그것이 문화적 규범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이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일-생활 균형 제도들이 계층적으로 편향되어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수단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작업장 수준의 일-생활 균형 정책에 개입하는 직접적인 수단의 마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또 다른 연구결과 중 하나는 초기 성인기 결혼 지연의 특성에 관한 내용이다. 초기 성인기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와 노동시장 진입 경쟁 등에 의해 가족형성이 거의 집단적으로 지연되는 시기로 재편성되고 있었다. 일차적으로 노동시장 진입과 안착에 드는 시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용제도 측면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더 넓은 사회보장 맥락에서, 생애과정 변화기간 동안 불안정성을 집단적으로 흡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기 성인기 이행과정의 위험이 가족 수준에서 흡수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계층적으로 편향된 관점이다. 특히 소득 중하위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에서 개인 기반의 접근이 더 적극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혼기의 장기화 및 비혼인구의 증가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혼인으로 연결되지 않은 성인들 간의 생활공동체 형성과 유지를 지원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활동을 개시하고 사회적 활동의 경험을 축적한 상태에서 결혼 탐색을 시작하는 현재의 추세에서, 개인의 대응 전략으로서 비혼의 선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적 결혼보다 쉽게 형성하고 해소할 수 있는 관계로서 (서구사회에 만연한) 동거의 활성화가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 간의 친밀 관계가 자연스럽게 동거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만들어진다면 이 관계 속에서 개인을 보호하고 차별없이 권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혼 지연 추세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현재

로서는 결혼의 대안으로 동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우며, 결혼 자원을 동원하기 어려운 계층에 동거가 집중될 개연성이 크다.

이성애적 동거를 포함하더라도 그보다 외연이 넓고 관계의 형태가 다양한 가족에 대해 개방적인 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이, 성별, 성적 정체성 등에 따라 구획하지 않고, 다양한 (성애적, 비성애적) 친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부상하고 있다 (김순남, 2022). 실제로 현재 비혼인 30~40대 여성들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타인과 주거나 지역 커뮤니티를 공유하면서 서로 돌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비혼 성인 남녀가 자발적으로 상호의존의 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결혼 및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를 개방적인 제도로 바꾸는 개선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나라지표 (2022). 취학률 및 진학률.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에서 2022. 10. 29. 인출.

계봉오, 고원태, 김영미 (2021). 여성의 고학력화와 결혼시장 미스매치 가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1990-2015. **조사연구, 22**(1), 61-89.

국무조정실 (2022). **2021년 청년정책백서**. 세종: 국무조정실.

김경화 (200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일과 결혼-대졸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6**(3), 175-199.

김순남 (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 파주: 오월의 봄.

김문길, 김태완, 임완섭, 정은희, 김재호, 안주영, 김성아, 이주미, 정희선, 최준영 (2017).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 황정미 (2013). "요요 이행" 과 "DIY 일대기": 이행기 청년들의 노동경험과 생애 서사에 대한 질적 분석. **한국사회, 14**(1), 215-260.

김유빈, 강민정, 고영우, 김영아 (2019). **청년 삶의 질 연구(II): 빈곤, 여성, 지역 이동, 가족형성을 중심으로**.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김이선, 박경숙 (2019). 한국 여성의 생애: 갈등적 성별화와 계층화. **경제와사회, 122**, 138-170.

김창환, 오병돈 (2019).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 대졸 20대 청년층의 졸업 직후 성별 소득격차 분석. **한국사회학, 53**(1), 167-204.

김현주, 이선이, 이여봉 (2013). 초기 성인기의 정체성 구성에 관한 연구: 중요한 타자와의 상호작용. **가족과 문화, 25**(3), 54-96.

김혜경 (2017). '가족 이후'의 대안적 친밀성: 비혼 청년층의 공동주거 사례를 통해 본 돌봄과 우정의 공동체 실험. **한국사회학, 51**(1), 155-198.

김혜연 (2010). 중, 장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경로 유형화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6**(1), 233-259.

남재욱 (2021).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행과정의 불평등 연구. **한국사회정책, 28**(1), 133-160.

노법래, 양경은 (2020). 한국복지패널로 들여다본 청년의 생애사: Multistate Model로 그린 한국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의 경로와 소득 집단별 비교. **사회복지연구, 51**(3), 71-94.

노혜진 (2021). 니트상태를 경험한 청년들의 생애사. **보건사회연구, 41**(2), 44-63.

민현주 (2012). 자녀출산과 양육시기동안의 여성취업 유형화: 집단중심추세모형(Group-based Trajectory Model)의 적용. **한국사회학, 46**(2), 61-87.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박미희, 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박수민 (2017). 비혼을 통해 본 결혼의 탈제도화와 문화적영향력의 지속. **가족과 문화, 29**(4), 94-121.

변금선 (2018).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의 계층화: 1970-80년대 출생코호트의 청년기 노동궤적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70**(3), 113-137.

변수정 (2022). 혼인 관계와 동거 관계의 주요 특징. **보건복지포럼,** 제308호, 21-34.

서울경제신문 (2017.03.17.). 일자리 못 잡는 청년들… "한국 입직 나이 OECD 평균보다 3.5살 많아". https://www.sedaily.com/NewsView/1ODEOBWY22https://www.sedaily.com/NewsView/1ODEOBWY22에서 2022.10.1. 인출.

신경림, 고명숙, 공병혜, 김경선, 김미영, 김은하, 노승욱, . . . 조명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실바, 제니퍼 M. (2020). **커밍업 쇼트: 불확실한 시대 성인이 되지 못하는 청년들 이야기.** (문현아, 박준규 옮김). 서울: 리시올.

안태현 (2010). 남성의 고용상황과 결혼형성. **노동정책연구, 10**(3), 35-64.

오지혜, 임정재 (2016). 한국 미혼 남녀의 결혼 시기와 결혼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50**(5), 203-245.

우해봉 (2009).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 32**(1), 25-50.

우해봉 (2012). 한국의 혼인과 출산 생애과정: 출생코호트별 및 교육수준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5**(1), 151-179.

유정미 (2017).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단계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한국여성학, 33**(1): 107-155.

윤자영 (2012). 노동시장통합과 결혼 이행. **한국인구학, 35**(2), 159-184.

은기수 (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 18**(1), 89-117.

이재경, 김보화 (2015). 2, 30대 비혼 여성의 결혼 전망과 의미: 학력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1**(4), 41-85.

이희정 (2019). 청년여성의 학교-직장 이행 유형과 결정요인 연구. **한국인구학, 42**(4), 27-63.

장인수 (2022). 출산 행동의 주요 특징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제308호**, 35-47.

전희경 (2012). **'젠더-나이체제'와 여성의 나이: 시간의 서사성을 통해 본 나이 경험의 정치적 함의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정수남, 권영인, 박건, 은기수 (2012). '청춘'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와 사회, 12,** 35-103.

최선영 (2022).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세대 간 자원 이전: 비혼 성인의 특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제308호**, 77-92.

최선영, 오신휘, 박종서 (2020). **신혼부부의 주거자금 조달방식과 부모 지원의 젠더-계층적 성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선영, 장경섭 (2004). 성 분업의 근대적 재구성-한국 여성의 '가족형성기 탈취업' 경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연구, 5**, 173-203.

최필선, 민인식 (2015). 청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 38**(2), 57-83.

카르본, 준, 나오미 칸 (2017). 결혼 시장: 계급, 젠더, 불평등 그리고 결혼의 사

회학 (김하현 옮김). 시대의 창.

통계청 (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12S&conn_path=I3)

통계청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KOSIS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3)

통계청 (2022).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RAS) https://mdis.kostat.go.kr/index.do에 접속하여 분석.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 (2022. 11. 16.). 202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통계청 보도자료.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421772에서 2022. 11. 20. 인출.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early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Oxford University Press.

Becker, G.S.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Burgess, E. & Locke, H. (1945). *The Family*, American Book Company.

Bolano, D., & Vignoli, D. (2021). Union formation under conditions of uncertainty: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sides of employment uncertainty. *Demographic Research,* 45(5), 141-186.

Cherlin, A. (2004).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848-861.

Cherlin, A. (2016). A Happy Ending to a Half-Century of Family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2(1), 121-29.

Coontz, S. (1992). *The way we never were: American families and the nostalgia trap*. New York, NY: Basic Books.

Coontz, S. (2005). *Marriag, A History: From Obedience to Intimacy or*

*How Love Conquered Marriage*. Viking.

Creswell, J. W., & Miller, D. L.(2000). Determining validity in qualitative inquiry. *Theory Into Practice*. 39(3), 124-130.

Edin, K. and Kefalas, M. (2005). *Promises I Can Keep: Why Poor Women Put Motherhood Before Marri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inch, J. (1987). The vignette technique in survey research. *Sociology, 21*(1), 105-114.

Gerson, K. (2010). *The Unfinished Revolution: How a New Generation Is Reshaping Family, Work, and Gender in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Given, L. M. (2008). Emergent Design. in *The SAGE Encyclopedia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Hynes, K., & Clarkberg, M. (2005). Women's employment patterns during early parenthood: A group-based trajectory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1), 222-239.

Hout, M., & DiPrete, T. A. (2006). What we have learned: RC28's contributions to knowledge about social stratification.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24*(1), 1-20.

Jones, B. L., & Nagin, D. S. (2013). A note on a Stata plugin for estimating group-based trajectory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42*(4), 608-613.

Kalmijn, M. (2011). The influence of men's income and employment on marriage and cohabitation: Testing Oppenheimer's theory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Revue européenne de Démographie, 27*(3), 269-293.

Kim, K. (2017). The Changing Role of Employment Status in Marriage Formation among Young Korean Adults. *Demographic Research,* 36(1), 145-172.

Kleining, G. (2001). Offenheit als Kennzeichen entdeckender *Forschung. Kontrapunkt: Jahrbuch für kritische Sozialwissenschaft und Philosophie, 1,* 27-36.

Lesthaeghe, R., & Van de Kaa, D. J. (1986). Two demographic transitions. *Population: Growth and decline, 1*, 9-24.

Mills, M. C., & Blossfeld, H. P. (2005).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the early life course: a theoretical framework. In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youth in society* (pp. 1-24). Routledge.

Mintz, S. (2015). *The Prime of Life: A History of Modern Adulthood.* Havard University Press.

Nagin, D. S. (2014).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An Overview. *Annals of Nutrition and Metabolism, 65*, 205-210.

Nagin, D. S., Jones, B. L., Passos, V. L., & Tremblay, R. E. (2018). Group-based multi-trajectory modeling. *Statistical methods in medical research,* 27(7), 2015-2023.

Oppenheimer, V. K. (1988). A Theory of Marriage Timing.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3), 563-591.

Park, H., Lee, J. K., & Jo, I. (2013). Changing 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 and Marriage among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3), 51-76.

Reinharz, S., & Davidman, L. (1992). *Feminist methods in social research.* Oxford University Press.

Rosenthal, G. (2018). *Interpretive Social Research: an Introduction.* Göttingen: Universitätverlag Göttingen.

Silva, J. M. (2016). High hopes and hidden inequalities: How social class shapes pathways to adulthood. *Emerging Adulthood, 4*(4), 239-241.

Van de Kaa, D. J. (1987).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 (1), 1-59.

Weber, R. P. (1990). *Basic Content Analysis.* Newbury Park, London, New Delhi: Sage Publications.

Wilson, W. J.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Witzel, A., & Reiter, H. (2012). *The Problem-Centered Interview*. London: Sage Publications.

# [부록 1] 심층 면접 질문 목록

## Ⅰ. 주요 서사(main narration)-개방형 질문

1. 안녕하세요. ○○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님께서 이제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 Ⅱ. 가족의 이상과 현실-비네트(vignette) 기법

2. (A-E 사진을 제시하며)[11] 이 사진 중에서 ○○님께서 20대 초반에 생각했던 가족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장면이 있으실까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3. (F-H 사진을 보여주며) 20대 초반에 예상했던 가족에서 선생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자녀 있나요? 누가 키우나요?
4. 현재 ○○님께서 계획하시는/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족의 모습은 어떤가요?
5. 20대 초에 계획한 모습과 같나요 다른가요? 왜 그런가요?
6. ○○님의 현재는 어떤 모습인가요?
7. "아내가 돈을 벌더라도 가족의 생계부양은 일차적으로 남성의 책임"이라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1) 〈사진 설명〉 A: 3세대 가족, B: 4인가족(유배우 유자녀), C: 딩크-반려동물(유배우 무자녀)-법률혼/동거 D:한부모가족(무배우유자녀),E:싱글-반려동물 F: 일하는 여성(비혼/기혼), G: 전업주부(무자녀), H: 전업주부(유자녀)

## Ⅲ. 배우자 선호

8. (결혼을 하신다면) ○○님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무엇인가요?
9. 현실에서 그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10. 배우자를 선택할 때 원가족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원가족의 배경이 배우자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11. ○○님 본인의 사회적 계층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의 사회적 계층이 결혼 여부나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까요?
12. 결혼(결혼 상대자)를 고려하실 때 ㅇㅇ님 본인의 원가족의 배경이 중요한가요?
13. 계층지위가 더 높은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Ⅳ. 학업 경험

14. 고등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인문계/특성화고)
15.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영향을 준 사람이 있나요? (가족, 선생님, 선배, 또래집단 등)
16. 대학 진학(특성화고 출신의 경우 취업을 포함한 진로) 때는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17. 대학생활은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공, 동아리 활동, 등록금, 생활비 조달방법, 아르바이트)
18. 대학생활은 원래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랐나요? 어떻게 달랐나요/같았나요?
19. 학교생활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20. (남성) 병역 의무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계획된 입대였나요? 당시 상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21. 취업 준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직장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었나요?
22. 졸업하기 전 취업이 되셨어요?

23. 졸업 이후에도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그 기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24.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할 때 어떤 기대가 있으셨나요? (포부/희망)

## V. 일 경험

25. 첫 번째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26. 처음 출근한 날 기억하세요?
27. 이직을 결심한 이유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28. 지금까지 여러 일을 거쳐 오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자리나 업무 경험이 있으세요?
29. 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업교육)에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30. 혹시 지금도 직장이나 직업을 옮기고 싶은 고민이 있으세요? (이직/ 전직을 구분할 것)

## VI. 현재의 삶 (노동/소비/주거/지역/원가족)

### 노동

31.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32.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거나 계획했던 일이세요? 원래 하고싶었던 분야/직무가 있으셨어요?
33. 현재 일하고 계신 곳의 근로 조건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다음의 내용을 확인할 것: 종사상 지위(프리랜서/계약직 등), 기업규모, 급여수준, 임금체계(호봉제인지), 4대보험 적용여부, 주요 업무, 커리어 개발/관리직급 승진 가능성/ 노동시간, 루틴(일, 주, 교대근무 여부), 소속감, 직장동료와의 관계
34. 혹시 부업을 하시나요? 어떤 부업을 하시죠? (야간/주말 투잡, 외주 아르바이트, 유튜브 크리에이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 구매대행, 쿠팡

플렉스, 배민라이더 등) 부업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35. 현 직장에 대해 불만족하는 부분이 있나요? 원하는 일자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소비 및 일과

36. 소득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세요? (예적금, 청약저축, 개인연금, 펀드, 직접 투자(주식, 코인) 실손보험, 부모님 용돈)
37. 주로 지출하는 항목은 뭔가요? (주거비, 학자금대출, 일반대출 상환, 적금, 취미생활, 옷사기, 인터넷 쇼핑, 술자리 등)
38. 지금 소득은 현재를 살아가기에 충분한가요? 미래를 계획하기엔 어떠세요?

## 주거 및 지역 생활

39. 현재는 누구와 살고 있나요? (원가족, 같은 도시에서 세대분리, 다른 도시로 이주)
40. 학업/군입대/직장을 이유로 지역을 이동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이동 계기와 처음 타지로 나왔을 때 경험하셨던 일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41.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거환경은 어떤가요? 위치, 집세, 안전, 주변시설(인프라, 교통, 문화적 자원), 동네친구
42. 현재 거주지역에서 언제까지 살고 싶으세요? 현실적으로 이 곳에서 언제까지 살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수도권/ 광역시/ 공단지역/ 농촌 등)

## 원가족과의 관계

43. ○○님 가족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개방형 질문)
44. 부모님에 대한 소개 부탁 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을 하셨나요? 평생 그 일을 하셨나요?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셨나요? 집은 자가인가요?현재 함께 살고 계신가요?)
45.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고생하셨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싸웠던 걸 본 경험이 있으세요? (공과금을 못 내거나, 돈걱정을 하시던 시기가 있으셨나요? 부

모님은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46. 부모님 노후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직장에서 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은 받고 계신가요? 부모님께서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나요? 나중에 부모님이 몸이 아프시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47. 형제자매가 있나요?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교육은 어디까지 받으셨나요?
48. 가족은 ○○님께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개방형 질문)
49. 아까 소득에 대해 질문 드렸는데요, 소득과 지출 관련해서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요? 가족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반대로 가족을 정기적으로 지원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 사회적 자원(친구, 직장동료, 동호회 등)

50. 가족 이외에 ○○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타인(개인/집단)이 있나요?
51.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나 조언을 요청할 사람이 있나요?

## Ⅶ. 인생과 성인 됨의 가치

52.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이나 가치가 있으세요?
53. 어렸을 때는 내가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신 게 있으세요?
54. 현재는 스스로가 '성인 혹은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55. 언제 혹은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성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취업, 결혼, 원가족으로부터의 분리, 정신적 성숙/자립)
56. ○○님께서 '성인이 되었다/ 아직 못 되었다/ 영원히 못되겠다'고 느꼈던 적이 있나요?
57. '아이로 남아있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나요? 언제였나요?
58.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성인과 ○○님 스스로가 규정하는 성인이 다른가요?
59. 성인이 되는 일이 중요한가요?
60. '성공'하는 것과 '성인이 되는 것'은 다른가요?

## Ⅷ. 연애, 결혼, 자녀에 대한 기대와 전망

### 결혼

61. 결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62. ○○님이 생각하시는 결혼의 형태(법률혼/결혼식만/사실혼 혹은 동거)와 시기는 언제이신가요?
63. 결혼을 하기 위한 (혹은 결혼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을까요?
64. 결혼을 한다면, 어떤 결혼생활을 하고 싶으신가요(ideal)?
65.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ideal)?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현실적 예상)?
66. (결혼+원가족) 결혼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나 압박은 없으셨나요?
67. (결혼+원가족) 과거 혹은 현재의 가족 관련된 경험이 ㅇㅇ님의 결혼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주셨나요?
68. (결혼+일경험) 혹시 현재의 노동환경(수입, 노동시간, 교대제, 여성위주 사업장, 불안정한 고용지위)이 결혼을 계획하거나 결심하는데 영향을 주었나요? 혹은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 자녀

69. 자녀에 대해서 그간 생각해 오신 이상(ideal) 있으신가요?
70. 그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그 이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계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71.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녀를 원하시나요?(need와 want를 구분)

### 연애/친밀성(intimacy)에 관한 경험(부가질문)

72. 청소년기/ 혹은 예전에 결혼에 대해 상상하시거나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 해오신 게 있으신가요?

73. 현재는 생각이 바뀌셨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예전의 상상과 비교해보시면 어떠신가요?
74. 지금까지 연애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가능한 선에서만 대답을 얻기)
75. 연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썸(?)이나 짝사랑을 하다가 흐지부지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76. 결혼을 위해 소개팅/선/결혼정보업체(결정사)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77. 연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데이팅앱을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데이트 메이트(date mate)를 만드려는 시도가 있으셨거나 관련된 인상적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78. 연애 대상과 결혼 대상은 다르다고(혹은 달라야 한다고)생각하시나요
79. 연애와 관련된 경험 중 '다시 돌아간다면 했을/하지 않았을 선택이 있으신가요?'

## Ⅸ. 사회불평등에 대한 경험

80. 지금까지 ○○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 오셨는지, 학업과 일은 어떻게 해 오셨는지, 성인이 된다는 것,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사회가 불평등하구나, 혹은 내가 불평등한 대우를 당하고 있구나, 불평등한 지위에 있구나' 라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구체적으로 생각나시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81. 현재 우리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82. 현재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영역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성차별, 소득불평등, 일자리에서 불평등, 고용기회 불평등, 자산격차,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부/가난의 대물림 등)
83. 사회 불평등과 결혼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84. 정부가 정책적으로 불평등 해소 혹은 '결혼 할/하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X. 마무리 발언

85. 앞으로 5년/10년/30년 뒤(노인)에는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ideal)?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현실적 예상)?
86.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다 드렸습니다. '가족형성과 불평등'에 관해서 제가 질문 드리지는 않았지만, ㅇㅇ님께서 평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나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부록 2] 부표

〈부표 1〉 성별 출생코호트별 교육수준별 과거연령별 미혼율

| | |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
| 남성 | 1966-70년 | 고졸 이하 | 0.970 | 0.746 | 0.381 | 0.262 | 0.213 | 0.188 | 0.176 |
| | | 초대졸 | 0.990 | 0.814 | 0.317 | 0.174 | 0.131 | 0.112 | 0.103 |
| | | 대졸 | 0.993 | 0.873 | 0.331 | 0.155 | 0.110 | 0.093 | 0.085 |
| | | 석사이상 | 0.997 | 0.866 | 0.303 | 0.117 | 0.071 | 0.053 | 0.046 |
| | 1971-75년 | 고졸 이하 | 0.975 | 0.794 | 0.527 | 0.388 | 0.318 | 0.284 | |
| | | 초대졸 | 0.993 | 0.879 | 0.495 | 0.297 | 0.222 | 0.193 | |
| | | 대졸 | 0.996 | 0.927 | 0.531 | 0.279 | 0.192 | 0.163 | |
| | | 석사이상 | 0.998 | 0.933 | 0.481 | 0.193 | 0.108 | 0.082 | |
| | 1976-80년 | 고졸 이하 | 0.977 | 0.861 | 0.626 | 0.461 | 0.380 | | |
| | | 초대졸 | 0.994 | 0.917 | 0.574 | 0.349 | 0.267 | | |
| | | 대졸 | 0.995 | 0.955 | 0.620 | 0.321 | 0.226 | | |
| | | 석사이상 | 0.998 | 0.959 | 0.567 | 0.220 | 0.123 | | |
| | 1981-85년 | 고졸 이하 | 0.981 | 0.897 | 0.679 | 0.500 | | | |
| | | 초대졸 | 0.994 | 0.938 | 0.630 | 0.400 | | | |
| | | 대졸 | 0.997 | 0.970 | 0.676 | 0.371 | | | |
| | | 석사이상 | 0.998 | 0.969 | 0.631 | 0.275 | | | |
| 여성 | 1966-70년 | 고졸 이하 | 0.857 | 0.313 | 0.107 | 0.067 | 0.054 | 0.048 | 0.044 |
| | | 초대졸 | 0.962 | 0.487 | 0.141 | 0.079 | 0.062 | 0.056 | 0.054 |
| | | 대졸 | 0.977 | 0.545 | 0.166 | 0.100 | 0.082 | 0.076 | 0.073 |
| | | 석사이상 | 0.985 | 0.636 | 0.260 | 0.179 | 0.151 | 0.140 | 0.136 |
| | 1971-75년 | 고졸 이하 | 0.891 | 0.430 | 0.195 | 0.128 | 0.101 | 0.090 | |
| | | 초대졸 | 0.977 | 0.624 | 0.233 | 0.131 | 0.102 | 0.092 | |
| | | 대졸 | 0.984 | 0.694 | 0.283 | 0.166 | 0.131 | 0.121 | |
| | | 석사이상 | 0.992 | 0.802 | 0.402 | 0.254 | 0.204 | 0.187 | |
| | 1976-80년 | 고졸 이하 | 0.903 | 0.586 | 0.310 | 0.195 | 0.151 | | |
| | | 초대졸 | 0.982 | 0.737 | 0.314 | 0.167 | 0.128 | | |
| | | 대졸 | 0.988 | 0.822 | 0.390 | 0.208 | 0.160 | | |
| | | 석사이상 | 0.994 | 0.889 | 0.475 | 0.264 | 0.201 | | |
| | 1981-85년 | 고졸 이하 | 0.926 | 0.697 | 0.403 | 0.256 | | | |
| | | 초대졸 | 0.986 | 0.824 | 0.402 | 0.221 | | | |
| | | 대졸 | 0.992 | 0.903 | 0.478 | 0.262 | | | |
| | | 석사이상 | 0.996 | 0.941 | 0.539 | 0.286 | | | |

자료: 통계청. (2022),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조사 원자료. (RAS)